

도서명: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제1권 상

저자명: 조앤.K.롤링

역자명: 김혜원

출판사명: 문학수첩

## 제1장 살아남은 아이

프리벳가 4번지에 살고 있는 더즐리 부부는 자신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이하거나 신비스런 일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다. 아니 그전 터무니없는 것들은 참아내지 못했다.

더즐리 씨는 그루닝스라는 드릴 제작 회사의 중역이었다. 그는 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이 뒤룩뒤룩 찢 몸집이 큰 사내로, 코밑에는 커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더즐리 부인은 비쩍 마른 체구에 금발이었으며, 목이 보통 사람보다 두 배는 길어서 정원 담 너머로 고개를 쪽 빼고 이웃들을 몰래 훑쳐보는 그녀의 취미에는 더없이 제격이었다.

더즐리 부부에게는 두들리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그 애처럼 착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더즐리 부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건 포터 부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혹시 누구라도 그들에 대해 알아낸다면 더즐리 부부는 아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포터 부인은 더즐리 부인의 동생이었지만, 그들은 몇 년째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사실 더즐리 부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그 엉터리 같은 동생 남편이 전혀 더즐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가 거리에 나타나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댈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 적이 없었다. 이 아이는 더즐리 부부가 포터 부부를 멀리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은 두들리가 그런 아이와 어울리길 바라지 않았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세상에 금방 기이하고 신비스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난 그 우중충하고, 흐린 화요일에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더즐리 씨는 아주 희한한 넥타이를 골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더즐리 부인은 악악 울어대는 두들리를 힘겹게 아기용 의자에 앉히며 신나게 남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커다란 황갈색 부엉이가 날개를 퍼덕이며 창문 옆으로 지나가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8시 30분에, 더즐리 씨는 서류가방을 집어들고, 더즐리 부인의 볼에 가볍게 키스한 뒤 두들리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두들리가 짜증을 부리며 밥그릇을 벽에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귀여운 녀석."

더즐리 씨는 집을 나서며 좋아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고는 후진을 해서 4번지 도로를 빠져 나왔다.

그가 처음으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도로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도를 읽고 있었다.

순간 더즐리 씨는 자신이 방금 전에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고개를 뒤흔 돌려 다시 바라보았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프리벳가 모퉁이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근처에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햇빛의 장난이었던 게 분명했다. 더즐리 씨는 눈을 몇 번 깜박거린 뒤 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고양이도 그를 바라보았다. 더리 씨는 길모퉁이를 돌아 운전해 가면서, 자동차 거울에 비친 고양이를 계속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이제 "프리벳가"라는 표지판을 읽고 있었다-아니, 그 표지판을 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지도나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더즐리 씨는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마음속에서 고양이 생각을 지워버렸다. 시내 쪽으로 운전해 가는 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그날 드릴의 대량 주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시내에 거의 다다랐을 때, 드릴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늘 겪는 혼잡한 교통 때문에 거의 정지해버린 차 안에 앉아 있던 그는 유난히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망토를 입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젊은애들이나 입는 것 같은 이상하고 우스꽝스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새로운 패션을 아주 한심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따각따각 핸들을 두드리던 그에게 우연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떼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그들 중 두 명은 전혀 젊지도 않다는 걸 알고 몹시 화가 났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저 남자는 왜 에메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구! 하지만 다음 순간 더즐리 씨는 이것이 어쩌면 거지들이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동냥을 하고 있는게 분명해...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더즐리 씨는 몇 분 뒤 그루닝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다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9층 사무실에서 더즐리 씨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등을 대고 앉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날 오전 내내 아마 드릴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길에서는 많은 사

람들이 오고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엉이때가 공중에서 부터 내리 덮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부엉이들이 계속 머리 위에서 급강하를 해대자 사람들은 기가 막힌 듯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밤에도 부엉이를 본 적이 없었다.

더즐리 씨는 그러나 평상시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부엉이가 없는 아침을 보냈다. 그는 직원 다섯 명에게 소리 소리를 질러 댔으며 중요한 전화 몇 통을 걸어 약간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리를 쭉 뻗으며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으로 건포도 롤빵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점심 시간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는 빵집 옆에서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마주칠 때까지 그들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들을 보는 게 불쾌했다. 이 패거리 역시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동냥 그릇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빵집에서 커다란 도넛 봉지를 들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들이 주고받는 말 몇 마디를 듣게 되었다.

"포터 부부 말야,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어-"

"... 그래, 그 집 아들, 해리-"

더즐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마치 그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 것처럼 돌아보았지만,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는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사무실로 달려가 비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서 문을 광 닫고는 수화기를 들고 부리나케 집 전화번호를 돌렸다. 하지만 거의 다 돌렸을 때 마음을 바꿨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이렇게 멍청할 데가. 포터는 그렇게 특별한 성씨가 아니었다. 포터라는 성에 해리라는 아들을 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그는 자신이 조카의 이름이 해리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애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애의 이름은 하비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해럴드일지도. 그러니 동생 얘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아내를 괜히 걱정시킬 필요가 없었다. 사실 그녀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그런 여동생이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망토를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는 그날 오후 내내 드릴 생각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5시가 되자 근심에 싸여 건물을 나서던 그는 그만 문 바로 바깥에 사 있는 사람과 부딪치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깡마른 노인이 발부리에 걸려 거의 넘어질 뻔하자, 그는 툭툭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이 보랏빛 망토를 입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몇 초가 지나서였다.

그 노인은 땅바닥에 넘어질 뻔했는데도 전혀 성을 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얼굴 가득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맑은 목소리

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소이다, 선생. 오늘은 아무래도 화가 나지 않을 테니 말시오! 기뻐하시오, 그 사람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이렇게 기쁜 날에는 당신과 같은 "머글(얼간이)"들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더즐리 씨를 포옹하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느닷없이 포옹을 받은 더즐리 씨는 땅에 뿌리가 박힌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는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머글"로 불렸던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주차해 놓았던 차로 달려가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에도 자신이 그저 상상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상상이라는 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번지 차도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얼룩 고양이였다. 그리고 그건 그의 심란한 기분을 더해주었다.

고양이는 이제 그의 집 정원 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양이라고 확신했다. 그 고양이의 눈 주위에도 똑같은 얼룩무늬가 있었다.

"저리 가!"

더즐리 씨는 크게 소리쳤다.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그저 그를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고양이들이 다 저런가, 더즐리 씨는 생각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더즐리 부인은 즐겁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옆집 부인이 딸애 때문에 어떤 골치를 썩고 있으며, 두들리가 새로운 단어('싫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한참을 떠들었다

더즐리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두들리가 잠들었을 때에야, 그는 간신히 거실로 가서 그날 저녁 뉴스의 마지막 보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의 부엉이들이 오늘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곳곳의 조류 관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부엉이들은 보통 밤에 사냥하므로 낮에는 거의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침 해가 떠오른 이후로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엉이들이 왜 갑자기 수면 패턴을 바꾼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 앵커는 한번 씩 웃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짐 맥커핀에게 넘겨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더 많은 부엉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까, 짐?"

"글쎄요, 테드." 그 기상 예보관이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부엉이들뿐만이 아닙니

다. 켄트, 요크셔, 던디와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제가 어제 예보했던 비 대신에, 유성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전화로 전해 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한밤의 횃불 축제를 일찍 축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축제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밤에는 확실히 비가 올 것입니다. "

더즐리 씨는 안락의자에 얼어붙은 듯 꼼짝없이 앉아있었다 영국 전역에 유성우? 낮에 날아다니는 부엉이들? 곳곳에 망토를 입은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포터 부부에 대해 수군수군대는 소리들...

더즐리 부인이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왔다.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말해야만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저- 페투니아, 당신 최근에 동생 소식 못 들었소?"

예상했던 대로 더즐리 부인은 몹시 화를 냈다. 여느 때 그들은 그녀에게 여동생이 없는 듯이 잊으려 애쓰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아뇨"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왜요?"

"뉴스에 우스꽝스런 얘기가 있어서." 더즐리 씨는 우물우물했다. 부엉이들이니... 유성우니... 그리고 오늘 시내에는 이상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요?" 더즐리 부인이 얼른 맞받아쳤다.

"글쎄, 난 그저... 어쩌면... 그게 말이야... 그 집 식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해서 말야, "

더즐리 부인은 입을 오므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더즐리 씨는 그녀에게 "포터"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말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그는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 집 아들 말야... 그 애도 지금쯤 두들리 나이쯤 됐겠지, 안 그래?"

"그렇겠죠" 더즐리 부인이 코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 애 이름이 뭐했지? 하워드지?"

"해리에요. 천하고 흔한 이름이죠"

"아, 그랬지." 더즐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그 화제에 대해 한 마리도 더 하지 않았다. 더즐리 부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더즐리 씨는 살금살금 침실 창가로 걸어가 앞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고양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길래도 하듯 프리벳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포터 부부와 어떤 관련이라도 있을 줄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더즐리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더즐리 부인은 금방 잠들었지만 더즐리 씨는 뜯눈으로 누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설사 이런 일들에 포터 부부가 관

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나 더즐리 부인 근처로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한결 위안이 되었다. 포터 부부는 그와 페투니아가 그들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자신과 페투니아와는 어떻게든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그는 하품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얼마나 턱없이 잘못되었던가.

더즐리 씨가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깥의 담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졸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고양이는 프리벳가 저쪽 모퉁이에서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조각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옆길에서 자동차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도, 부엉이 두 마리가 머리 위로 급습해 왔을 때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고양이는 자정이 될 때까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던 길모퉁이에서 마치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소리도 없이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고양이가 꼬리를 움찔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프리벳가에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허리띠를 덮을 만큼 길게 자란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보아 나이가 매우 많은게 분명했다. 그는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보랏빛 망토에 침쇠가 달린 굽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하늘빛 파란 눈은 반달 모양의 안경 뒤에서 광채를 내고 있었고 코는 길게 구부러져 있어서, 적어도 두 번은 부러졌을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버스 덤블도어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곳에 막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망토를 뒤지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길 저쪽에서 여전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올려다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고양이의 꼴이 그를 재미나게 한 것 같았다. 그는 킬킬 웃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는 안주머니에서 찾고 있던 걸 발견했다. 그것은 은빛 라이터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탁 하고 열더니 공중으로 치켜 올려 찰칵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러자 조그맣게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꺼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찰칵하자 그 다음 가로등이 깜박거리며 나가버렸다. 그가 그렇게 가로등 끄기를 열두 번 하자, 이제 그 거리에 남아있는 불빛이라곤 바늘로 꼭 찔러 둔 것처럼 작게 보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의 두 눈뿐이었다. 만약 지금 창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흥밋거리를 찾아 말뚝말뚝 빛나는 눈을 가진 더즐리 부인조차도, 저 아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었다.

덤블도어는 그 라이터 모양의 것을 다시 망토 안으로 밀어 넣고 4번지 쪽으로 내려가, 고양이 옆에 있는 담벼락에 앉았다. 그리고 고양이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알았소, 맥고나걸 교수."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 그 얼룩 고양이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는 이미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에 그는 고양이의 눈 주위에 있던 바로 그 얼룩무늬 모양의 네모난 안경을 끼고 있는 다소 불임성이 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망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망토는 에메랄드빛이었다. 그녀의 까만 머리는 돌돌 말려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녀가 물었다.

"이봐요, 교수, 난 그렇게 뺏뺏이 앉아있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도 벽돌 담 위에 온종일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뺏뺏해졌을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온종일이라구요? 그럼 축하할 할 거를도 없었겠구려? 난 여기 오는 길에 축제와 파티를 수십 번은 거쳤을 거요."

맥고나걸 교수는 화가 나서 코방귀를 끼었다.

"아 그러시겠죠, 모두가 축제 기분에 젖어 있군요, 좋아요." 그녀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들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선 안 돼요 머글들조차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 챘단 말이에요. 그들의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구요." 그녀는 다시 더즐리 부부의 어두운 거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핵 돌렸다. "전 그 뉴스를 들었어요 부영이 떴으며... 유성우... 글썄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었다구요. 켄트 지방에는 유성우들이 떨어졌어요-그건 분명 데달루스 디글이 한 짓일 거예요 그는 분별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을 타할 수는 없어요"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지난 11년간 축하할 게 지독히도 없었잖소"

"저도 그건 알아요" 맥고나걸 교수가 흥분해서 대꾸했다.

"하지만 그게 축제 기분에 젖어있을 이유는 못 돼요. 사람들은 흰한 대낮에 거리에서, 심지어 머글 옷도 입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 수군했어요.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다가구요."

그녀는 이 부분에서 덤블도어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기도 하는 것처럼, 그를 결눈질로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자마자 바로 그 날로 머글들이 우리 모두에 대해 알아낸다면,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사라진 거겠죠, 덤블도어 교수님?"

"그런 것 같소" 덤블도어가 말했다. "우린 고맙게 여겨야 할 게 많아요. 레몬 샤베트 드시겠소?"

"뭐라구요?"

"레몬 샤베트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머글들이 먹는 일종의 디저트라요."

"아니, 됐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지금은 레몬 샤베트 같은 것에 대해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봐요, 교수, 당신 같은 분별 있는 사람은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않겠소? 이 모든 "그 사람" 타령은 말도 되지 않아요 11년 동안 난 사람들이 그를 그의 이름인 볼드모트로 부르도록 설득해 왔소" 맥고나걸 교수는 움찔했지만, 덤블

도어는 서로 붙어있는 레몬 샤베트를 떼어내는 데 정신이 팔려,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한약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거요 난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겠쥬." 맥고나걸 교수는 반은 화가 나고, 반은 감탄한 듯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달라요. 교수님은 그 사, 아, 좋아요,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추켜세우지 말아요." 덤블도어는 태연하게 말했다. "볼드모트는 내가 결코 갖지 못할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저 교수님이 너무... 뭐랄까... 점잖아서 그런 능력들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게 천만 다행이오. 폼프리 부인이 내가 새로 장만한 방한용 귀 가리개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 이후 이토록 얼굴이 빨개져 본 적은 한번도 없었소"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도어를 한번 날카롭게 쏘아본 뒤 말했다. "부영이들은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모두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이 마침내 그를 멈추게 했는지?"

맥고나걸 교수는 그녀가 온종일 차갑고 딱딱한 담 위에 앉아 기다렸던 진짜 이유인, 가장 논의해보고 싶었던 요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로서도 여자로서도 지금처럼 뚫어질 듯한 눈초리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던 적이 없었다. '모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녀는 확실히 덤블도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었다. 덤블도어는 그러나 레몬 샤베트를 하나 더 먹기로 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지난밤에 볼드모트가 '고드릭 골짜기'에 나타났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포터 부부를 찾아서요. 소문에 의하면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가, 죽었대요"

덤블도어는 머리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숨이 막혔다.

"릴리와 제임스가요...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오, 알버스..."

덤블도어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요, 알아요..."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말을 계속하는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포터 부부의 아들 해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가 그 작은 꼬마를 죽이지 못했대요. 왜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해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볼드모트의 힘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그가 사라진 거래요."

덤블도어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그게 사실인가요?" 맥고나걸 교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몹쓸 짓이란 짓은 다 했던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그가 작은 꼬마 하나를 죽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인가요? 그저 어안이 빙빙할 뿐이에요... 그를 막으려고 그렇게 갇은수단을 다 썼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리가 살아남은 거죠?"

"우린 그저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아마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요"

맥고나걸 교수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꺼내 안경 밑으로 눈물을 가볍게 닦아냈다. 덤블도어는 시끄럽게 코를 킁킁대며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이리저리 살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된 시계였다. 그 시계에는 열두 개의 바늘이 있었지만 숫자는 없었다. 대신에, 작은 행성들이 그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해그리드가 늦는군. 내가 여기에 올 거라는 말은 물론 그에게서 들었겠군요?"

"맞아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왜 하고많은 곳 중에서 하필 이곳에 오신 거죠?"

"난 해리를 그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데려다주려고 온 거라오. 이제 그에게 가족이라곤 그들뿐이잖소"

"설마- 설마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4번지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그럴 순 없어요 전 그들을 온종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못된 아들이 있다구요. 전 그 애가 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사탕을 사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엄마를 발로 차는 걸 보았어요. 해리 포터가 이런 곳에 와서 살다니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 애가 크면 모든 걸 설명해줄 수 있을 거요, 내가 그들에게 줄 편지 한 통을 써두었어요. "

"편지 한 통이라구요?" 맥고나걸 교수가 다시 담 위에 앉으면서, 힘없이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걸 편지 한 통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그 애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애는 유명해질 거예요 전설이 되겠죠. 전 오늘이 장래에 "해리 포터의 날"로 알려진 대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해리에 대해 쓰여진 책들도 나올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그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거요" 덤블도어가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라도 우쭐대게 될 거요. 걷고 말하기도 전에 유명해 졌으니 말이오! 자신은 기억나지도 않는 일로 유명해 졌으니 말이오! 그러니 그 애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라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낫다고 생각지 않소?"

맥고나걸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는지 침을 꿀꺽 삼킨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글썽요- 맞아요, 물론 교수님 말이 옳아

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오죠, 덤블도어?" 그녀는 그가 해리를 망토 밑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듯 갑자기 그의 망토를 주의 깊게 살폈다.

"해그리드가 데려올 거요. "

"해그리드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난 해그리드에게 내 목숨이라도 맡길 거요. " 덤블도어가 말했다.

"제 말은 그의 본성이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 맥고나걸 교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나 그가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는 종종 실수를... 아니 저건 뭐죠?"

나직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그들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찾아 길 이쪽 저쪽을 살피고 있는 동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둘 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소리가 갑자기 굉음으로 변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대한 오토바이 한 대가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 있는 길 위에 사뿐히 내렸다.

그 오토바이가 거대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의 키는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였으며 몸집은 적어도 다섯 배는 되었다.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컸으며, 아주 거칠게 보였다. 술이 많은 뒤엉킨 긴 머리 카락과 수염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쓰레기통 뚜껑만 했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는 발은 아기 돌고래 같았다. 그는 근육이 불거져 나온 양팔에 담요로 싼 뭉치를 들고 있었다.

"해그리드." 덤블도어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마침내 왔군.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소?"

"빌렸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 그 거인이 오토바이에서 조심스럽게 내리며 말했다. "시리우스 블랙이 빌려주었어요. 여기 그 애를 데려왔습니다. "

"다른 문제는 없었소?"

"네. 집은 거의 부서졌지만 머글들이 떼지어 몰려들기 전에 그 애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죠. 애는 브리스톨 상공을 날아오는 동안 잠들어버렸어요. "

덤블도어와 맥고나걸 교수는 둘둘 말린 담요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그 안에는 남자 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새까만 머리카락 밑 이마에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볼 수 있었다

"그게 저...?" 맥고나걸 교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 아이에겐 그 흉터가 영원히 남아 있을 거요. "

"그걸 어떻게 해볼 수는 없나요, 덤블도어?"

"혹 가능하다 해도, 난 하지 않을 거요 흉터가 때로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요. 내게도 왼쪽 무릎 위에 꼭 런던 지하철도처럼 생긴 흉터가 하나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 애를 이리 주시오, 해그리드- 이 일을 빨리 끝마치는 게 좋겠소"

덤블도어가 해리를 두 팔로 안고 더즐리 집 쪽으로 몸을 돌

렸다.

"저어...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해그리드가 물었다.

그는 해리에게 커다랗고 텅수룩한 고개를 숙여 아주 까치작 거리고 간질거렸을 게 분명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는 해그리드가 갑자기 상처 입은 개처럼 소리를 길게 뿔으며 우는 소리를 냈다.

"쉴!" 맥고나걸 교수가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다. "머글들을 깨우겠어요!"

"죄- 죄- 죄송합니다. " 해그리드는 커다란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훌쩍였다. "하지만 전 거-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릴리와 제임스가 죽었다는 게 말예요- 그리고 가엾은 어린 해리를 머글들과 함께 살도록 떼어놓아야 한다는 게 말예요-"

"그래, 그래요, 이 모든 게 슬픈 일이라는 건 알지만, 좀 진정 해봐요, 해그리드. 그렇지 않으면 들키고 말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해그리드의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작은 소리로 말하는 동안 덤블도어는 낮은 정원 담을 넘어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현관의 층층대에 해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망토에서 편진 한 통을 꺼낸 해리의 담요 안에 끼워 넣고는 다른 두 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 세 사람은 한참동안 서서 그 작은 담요 뭉치를 바라보았다. 해그리드의 어깨는 들썩거리고 있었고, 맥고나걸 교수는 눈을 몹시 감박였으며, 덤블도어의 눈에서는 한때 빛을 발했던 광채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자. " 덤블도어가 마침내 말했다. "다 됐군. 우리 이제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소 우리도 가서 그 축제에 합류하는 게 좋겠소"

"그러죠. " 해그리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시리우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어야겠어요. 안녕히들 가세요,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 "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옷 소매로 훔치면서, 해그리드가 오토바이에 휙 오르더니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는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또 봅시다, 맥고나걸 교수. " 덤블도어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까닥여 보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대답 대신 코를 킁 풀었다.

덤블도어는 돌아서서 길 저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길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은빛 라이터를 꺼냈다. 그가 그것을 한번 찰칵 하자 가로등의 전구 열두 개가 금방 다시 켜지면서 프리벳가가 갑자기 오렌지 빛으로 밝아졌다. 길 저쪽 모퉁이에서는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4번지 문간에 놓여있는 그 담요 뭉치도 볼 수 있었다.

"행운을 빈다, 해리. "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책 돌아서서 망토를 한번 휘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잉크빛 하늘 아래에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놓여있는 프리

짓 도로의 그 산뜻한 울타리, 놀라운 일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살짝 미풍이 일었다.

해리 포터는 깨지도 않고 담요 속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옆에 있는 편지를 움켜쥐고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유명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몇 시간 뒤면 우유병들을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연 더즐리 부인의 비명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다음 몇 주 동안 외사촌 두들리에게 찔리고 꼬집힐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

그는 물론 바로 이 순간. 방방곡곡에서 비밀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장엄한 목소리로 "살아남은 아이, 해리 포터를 위해!"라고 말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 제2장 사라진 유리창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 문간에서 조카를 발견한 뒤 거의 10년이 지난 오늘도, 프리벳 도로는 전혀 변한 게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잘 정돈된 앞마당 위로 떠올라 더즐리 씨네 정문의 4번지라고 쓰인 놋쇠 장식을 비추었고, 햇빛은 더즐리 씨가 부엉이들에 대한 그 불길한 뉴스 보도를 보았던 그날 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의 거실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었다.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있는 사진들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10년 전에는, 커다란 핑크빛 비치볼처럼 생긴 아기가 작은 방울이 달린 가지각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지만 두들리 더즐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사진들은 뚱뚱한 금발 소년이 박람회장의 로터리에서 첫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아버지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에게 안겨 입맞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해리 포터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어나야 했다. 페투니아 이모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날의 첫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어나라! 일어나! 당장!"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이모가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일어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리는 그녀가 부엌으로 걸어가는 소리와 프라이팬이 오븐 위에 얹혀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드러누워 지난밤 꾸었던 꿈을 기억해보려고 애썼다. 멋진 꿈이었다. 꿈속에서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그런 똑같은 꿈을 꾸 적이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모가 다시 문 밖에 와 있었다.

"일어났냐?"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거의요. "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나와서 저 베이컨 좀 지켜봐라. 태우지 말고 말

이다. 두들리의 생일날이니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다. "

해리가 투덜댔다.

"너 뭐라고 했니?" 이모가 문 저쪽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무 것도..."

두들리의 생일-그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해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양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양말을 찾아내고, 한쪽 양말에서 거미를 떼어낸 뒤, 신었다. 해리가 거미에 익숙해진 건 그가 잠을 자는 계단 밑 벽장에 거미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옷을 입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두들리의 생일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두들리는 두 번째 텔레비전과 경주용 자전거는 물론이고 그가 갖고 싶어했던 새 컴퓨터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두들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경주용 자전거를 갖고 싶어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두들리는 아주 뚱보인데다 운동-물론 누군가에게 주먹질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면-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하긴 두들리가 가장 두들겨 패기 좋아하는 대상은 해리였지만, 그는 해리를 놓치기 일쑤였다. 해리는 보기와는 달리, 몸이 아주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어두운 벽장에 살고 있어서인지 언제나 또래들에 비해 작고 연약했다. 또한 그가 진짜 나이보다 훨씬 더 작고 말라 보였던 것은 입는 옷마다 두들리의 낡은 옷인 데다 두들리의 몸집이 그보다 네 배나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가름한 얼굴과,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에 연한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두들리가 언제나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바람에 깨져서 스카치테이프로 여러 겹 이어 붙인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해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단 하나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의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가느다란 흉터뿐이었다. 그의 기억으로 그 흉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도 아마 어떻게 그런 흉터를 갖게 되었느냐 였을 것이다.

"네 부모가 죽은 자동차 사고에서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묻지 마라. "

묻지마라-그건 더줄리 가족과의 조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베이컨을 뒤집고 있었다.

"머리 좀 빗어라!" 그가 아침 인사인 셈으로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일주일마다 한번 꼴로, 버논 이모부는 신문 너머로 넘겨다보며 해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소리 쳐대곤 했다. 해리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를 훨씬 더 자주 깎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언제나 그렇게 뒤엉켜 자라났다.

두들리가 그의 엄마와 함께 부엌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달걀을 부치고 있었다. 두들리의 몸집은 버논 이모부만큼이나

커 보였다. 그는 커다란 핑크빛 얼굴에, 목은 거의 없었고, 작고 연한 푸른색 눈에, 살집이 두툼한 머리 위로 부드럽게 늘어진 숱 많은 금발을 가진 아이였다.

페투니아 이모는 종종 두들리가 아기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해리는 종종 두들리가 가발을 뒤집어쓴 돼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달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들을 식탁에 놓으려 했지만, 공간이 많지 않아서 놓기가 힘들었다. 두들리는 그 동안 선물 개수를 세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른 여섯 개네." 그가 엄마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년보다 두 개가 적어."

"얘야, 마지 아줌마의 선물을 세지 않았잖니, 봐라, 그건 엄마와 아빠가 준 이 커다란 선물 밑에 있단다"

"하지만 그래도 서른 일곱 개야. " 두들리는 화를 참지 못해 얼굴이 시뻘게지며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거대한 몸집의 두들리가 곧 짜증을 부리리라는 걸 알 수 있었으므로, 두들리가 식탁을 뒤집어엎을 경우를 생각해 되도록 빨리 먹으려고 베이컨을 입에 마구 쑈서 넣기 시작했다.

페투니아 이모도 그 위험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얼른 이렇게 말했다. "오늘 외출하면 선물을 두 개 더 사줄게. 그러면 어떨겠니, 얘야? 선물 두 개 더. 그러면 됐지?"

두들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이 힘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서른... 서른..."

"서른 아홉 개란다, 얘야." 페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맞아." 두들리는 털썩 주저앉아 가장 가까운 선물 꾸러미를 잡았다. "그럼 됐어. "

버논 이모부는 흡족해서 싱글싱글 웃었다.

"요 녀석은 제 아비를 닮아 돈을 따질 줄 안단 말야. 기특하구나, 두들리!" 그가 두들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고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으려 간 동안 해리와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가 경주용 자전거와, 무비 카메라와, 원격 조종 비행기와, 열 여섯 가지 새로운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카메라를 푸는 걸 지켜보았다.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은 후 화나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포장지를 찢고 금 손목시계를 꺼내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버논." 그녀가 말했다. "피그 부인의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저 애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녀가 고개로 해리 쪽을 가리켰다.

두들리는 화가 나서 입이 찹 벌어졌지만 해리는 날아갈 듯 기뻐했다. 매년 두들리의 생일날이 되면 그의 부모는 그와 친구 하나를 데리고 놀이 공원이나 햄버거 집이나 극장에 갔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피그 부인이라는 괴팍한 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해리는 그러나 그 집이 싫었다. 그 집에서는 곳곳에서 양배추 냄새가 났으며, 피그 부인은 그에게 매번 자기가 길렀던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게 했었다.

"이제 어떡하지?" 페투니아 이모는 마치 해리가 이 일을 계획하기라도 한 듯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피그 부인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슬프게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 티블과 스노이와 포우와 터프티 같은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마지에게 전화해 봐요." 버는 이모부가 말을 꺼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버논. 마지는 저 애를 싫어한다구요" 더즐리 부부는 마치 해리가 그 자리에 없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가 마치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 대해 종종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당신 친구- 이본느?"

"마조르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전 그냥 여기에 있어도 돼요." 해리가 희망을 가지고 제안했다(그는 기분 전환으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도 볼 수 있을 테고 어쩌면 두들리의 컴퓨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페투니아 이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림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게 말이니?"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어질러 놓지 않을게요." 해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고 있지 않았다.

"저 애를 동물원에 데려가야 할까봐요." 페투니아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 그리고 저 애는 차에 두죠 뭐..."

"그 차는 새 차야, 저 애를 차 안에 혼자 놔둘 순 없어..."

그때 두들리가 큰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정말로 울고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해리 때문에 네 생일을 망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녀가 그에게로 급히 팔을 뻗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난... 저 녀석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들리가 가짜로 훌쩍거리며 간간이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은 늘 모든 걸 마- 망쳐놓는단 말야!" 그는 엄마의 양팔 사이 틈새로 해리에게 심술궂게 씩 웃어 보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쩜 좋아, 큰일 났어요, 그들이 왔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두들리의 단짝 친구인 피어스 폴키스가 그의 엄마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피어스는 얼굴이 꼭 생쥐처럼 생긴 비쩍 마른 아이였다. 그는 보통 두들리가 아이들을 때리는 동안 그들의 팔을 등뒤로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 두들리는 금방 우는 척하던 걸 멈췄다

30분쯤 뒤, 해리는 이런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더

즐리네 차 뒤에 피어스와 두들리와 함께 앉아 생전 처음으로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다 그의 이모와 이모부가 달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출발 직전에, 버논 이모부는 해리를 한쪽 옆으로 데려갔다.

"너 이 녀석." 그가 커다란 보랏빛 얼굴을 해리의 얼굴 앞으로 바짝 갖다대며 말했다. "경고하는데, 무슨 짓이든 이상한 짓을 했다간, 크리스마스날까지 저 벽장 속에 처박아둘 테니 알아서 해라. "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요."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긴 지금까지 누구도 믿어준 적이 없었다.

문제는 종종 해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더즐리 부부에게 아무리 그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해리가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를 전혀 깎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페투니아 이모가 화가 나서 부엌 가위를 가져와서는 이마의 "곰찍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 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머리를 너무나 바싹 깎아 놓는 바람에 그는 거의 대머리가 되고 말았었다. 두들리는 해리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는 헐렁헐렁한 옷과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안경 때문에 이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를 이런 해괴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또 갈 것을 생각하느라 뜬눈으로 새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머리는 페투니아 이모가 가위로 잘라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해리는 자신도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란 건지 모르겠다고 애써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 일로 벽장 속에 일주일 간 갇혀 있어야 했다.

또 한번은, 페투니아 이모가 두들리의 지긋지긋한 낡은 스웨터(작은 털실 방울들이 달린 갈색 스웨터)를 그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옷을 그의 머리로부터 뒤집어씌워 입히려고 하면 할수록 옷이 점점 더 줄어들더니, 마침내 손가락 장갑 인형에나 맞을 정도로까지 작아져, 해리는 전혀 입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는 그 옷이 세탁을 잘못해 줄어드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므로 해리는 다행히 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그는 학교 급식실 지붕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곰찍한 곤란에 빠지기도 했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여느 때처럼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도망다니던 해리가 굴뚝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더즐리 부부는 교장 선생님의로부터 해리가 학교 건물들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매우 화를 내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저(그가 잠긴 벽장 문을 통해 버논 이모부에게 큰소리로 해명했던 것처럼) 학교 급식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뒤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뿐이었다. 해리는 바람이 그를 반쯤 날아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잘못되어갈 게 없었다. 두들리와 피어스가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학교나, 그의 벽장이나, 양배추 냄새가 물씬나는 피그 부인의 거실이 아닌 어딘가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만한 것은 참아낼 만했다.

버논 이모부는 운전하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걸 좋아했다. 직장 사람들, 해리, 협의회, 해리, 은행, 해리 등등이 그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들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들이 문제였다.

"... 미친 놈들처럼 요란스런 소리를 내고 다닌단 말야, 불량배들 같으니라구."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앞질러 가자 그가 이렇게 내뱉었다.

"전 오토바이 꿈을 땀어요" 해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말했다.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버논 이모부는 하마터면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핵 돌려 콧수염이 달린 커다란 근대 뿌리 같은 얼굴로 해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는 날지 않는다!"

두들리와 피어스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저도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건 그저 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차라리 말하지 말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만일 더즐리 부부가 해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꿈에서였건, 혹은 심지어 만화에서 본 것일지라도 그가 어떤 것이 실제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 날은 매우 화창한 토요일이었고 동물원은 많은 가족들로 붐볐다. 더즐리 부부는 입구에서 두들리와 피어스에게만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해리를 서둘러 들어가게 하려다가 미소를 짓고 있던 아이스크림 차의 아가씨가 해리에게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마지못해 그에게도 싸구려 레몬 사탕 하나를 사주었다. 해리는 금발이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두들리와 닮아 보이는 고릴라가 머리를 긁적이는 걸 바라보며 사탕을 빨아먹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아침을 보냈다. 하지만 점심 시간쯤이 되자 두들리와 피어스는 동물들에 싫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눈치챈 해리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그를 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즐리 가족과 약간 떨어져서 걸었다.

그들은 동물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두들리가 자신이 시킨 게 크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자. 버논 이모부가 그에게 또 다른 걸 사주었으므로 해리는 그가 처음에 시켰던 음식을 먹어야 했다.

나중이야 생각한 것이지만 해리는 그 모든 일이 끝까지 좋게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들은 파충류 전시관으로 갔다. 그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으며, 조명등이 달린 유리창들이 있었다. 그 유

리창 안쪽에는, 온갖 종류의 도마뱀과 뱀들이 느릿느릿 기어 다니거나 나무와 돌 위로 주르르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다. 두들리와 피어스는 독이 있는 커다란 코브라와 사람도 짓 뭉개버릴 정도로 굵은 비단뱀을 보러 가고 싶어했다. 그러나 두들리는 그곳에서 금방 가장 커다란 뱀을 찾아냈다. 그 뱀은 버논 이모부의 차를 두 번은 감아서 단번에 납작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컸다. 하지만 그 때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사실 그 뱀은 잠들어 있었다.

두들리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서서, 뿔리를 틀고 잠들어 있는 그 번쩍거리는 갈색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움직이게 해봐." 두들리가 아빠에게 징징대며 졸랐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해봐." 두들리가 졸라댔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쳤지만, 뱀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

"시시해" 두들리는 이렇게 투덜대더니 급히 저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 뱀이 지루해서 죽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 뱀에겐 하루종일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그를 휘방 놓으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 말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곳은,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그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페투니아 이모밖에 없는 벽장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심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집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으니까.

뱀이 갑자기 구슬 같은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눈이 해리의 키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뱀이 윙크를 했다.

해리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살피려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뱀을 보고 역시 윙크를 했다.

뱀은 고개를 버논 이모부와 두들리 쪽으로 뻗 돌린 뒤 눈을 천장으로 치켜 떴다. 그리고는 해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언제나 저런 녀석이 있단 말야.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해리는 창문을 통해 이렇게 중얼거리기는 했지만, 뱀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거나 한지 의심스러웠다. "성가실 거야" 그러자 뱀이 정말 그렇다는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해리가 물었다.

뱀이 꼬리로 유리창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쿡 찔렀다. 해리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보아 구렁이, 브라질!'

"그곳은 좋았어?"

보아 구렁이가 꼬리로 또 그 표지판을 쿡 찔렀으므로 해리는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 동물은 동물원에서 사육되었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넌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지?"

뱀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때, 해리 뒤에서 그들 둘 모두를 소스라치게 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두들

리! 더즐리 씨! 이리 와서 이 뱀이 하고 있는 짓 좀 보세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두들리가 뒤뚱거리며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넌 저리 비켜. " 두들리가 해리의 가슴팍을 퍽 치며 말했다.

놀라 있던 해리는 그만 콘크리트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다음 일은 어찌나 빨리 일어났던지 아무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던 피어스와 두들리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일어나 앉은 해리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막혔다. 그 보아 구렁이가 있던 곳의 유리창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커다란 뱀은 얼른 꼬리를 풀고 마룻바닥으로 기어 나왔다 파충류관 여기 저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뱀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지나갈 때, 해리는 뱀이 쉬쉬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브라질이여, 내가 간다... 고마워, 친구. "

파충류관 사육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리창은요?" 그는 계속 말했다. "유리창은 어디로 간 거죠?"

동물원 관리자는 페투니아 이모에게 직접 진한 홍차를 끓여 대접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 피어스와 두들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다. 해리가 본 바로는, 그 뱀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발뒤꿈치를 장난스럽게 덥석 문 것밖에 없었는데, 버논 이모부의 차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뱀이 그의 다리를 거의 물어뜯을 뻔했었다고 말했으며, 피어스는 뱀이 그를 짓눌러 죽이려 했었다고 내세웠다. 피어스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가 그 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 그래, 해리?"

버논 이모부는 피어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에게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당장 벽장에... 가서... 처박혀 있어... 밥은 없다.' 라고 말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페투니아 이모는 얼른 달려가 그에게 커다란 브랜디를 갖다주었다.

한참동안이나 어두운 벽장 속에 누워 있게 된 해리는 시계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혹은 더즐리 부부는 잠이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는 감히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먹을 걸 찾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아기였을 때부터 죽, 거의 10년 동안, 그 비참한 10년 동안 더즐리 부부와 함께 살았었다. 아니 사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그 차 안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때로, 벽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마가 타들어 가는 듯하게 아파오면서 눈부신 초록 불빛과 함께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었다 그는 이것이 자동차 사고 때문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초록 불빛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부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들에 대해 한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고, 물론 그가 물어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 집에는 그들의 사진도 한 장 없었다.

더 어렸을 때 해리는 전혀 모르는 어떤 친척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꾸고 또 꾸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줄리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로 그는 거리의 낯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아니 어쩌면 그러길 바랐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은 아주 이상했다. 한번은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와 함께 쇼핑을 갔었는데 뾰족한 보랏빛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가 그에게 인사를 했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해리에게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묻고는 아무 것도 사지 않고 서둘러 그 가게를 나와버렸다.

한번은 버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초록색 옷을 입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그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었다. 또 어떤 날에는 매우 긴 보랏빛 롱코트를 입은 대머리 남자가 길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뒤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리기도 했었다. 이 사람들 모두 가장 이상했던 점은 해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낡고 헐렁한 옷에 깨진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한 해리 포터를 몹시도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없었고, 누구도 두들리 패거리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제3장 이상한 편지들

"브라질 보아 구렁이의 탈출 사건으로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별을 받았다. 그가 벽장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이 동안에 두들리는 벌써 생일 선물로 받은 새 비디오 카메라를 망가뜨렸고, 원격 조종 비행기는 박살냈으며, 경주용 자전거를 끌고 나가자마자 목발을 짚고 프리벳가를 건너던 피그 할머니를 치어 넘어뜨렸다.

해리는 학기가 끝난 게 기쁘기는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집에 놀러오는 두들리 패거리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피어스와 데니스와 말콤 그리고 고든 모두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돌머리였지만, 두들리가 대장이 된 것은 그가 그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고 가장 멍청했기 때문이었다. 그 패거리는 모두 두들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해리 굴려주기'에 참여하는 걸 무엇보다도 좋아했다.

해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새 학기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9월이 오면 그는 중학교에 갈 것이고, 난생 처음으로 두들리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두들리는 버는 이모

부가 다녔던 사립학교인 스멜팅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었다. 피어스 폴키스도 그 학교에 갈 것이었다. 그러나 해리는 그 지역 공립학교인 스톤월 중학교에 갈 것이다. 두들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스톤월에서는 입학 첫날에 사람들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는데." 두들리가 해리에게 말했다. "이층에 가서 연습해볼래?"

"싫어." 해리가 말했다. "그 가엾은 변기는 아마 네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끔찍해서 토할지도 몰라." 그리고는 해리는 두들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벙벙해하고 있는 사이 얼른 달아났다.

7월 어느 날, 페투니아 이모는 해리를 피그 할머니 집에 맡기고 두들리에게 스멜팅스 교복을 사주기 위해 런던에 갔다. 피그 할머니는 예전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알고 보니 피그 할머니는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들 가운데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예전만큼 고양이들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해리에게 텔레비전도 보게 했고, 꼭 몇 년은 묵은 것 같은 이상한 맛이 나는 초콜릿 케이크도 조금 주었다.

그날 저녁, 두들리는 거실에서 새로 산 교복을 입고 가족들 앞에서 뽐내며 걸어다녔다. 스멜팅스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은 고동색 연미복에 오렌지색 반바지를 입고 맥고 모자라고 불리는 납작한 밀짚 모자를 썼다. 그 애들은 또 선생님들이 보지 않을 때 서로 때리려고 마디가 있는 막대기를 갖고 다녔다. 이것이 훗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훈련쯤으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새 반바지를 입고 있는 두들리의 모습을 보자, 버논 이모부는 쉼 목소리로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자신의 귀여운 아들 두들리가 이렇게 멋지고 어른스러워 보일 줄은 몰랐다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해리는 그러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웃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하마터면 갈비배가 두 개쯤 부러질 뻔했다.

다음날 아침 해리가 아침을 먹으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싱크대의 커다란 금속 물통에서 나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 물통 안에는 더러운 냄마조각들이 하나 가득 회색빛 물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해리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물었다. 그녀의 입술은 그가 감히 뭔가를 물었을 때 늘 그렇듯이 짙다물어져 있었다.

"네가 입을 새 교복이다." 이모가 말했다.

해리는 그 물통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 해리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에 폭 담가놓으신 거예요?"

"멍청하긴,"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널 주려고

두들리가 입던 옷들을 염색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나면 다른 애들의 옷하고 똑같이 보일 게다. "

해리는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스톤월 중학교에서의 첫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마 늙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일 것이다. 두들리와 버논 이모부가 들어오더니, 해리의 새 교복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지 모두 코를 실룩거렸다. 버논 이모부는 평상시처럼 신문을 펴들었고 두들리는 이제는 어디나 갖고 다니는 스멜팅 막대로 식탁을 탕 쳤다.

그때 우편함 뚜껑이 딸각하는 소리와 문 앞 발판에 편지들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편지 가져오너라, 두들리." 버논 이모부가 신문 너머로 말했다.

"해리한테 시켜."

"편지 가져오너라, 해리."

"두들리더러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 녀석을 스멜팅 막대로 한방 먹여라, 두들리."

해리는 날쌔게 스멜팅 막대를 피해 편지를 가지러 갔다. 문 앞 발판에는 편지 세 통이 놓여 있었다. 화이트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논 이모부의 누이, 마지에게서 온 우편 엽서와, 청구서처럼 보이는 갈색 봉투 하나, 그리고 해리 앞으로 온 편지도 한 통 있었다.

해리는 그 편지를 집어 들고,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슴이 마치 거대한 고무줄처럼 뽁뽁거렸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누굴까? 그에게는 친구도, 어떤 다른 친척도 없었다. 또 그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으므로, 책을 반환하라는 성가신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편지는 수신자의 주소가 어찌나 분명했던지 도저히 실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서리  
리틀 위닝  
프리벳가 4번지  
계단 및 벽장  
해리 포터

누르스름한 양피지로 만들어진 그 봉투는 두툼하고 무거웠으며, 주소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었다. 우표는 붙어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은 해리는 대문자 퍼가 사자와 독수리와 오소리과 뱀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의 보랏빛 밀랍 봉인을 보았다.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부엌에서 버논 이모부가 소리쳤다. "편지 폭탄이라도 있을까봐 살피고 있는 거냐?" 그는 자신이 한 농담에 만족해서 킬킬대며 웃었다.

해리는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뚫어

지게 보았다. 그는 버논 이모부에게 청구서와 우편 엽서를 건네주고는 앉아서 천천히 그 노란 봉투를 뜯기 시작했다.

버논 이모부는 청구서를 북 찢어 열었고, 더러운 콧물을 쪽들이켜더니, 우편 엽서를 읽었다.

"마지가 아프다는군."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말했다. "이상의 조개를 먹었대..."

"아빠!" 갑자기 두들리가 소리쳤다 "아빠, 해리가 뭘 갖고 있어!"

해리가 봉투만큼이나 무거운 양피지에 쓰여진 편지를 막 펼치려는 순간, 버논 이모부가 그의 손에서 편지를 뺏아냈다.

"그건 제 거예요!" 해리가 편지를 다시 잡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네 녀석에게 편지 쓸 사람이 어디 있냐?" 버논 이모부가 한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쳐 흘끗 보면서 비웃듯이 말했다. 다음 순간, 빨갛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굴이 오래된 포리지(오트밀에 우유 또는 물을 넣어 만든 죽: 옹기이)처럼 희끄무레해졌다.

"페-페-페투니아!" 그가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두들리가 그 편지를 잡고 읽으려고 했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의 손이 닿지 못하게 그것을 높이 치켜올렸다. 페투니아 이모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것을 움켜잡고 첫줄을 읽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버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버논!"

그들은 해리와 두들리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듯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두들리가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탁 때렸다.

"나도 좀 보여줘, " 두들리가 큰소리로 말했다.

"제 편지 주세요." 해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건 제 편지라고요"

"너희 둘 다 나가. " 버논 이모부가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으며 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 편지 주세요!" 해리가 소리쳤다.

"나도 보여줘 !" 두들리가 졸라댔다.

"나가라니까!" 버논 이모부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해리와 두들리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에 내동댕이치고는 부엌문을 쾅 닫아버렸다. 해리와 두들리는 서로 열쇠 구멍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두들리가 이겼고 해리는 안경을 한쪽 귀에 늘어뜨린 채, 바닥에 바짝 엎드려 문 틈새로 엿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버논." 페투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 주소 좀 보세요. 그들이 그 애가 어디서 자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우리집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감시, 엿탐, 그럴지도 모르지." 버논 이모부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버논? 답장을 써야 할까요? 감시 받는

건 정말 싫다고 말해야..... "

해리는 버논 이모부의 빛나는 까만 구두가 부엌을 천천히 왔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냐."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들이 답장을 받지 못한다면... . 그래, 그게 좋겠어... 모른 체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편지를 집안에 들여놓을 순 없어, 페투니아! 우리가 그 앨 받아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위험한 생각 같은 것은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날 저녁 버논 이모부는 퇴근한 뒤 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가 해리의 벽장을 찾아온 것이다.

"제 편지는 어디에 있어요?" 버논 이모부가 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해리가 물었다. "제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아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것뿐이다." 버논 이모부가 짝막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태워버렸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제 벽장으로 온 거라구요."

"조용히 해!" 버논 이모부가 큰소리로 말하자, 천장에서 거미 두 마리가 툭 떨어졌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아주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 그래, 해리야, 이 벽장에 대해선 말이다. 네 이모와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네가 이곳에서 지내기에는 점점 더 몸집이 커지고 있어서... 우린 네가 두들리의 이층 침실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왜요?" 해리가 물었다.

"아무 것도 묻지 마라" 이모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 물건들을 당장 이층으로 가져가라. "

더즐리네 집에는 방이 네 개 있었다. 하나는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의 방이었고, 하나는 손님(대개 버논의 누이인 마지) 방이었으며, 하나는 두들리의 침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들리가 모든 장난감과 자기 침실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두는 방이었다. 그러나 짐이 어찌나 없었던지 단 한번 왔다가자 해리의 벽장 물건들이 다 옮겨졌다.

해리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부서져 있었다. 한 달 전에 산 비디오 카메라는 두들리가 언젠가 옆집 개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움직이는 작은 탱크 위에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두들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발로 짹짹 밟아버렸던 첫 번째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었다. 또 한때는 두들리가 학교에서 진짜 공기총과 맞바꿔온 앵무새가 살았던 커다란 새장이, 그가 그 위에 주저앉는 바람에 모서리들이 완전히 일그러진 채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 다른 선반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던 듯 먼지가 뽕얇게 쌓여 있었다.



아래층에서 두들리가 엉엉 울며 그의 엄마에게 마구 고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 그 애가 저기 있는 거 싫어... 그 방은 내거야... 나가라고 해..."

해리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어제는 벽장이 아닌 이 위에 있게만 된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편지가 없이 이곳에 있느니 차라리 편지를 가지고 벽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는 평소와 달리 모두가 말이 없었다. 두들리는 소리도 질러보고,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를 세게 때리기도 하고, 꺾병도 부리고, 엄마를 발로 차고, 자신의 거북이를 온실 지붕에 내동댕이쳐 보기도 했지만, 방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어제 이맘때를 생각하며 거실에서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는 계속해서 서로를 험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우편물이 도착하자, 버논 이모부는 애써 해리에게 친절하게 보이려 하면서, 두들리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했다. 두들리는 거실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스멜팅 막대로 물건들을 툭툭 쳤다. 그런데 두들리가 소리쳤다. "또 하나가 왔어요! "해리 포터, 가장 작은 방, 프리벳가 4번지로요."

버논 이모부는 숨이 끊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고, 해리도 뒤를 바짝 쫓아갔다.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에게서 편지를 빼앗기 위해 마룻바닥에서 씨름을 벌여야만 했다. 사실 그 몸싸움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 해리가 버논 이모부의 목 주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스멜팅 막대로 엄청 얻어맞는 몇 분간의 혼란스런 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편지를 손에 움켜쥔 채 똑바로 일어서서 숨을 헐떡였다.

"네 벽장으로, 아니 네 방으로 가라." 그가 씨근거리며 해리에게 말했다. "두들리, 너도 들어가라, 어서."

해리는 방에서 왔다갔다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가 벽장에서 이사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편지를 다시 보낼 것이라는 뜻일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리라.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자명종이 울렸다. 해리는 자명종을 얼른 끄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더즐리 가족이 깽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등 하나도 켜지 않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그는 프리벳가 모퉁이에서 우편 배달부를 기다렸다가 4번지로 오는 편지들을 먼저 받을 생각이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의 가슴이 쿵쿵쿵 두 방망이질을 했다.

"아으으!"

해리는 깜짝 놀랐다. 현관문 앞 발판에서 뭔가 크고 물컹한 것을 밟았던 것이다. 뭔가 살아있는 것을!

이층의 전등이 딸각하고 켜졌고 해리는 그 커다랗고, 물컹한 것이 이모부의 얼굴이라는 걸 알았다. 해리가 그런 편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버논 이모부가 현관문 앞에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해리에게 30여분간 고향을 쳐댄 뒤 그에게 차 한잔 타오라고 시켰다.

해리는 불쌍하게 발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걸어갔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우편물이 이미 도착해 버논 이모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주소와 성명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편지 세 통을 볼 수 있었다.

"전..." 해리가 말을 꺼냈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의 눈앞에서 그 편지들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버논 이모부는 그날 직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우편함에 못질을 했다.

"이것 좀 봐." 그는 입에 못을 하나 가득 문 채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설명했다. "그들이 편지를 배달할 수 없으면 포기하겠지."

"난 이 방법이 먹혀들 것 같지 않아요, 버논."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묘하게 움직인단 말야, 페투니아.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달라."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가 막 그에게 가져다 준 과일 케이크 조각으로 못을 때려 박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금요일에는 해리에게 열두 통 정도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들은 우편함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지거나 문 옆 틈으로 넣어졌고, 몇 개는 심지어 아래층 욕실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억지로 쑥셔 넣어지기까지 했다.

버논 이모부는 다시 집에 머물렀다. 그는 그 편지들을 모두 태운 뒤, 망치와 못들을 가져와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앞문과 뒷문 주위의 틈새들을 널빤지로 다 막아버렸다. 그는 일하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톨립 꽃 사이를"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움찔움찔 했다.

토요일에는,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우유 배달부가 거실 창문으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건네준 스물 네 개의 달걀 속에 해리 앞으로 온 스물 네 통의 편지가 돌돌 말린 채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몹시 화를 내며 우체국과 우유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을 찾고 있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는 편지들을 믹서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너 같은 녀석에게 이렇게 애타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두들리가 놀라서 해리에게 물었다.

일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은 버논 이모부는 피로에 지치고 다소 아파 보이기까지 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없지. "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마멀레이드 잼을 빵에 바르지 않고 신문에 퍼 발랐다. "오늘은 그 빌어먹을 편지들이 오지 않겠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무언가가 부엌 굴뚝으로 핑하고 내려오더니 그의 뒤통수를 세게 쳤다. 그리고는 벽난로에서 마치 총알들처럼 3, 40통의 편지가 쏟아져 내렸다. 더즐리네 가족이 모두 머리를 책 숙이는 순간, 해리는 편지를 하나 잡으려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나가! 나가라니까!"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손목을 잡아 그를 거실로 던져버렸다.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가자, 버논 이모부가 문을 황 닫았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들이 여전히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벽과 마루로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 버논 이모부가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는 한편 코밑 수염을 한 움큼 뽑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5분 내로 떠날 준비를 해. 여행을 떠날 테니까. 옷가지만 조금 싸. 잔소리 말고!"

수염이 반쯤 없어져 버린 그의 모습이 어찌나 험악스럽게 보였던지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10분 뒤 그들은 널빤지가 쳐진 문들을 비틀고 나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냈다.

두들리는 뒷좌석에서 코를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두들리가 가방에 텔레비전과, YCR과 컴퓨터를 싸자 그것들을 모두 갖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머리를 한대 쥐어박았기 때문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페투니아 이모조차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가끔씩 차를 급회전시켜 한참동안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곤 했다.

"그들을 따돌려야 해... 그들을 따돌려야 해..." 그는 급회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달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두들리는 울부짖으며 악을 썼다. 그에게 그렇게 힘든 날은 난생 처음이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팠으며,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섯 개나 놓쳤고, 외계인을 신나게 날려버리는 컴퓨터 게임도 한번 하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마침내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음산해 보이는 여관 바깥에 이르러서야 차를 멈췄다. 두들리와 해리는 2인용 침대에서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시트를 함께 덮고 잤다. 두들리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들었지만 해리는 자지 않고 창턱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눅눅한 콘플레이크와 차가운 깡통 토마토를 얹은 토스트로 아침을 때웠다. 그들이 막 식사를 마쳤을 때

여관 주인이 그들의 식탁 쪽으로 왔다.

"실례하지만, 여기 혹시 H. 포터 씨가 계신가요? 프런트 데스크에 이런 게 수백 장이나 있어서 말이에요\_"

그녀는 그들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주소를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치켜올렸다.

코크워스  
레일뷰 여관  
17호  
H. 포터

해리가 그 편지를 잡자 버는 이모부가 그의 손을 탁 쳤다.  
그 여자가 빨리 쳐다보았다.

"그것들은 내가 맡겠소" 버논 이모부가 얼른 일어서서 그녀를 따라 프런트 데스크로 가며 말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보?" 몇 시간 뒤 페투니아 이모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버는 이모부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차를 몰고 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는 주위를 휘둘러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뒤, 다시 차를 타고 나왔다. 경작된 밭 한가운데에서도, 현수교 중간쯤에서도, 다단계 주차장 꼭대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빠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냐?" 그날 오후 늦게 두들리가 멍청하게도 페투니아 이모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버는 이모부가 해변가에 차를 세우더니 그들을 모두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빗방울들이 차 지붕을 때렸다. 두들리가 코를 훌쩍이며 울었다.

"오늘 월요일이지." 두들리가 그의 엄마에게 말했다. "오늘 밤엔 '위대한 흠베르토'를 한단 말야. 텔레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 월요일. 이 말을 듣자 해리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만일 오늘이 월요일이라면-두들리는 무슨 요일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믿을 만했다-

그러면 화요일인 내일은 해리의 열한 번째 생일이었다. 물론, 그의 생일들은 재미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작년에는 더즐리네 가족이 그에게 선물로 코트 옷걸이 하나와 버는 이모부가 신던 낡은 양말을 주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생일이란 특별한 날이었다.

버는 이모부가 돌아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또 길다랗고, 알팍한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무엇을 샀느냐는 페투니아 이모의 물음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가 말했다. "자, 모두 나와!" 차 밖은 매우 추웠다. 버논 이모부는 손가락으로 바다 저 멀리 있는 커다란 바위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바위 꼭대기에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오두막 하나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곳엔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버논 이모부가 기분이 매우 좋은 듯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배를 빌려주시기로 했다!"

이빨이 다 빠진 노인 하나가 다소 심술궂게 씩 웃으며 느릿느릿 그들에게로 걸어오더니 저 아래 잿빛 바다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낡은 배 한 척을 가리켰다.

"내가 이미 약간의 비상 식량을 준비해 뒀으니 모두 출발하자!"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배를 타자 몹시 추웠다. 차가운 물살과 빗물이 목줄기를 타고 슬금슬금 흘러내렸고, 냉랭한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려댔다. 한 시간쯤 뒤 그 바위에 다다르자, 버논 이모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앞장서서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으로 나아갔다.

그 안은 끔찍했다. 그 오두막 안에서는 해초 냄새가 심하게 나는 데다. 나무 벽 틈새로는 바람이 쐩쐩 불고 있었고 벽난로는 축축하고 텅 비어 있었다. 방도 하나뿐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준비했다는 비상 식량은 알고 보니 과자 네 봉지와 바나나 네 개가 다였다. 그는 과자 봉지들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그저 연기를 내며 오그라들 뿐이었다.

"자, 이제 저 편지들 몇 통을 이용해 볼까?" 그가 기분 좋게 말했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는 누구도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이런 폭풍 속을 뚫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해리도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도, 그런 생각에 미치자 기운이 빠졌다.

밤이 오자, 예보된 폭풍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댔다. 높은 파도에서 부서진 물보라가 오두막 벽으로 튀겼고 성난 바람은 더러운 창문들을 뒤흔들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방에서 곰팡내 나는 담요 몇 장을 찾아내 두들리가 잘 수 있도록 좀먹은 소파에 잠자리를 만들어주었다. 그녀와 버논 이모부가 방의 을 통불통한 침대로 들어가버리자, 해리는 혼자 남아 마루에서 그나마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 가장 얇고, 가장 낡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려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은 점점 더 사나워졌다. 해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추위로 오들오들 떨면서 좀 편안해지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두들리의 코고는 소리는 한밤중에 시작된 낮게 우르르거리는 천둥소리에 묻혀버렸다. 소파 가장자리로 축 늘어진 살쥔 두들리의 손목에 채워진 야광 시계는 10분만 있으면 해리가 열한 살이 된다는 걸 말해주었다.

해리는 누워서 자신의 생일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더즐리네 가족이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5분이 남았다. 해리는 바깥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랬다면 어쩌면 더 따뜻할지도 몰랐다. 이제 4분. 어쩌면 프리벳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편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쯤은 훔칠 수 있을지도 몰랐다.

3분. 파도가 저렇게 세게 바위를 때리는 걸까? 그런데 (2분) 저 이상하게 우두둑우두둑 부서지는 소리는 뭐지? 바위가 부서져 바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

이제 1분 뒤면 그는 열한 살이 될 것이다. 30초... 20... 10... 9. 두들리를 깨워 약을 올려 주는 게 어떨까. 3... 2... 1...

쿵.

그리고는 그 오두막이 통째로 흔들렸다. 해리는 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곳곳이 일어나 앉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노크를 하고 있었다.

#### 제4장 사냥터지기 해그리드

쿵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갑자기 두들리가 눈을 떴다.

"어디선가 대포 소리가 났는데?" 잠에서 덜 깬 채로 그가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자 버논 이모부가 헬레벌떡 방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이제야 그가 가져온 길다랗고, 얇은 꾸러미 속에 들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구야?" 그가 큰소리로 물었다. "경고하는데, 우린 총을 갖고 있다!"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쿵!

문을 어찌나 센 힘으로 쳤던지 경첩이 툭 빠지면서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문짝이 마룻바닥으로 넘어져 버렸다. 문간에는 거인이 하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텅수룩하고 긴 갈기같은 머리털과 제멋대로 헝클어진 수염으로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머리털 밑에서 마치 딱정벌레처럼 빛나고 있는 눈만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거인은 천장에 닿을락 말락한 머리를 숙이고 오두막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문짝을 집어들더니 아주 쉽게 문틀에 다시 끼웠다. 바깥의 폭풍 소리가 다소 잦아 들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우리 차 한잔 끓여 마시는 게 어떨겠수? 수월한 여행이 아니었거든..."

그는 두들리가 겁에 질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소파로 성큼 성큼 다가갔다.

"저리 가라, 똥보야." 거인이 말했다.

두들리는 양양 울며 달아나더니 버논 이모부 뒤에서 무서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그의 엄마 뒤로 가 숨었다.

"해리가 여기 있군!" 거인이 말했다.

무시무시하고, 험상궂게 생긴 야만인 같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본 해리는 그 톱 불거진 눈이 미소로 주름져지는 걸 보았다.

"지난번에 보았을 땐, 갓난아이였는데." 거인이 말했다 "아빠를 많이 닮긴 했지만, 눈은 엄마와 똑같구나."

버논 이모부가 귀에 거슬리는 우스꽝스런 소리를 냈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선생!"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을 하고 있는 거요!"

"입 닥치시오, 더즐리, 몸쓸 사람 같으니라구." 거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그는 소파 뒤로 가서 버논 이모부의 손에서 총을 뺏아 빼더니 마치 고무줄 다루듯 손쉽게 구부려 매듭을 지은 다음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버논 이모부는 또 한번 생쥐가 교미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쨌든, 해리." 그 거인이 더즐리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여기 선물을 가져왔다. 좀 짜부라지기는 했지만, 맛은 괜찮을 거다. "

거인은 까만 코트 주머니에서 약간 짓눌린 상자 하나를 꺼냈다. 해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록색으로 '해피 버스데이 해리'라고 쓰여진 질척질척한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 있었다.

해리는 그 거인을 올려다보았다.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다. 그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세요?"

거인이 싱글싱글 웃었다.

"그래, 내 소개를 하지 않았군. 루베우스 해그리드야. 호그와트의 사냥터지گی지. "

그는 엄청나게 큰 손을 쑥 내밀더니 해리의 팔을 잡고 악수를 했다.

"그럼 차를 마셔볼까?" 그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뭐 좀 독한 술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

거인은 오그라든 과자 봉지들이 흩어져 있는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쪽을 쳐다보더니 콧김을 훅 내뿜었다. 그는 벽난로로 허리를 굽혔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건진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후 그가 돌아오자 그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축축한 오두막은 금방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해리는 마친 더운 물이 담긴 욕조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것처럼 따듯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오는 것을 느꼈다.

거인은 그의 무게 때문에 푹 꺼진 소파로 타시 돌아가 앉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구리 주전자며, 짜부라진 소시지며, 꼬치, 찻주전자, 이 빠진 머그잔 몇 개 그리고 차를 끓이기 전에 마실 호박색 액체까지 갖가지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두막에는 곧 소시지의 지글지글대는 소리와 냄새로 진동했다. 그 거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만, 그가 꼬치에서 통통하고,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살짝 탄 첫 번째 소시지 여섯 개를 빼내자, 두들리가 입맛을

다시며 먹고 싶어 안달을 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사람이 주는 것에 손대지 마라, 두들리."

거인이 험악하게 킁킁거렸다.

"당신의 똥보 아들에게는 더 이상 기름기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더즐리. "

그 소시지들은 해리에게 건네졌고, 해리는 너무 배가 고파 몹시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인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 설명을 하려 씨지 않는 것 같았으므로, 마침내 해리가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요, 전 아직도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거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손등으로 입을 훔쳤다.

"해그리드라고 부르렴." 그가 말했다. "모두들 그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말했지만, 난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란다. 너도 물론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이제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어, 아니. " 해리가 우물우물했다.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죄송해요. " 해리가 얼른 말했다.

"죄송하다구?" 해그리드가 저만치 뒷걸음질을 친 더즐리 가족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뻗히 쳐다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죄송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란다! 난 네가 편지들을 받지 못하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호그와트에 대해서조차 몰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 네 부모님이 그 모든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었니?"

"무얼요?" 해리가 물었다.

"무얼요라니?" 해그리드가 몹시 화가 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 잠깐만 기다려라!"

그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화가 날 대로 난 것 같았다. 더즐리네 가족은 잔뜩 겁에 질려서 벽 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었다.

"말해 보시오." 그가 더즐리 가족에게 으르렁거렸다. "이 아이가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요?"

해리는 그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학교에도 다녔고, 성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해리가 말했다. "전 수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손만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은 우리 세계에 대해서 말이다. 너의 세계, 나의 세계. 너의 부모님의 세계."

"무슨 세계인데요?"

해그리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더즐리!" 그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논 이모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시렁구시렁거리며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해그리드가 난폭하게 해리를 쳐다보았다.

"넌 네 엄마와 아빠에 대해 알아야만 해." 그가 말했다. "내 말은, 네 부모님이 유명하시다는 말이야. 너도 유명하고."

"뭐라고요? 제, 제 엄마와 아빠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어떻게... 해그리드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네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버논 이모부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

"그만!" 그가 명령했다. "이제 그만 하시오, 선생!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소!"

버논 더즐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더라도 지금 해그리드의 성난 눈길 앞에서는 아마 움찔했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말할 때 음절 하나 하나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단 말ियो? 덤블도어가 아이와 함께 남긴 편지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यो? 나도 거기에 있었소! 난 덤블도어가 그 편지를 놓는 걸 똑똑히 보았던 말ियो, 더즐리! 그런데 당신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저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단 말ियो?"

"제게 뭘 보여주지 않았단 거죠?" 해리가 몹시 궁금하다는 물었다.

"그만!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안돼!" 버논 이모부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페투니아 이모는 겁이 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신들은 저리 꺼져."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 넌 마법사야"

오두막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씹씹 불어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제가 뭐라구요?" 해리는 놀라서 숨이 막혔다.

"마법사라니까." 해그리드가 그의 무거운 체중 때문에 더 폭주저앉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마법사지, 내 말은 약간 훈련만 받는다면 말야. 한때는 너도 훈련받은 적이 있었어. 네 엄마와 아빠가 그러신데, 너야 어린하겠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

해리는 마침내 손을 뻗어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H. 포터, 마루, 바위 위의 오두막, 바다라고 주소가 적힌 누르스름한 봉투를 잡았다. 그는 편지를 빼내어 읽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

(멀린(주: 아서왕 이야기에 나오는 요술쟁이 노인이며 예언자-웁킨이) 서열, 1급, 위대한 마법사, 최고 거물 국제 마법사 연합회 회장)

친애하는 포터 씨에게.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필요한 모든 책과 비품의 목록을 동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는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7월 31일까지 당신의 부엉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감

해리의 머리 속에서는 온갖 물음들이 두서없이 떠올랐지만 그는 어느 것부터 물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그는 더듬더듬 물었다. "그들이 제 부영이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이제야 생각나네. " 해그리드가 짐마차를 끄는 말도 때려눕힐 정도로 센 힘으로 이마를 탁 치더니 코트 속의 또 다른 주머니에서 조금 성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살아있는 부영이 한 마리와 길다란 깃펜과 돌돌 말린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혀를 질근질근 깨물며 짧은 편지를 휘갈겨 썼다

친애하는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일 그를 데리고 가서 물품들을 사겠습니다.  
날씨가 험악하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그리드

해그리드는 그 편지를 둥글게 말아 부영이에게 주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 편지를 부리로 꼭 문 부영이를 폭풍 속으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치 이런 일이 그저 전화에 대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보통이라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해리는 자신이 입을 헤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른 다물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해그리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논 이모부가 여전히 잿빛이 된 얼굴로 매우 화난 표정을 지으며 난로가로 걸어갔다.

"그 애는 가지 않을 거요. " 버논 이모부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해그리드가 툭툭거렸다.

"나도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머글이 저 아이를 막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소." 그가 말했다.

"뭐라구요?" 해리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머글 말이구나."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건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란다. 그리고 내가 본 머글들 중에서 가장 못된 가족 속에서 네가 자랐다는 게 너의 불행이었지."

"그 애를 받아들였을 때 우린 저 터무니없는 짓을 중단시켜야겠다고 맹세했소."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그 애에게서 그 걸 없애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말이오! 마법사라니, 기가 차서 원!"

"아셨단 말이에요?" 해리가 물었다. "제가 마법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페투니아 이모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고 말고! 물론 알고 있었지! 내 빌어먹을 여동생이 마법사인데, 네가 아닐 턱이 있겠니? 맙소사, 네 엄마도 꼭 저런 편지를 받고 저 학꾼가 뭔가 하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주머니에 개구리 알을 잔뜩 넣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는, 찻잔들을 쥐로 변하게 했었지. 그녀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미치광이였지! 그러나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끔찍하게도 이것도 릴리, 저것도 릴리셨지. 그분들은 가족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계속 고함을 쳐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모든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뒤 네 엄마는 학교에서 포터를 만나 함께 떠났고 결혼을 해서 너를 낳았지. 물론 난 너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 똑같이 이상하고, 똑같이 비-비정상적이고. 그 뒤 네겐 안된 일이었지만,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를 떠맡게 된 거라구!"

해리의 낫빛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렸다뇨?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교통 사고라고!" 해그리드가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 뛰며 고함을 치자 더즐리 가족은 허둥지둥 한쪽 구석으로 달아났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가 어떻게 교통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거요? 그건 모욕이야! 수치라고! 우리 세계의 아이들이 누구나 해리 포터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

"그렇다면 왜죠? 무슨 일이 있었죠?" 해리가 재촉하며 물었다.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가 낮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가 내게 널 이해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난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전혀 못했단다. 오, 해리, 내가 네게 이런 설명을 해주어야 하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겠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호그와트에 갈 수 없으니까 말야. "

그는 더즐리 가족을 사나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네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잘 들어, 난 네게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어. 그건 굉장한 수수께끼거든. 대강 말하자면...

그는 앉아서 잠시 동안 벽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야, 어떤 사람이 있었어.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지만 말야-"

"누군데요?"

"글쎄, 가능하면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 모두가 그렇지. "

"왜요?"

"그냥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해리, 사람들은 여전히 겁먹고 있어. 제기랄, 이거 대개 어렵군. 이봐, 아주 못되게 변해버린 마법사가 있었어. 굉장히 나쁜 마법사였지. 아주 아주. 그 이름은..."

해그리드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쓸 수는 있으세요?" 해리가 넌지시 물었다.

"아니, 철자를 써서도 안돼. 좋아. 볼드모트야." 해그리드는 진저리를 쳤다.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게 하지 마. 어쨌든, 이, 이 마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20년쯤 전에, 추종자들을 찾아다

니기 시작했지. 그리고 찾기도 했어.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힘의 일부를 원했기 때문이지. 그래,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 암울한 시대였어, 해리.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이상한 마법사들과는 감히 친해지지도 못했어...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가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어. 물론,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죽였어. 끔찍하게 말야. 가장 안전한 곳 가운데 하나는 호그와트였어. 그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덤블도어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학교는 감히 점령하려고 하지 못했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말야.

네 엄마와 아빠는 내가 아는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젊었을 때는 호그와트 최고의 소년 소녀였지! 알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왜 그 전에 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야... 어쩌면 그들이 덤블도어와 너무 가까워서 어둠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지. -

어쩌면 그는 그들을 설득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10년 전 할로윈 데이(모든 성인의 날 전야. 10월 31일: 율킨이)에 너희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에 그가 나타났다는 거야. 넌 한 살밖에 되지 않았었어. 그는 너희 집으로 와서는. 그리고는-"

해그리드는 갑자기 아주 더란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 경적 소리만큼이나 큰소리로 코를 킁 풀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슬퍼서 말야. 네 엄마와 아빠처럼 좋은 분들은 없으셨어 그건 그렇고... 그사람이 네 엄마와 아빠를 죽였어. 그리고는, 이건 정말 수수께끼인데 말야. 그는 너도 죽이려고 했거든. 일을 깨끗이 처리하고 싶었겠지. 아니면 그 당시엔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았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네가 어떻게 이마에 그런 흉터를 갖게 된 건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니? 그건 평범한 흉터가 아냐. 그건 네게 강력하고, 사악한 저주가 미쳤을 때 생겨난 흉터야. 네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날려버렸던 그 저주 말야. 하지만 그게 네게는 듣지 않았어. 네가 유명해진 건 바로 그 때문이야, 해리. 그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살아남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너 말고는 하나도. 그는 맥키노 가족이나, 본 가족, 프레웨트 가족 등 당대의 최고 마법사들도 몇 명 죽였었어. 그런데 갓난아이에 불과했던 네가 살아남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해리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해그리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리는 눈부시게 밝은 초록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불빛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오만하고, 차갑고, 잔인한 웃음소리.

해그리드가 그를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덤블도어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폐허가 된 집에서 널 데려왔지. 그리고 널이 사람에게 데려온..."

"허튼 소리 작작해."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해리는 움찔했다. 그는 더즐리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확실히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해그리드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 잘 들어라." 그가 무서운 어투로 해리에게 말했다. "네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해리. 좀 두들겨 패주면 고쳐지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네 부모에 관해서는, 글썄,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볼 때 네 부모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한결 더 살기 좋을 거다. 그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몰려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화를 자초한 거야. 난 그들이 그렇게 비명횡사 하리란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 순간, 해그리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코트 속에서 낡을 따로 낡은 핑크빛 우산을 꺼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칼인 양 버논 이모부에게 들이대면서 말했다. "경고하는데, 더즐리. 한 마디만 더 했다간..."

수염 난 거인에게 우산 끝으로 찔릴 위험에 처하자, 버논 이모부의 용기는 다시 꺾이고 말았다. 그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입을 꼭 다물었다.

"좀 낮군. "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씩씩거리며 이번에는 거의 마룟바닥까지 폭 꺼져버린 소파에 다시 앉았다.

한편 해리에게는 아직도 묻고 싶은 게 수백 가지나 되었다.

"그런데 볼드... 아차, 제 말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질문 잘했어, 해리, 사라져버렸지. 없어진 거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 밤에 말야, 그건 널 더 유명해지게 했지.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야. 그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는데 왜 사라진 걸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돼.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거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저 밖에 살아있다고 하지. 때를 기다리면서 말야.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왔거든. 일부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어,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우리들 대부분은 그가 저 밖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 계속 버티 나가기엔 너무 약해졌다는 거지. 너의 무언가가 그를 끝장냈기 때문이야, 해리, 그날 밤 그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게 뭔지 몰라.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너의 어떤 능력이 그를 곤란에 빠뜨린 게 분명해, 맞아."

해그리드는 온정과 존경의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지만 해리는 기쁘거나 자랑스럽기보다는 굉장한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법사라고?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지금까지 두들리에게 맞고,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에게 시달리며 보냈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마법사라면, 그들이 그를 벽장 속에 가두려고 할 때마다 왜 사마귀 투성이의 두꺼비들로 변해버리게 하지 않았겠는가? 만일 그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와 싸워 이겼다면, 두들리가 어떻게 항상 그를 마치 축구공처럼 발로 찰 수 있었을까?

"해그리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엔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마법사라뇨, 전 제가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놀람게도, 해그리드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마법사가 아니라고? 네가 겁에 질렸거나 화가 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니?"

해리는 벽난로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가 화났을 때는 언제나 이모와 이모부를 당황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두들리의 패거리에게 쫓길 때는 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었고... 저 우스꽝스런 대머리를 하고 학교에 갈 것을 걱정했을 때, 그의 머리털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아주 최근에 두들리가 그를 때렸을 때는, 그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멋지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가? 또 보아 구렁이를 부추겨 두들리를 공격했던 일은?

해리가 미소를 머금고 해그리드를 다시 바라보자, 해그리드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니?"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리 포터, 마법사가 아니라고? 기다려 봐, 넌 곧 호그와트에서 유명해질 테니까."

그러나 버논 이모부는 절대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애를 거기에 보내지 않겠어." 그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그 애는 스톤월 중학교에 갈 거고 그걸 고맙게 여겨야 해. 저 편지들을 보니 그 애에게 철자 책이며 요술 지팡이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필요하더군-"

"해리가 가겠다면,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머글도 막을 수가 없을 거요." 해그리드가 으르렁댔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의 아들이 호그와트에 가는 걸 막겠다구! 미친 자식. 해리의 이름은 태어난 이후 죽 알려져 왔었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법 학교에 가는 거요. 그곳에서 7년을 보내고 나면 저 애는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거요. 해리는 그 변화를 위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호그와트의 교장 선생님이신 알버스 덤블도어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될 거요-"

"난 그 애에게 마술이나 가르치기 위해 그 이상한 늙은이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겠소!" 버논 이모부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만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말았다. 해그리드가 우산을 잡더니 그것을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절대로-"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 앞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를- 모욕하지 마!"

그는 공중에서 휘두르던 우산을 두들리에게 들이댔다. 보라색 불빛이 번쩍 하고, 폭죽 소리가 나며, 깃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 순간 두들리가 양손으로 살찐 엉덩이를 감싸질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로 등을 돌렸을 때, 해리는 또르르 말린 돼지 꼬리가 그의 바지에 난 구멍 밖으로 삐죽이 나와 있는 걸 보았다.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를 방으로 잡아 끈 뒤, 해그리드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번 더 바라보고는 문을 꽁 닫았다.

해그리드는 우산을 내려다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후회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마법이 잘 듣지 않았어. 그 녀석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너무나 돼지 같아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었던 것 같아."

그가 짙은 눈썹 밑으로 해리를 슬쩍 보았다.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고맙겠다." 그가 말했다. "난, 어, 마법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엄격히 말해서 말야. 난 너를 찾아내 네게 편지들을 전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로 되어 있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내가 딱 알맞기 때문이라는 게 그 한 가지 이유지-"

"왜 마법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해리가 물었다.

"어, 뭐랄까. 나도 호그와트에 있긴 하지만 난, 어, 솔직히 말하면 쫓겨났어. 내가 3학년때. 그들이 내 요술지팡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 하지만 덤블도어가 나를 사냥터지기로 머물게 하셨어. 덤블도어는 훌륭하신 분이야."

"왜 쫓겨나신 건데요?"

"늦어지고 있다. 우리 내일 할 일이 많아." 해그리드가 소리 높여 말했다. "시내로 가서 네 책들과 뭐 그런 것들을 사야 해."

그는 두꺼운 까만 코트를 벗어 해리에게 주었다.

"이걸 덮고 자도록 해." 그가 말했다. "코트가 조금 꿈틀거리려도 신경쓰지 마. 어느 주머니엔가 아직도 겨울잠쥐 두어 마리가 있는 것 같거든. "

## 제5장 다이애건 앨리

다음날 아침 해리는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꿈이었어."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해그리드라는 거인이 와서 내가 마법 학교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던 거야. 눈을 뜨면 난 집 벽장 속에 있을 거야."

갑자기 똑똑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페투니아 이모가 노크하고 있군.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그 멋진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똑. 똑. 똑.

"좋아." 해리는 중얼거렸다. "일어나야지."

그런데 일어나 앉는 그의 몸에서 해그리드의 무거운 코트가 툭 떨어졌다. 그는 그제서야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밤사이 폭풍이 멈추었던지, 오두막에는 어느새 햇빛이... 가득 했고, 해그리드는 푹 꺼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소

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부엉이 한 마리가 부리에 신문을 물고 발톱으로 창문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해리는 너무나 기빠 부리나케 기어나갔다. 마치 가슴속에서 커다란 풍선이 부풀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곧장 창문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부엉이가 얼른 날아들더니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해그리드의 머리맡에 신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마룻바닥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해그리드의 코트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

해리는 손을 내저어 부엉이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부엉이는 부리로 그를 사납게 물고는 계속해서 코트를 쏘아댔다.

"해그리드!" 해리가 큰소리로 말했다. "부엉이가-"

"심부름 값을 줘야지." 해그리드가 소파에서 툭툭거렸다.

"뭐라구요?"

"그 녀석은 신문 배달료를 받겠다는 거야. 주머니들을 뒤져봐."

해그리드의 코트에는 온통 주머니들밖에 없는 것 같았다. 열쇠 꾸러미가 나왔고, 총알, 구슬, 박하사탕, 차 봉지까지 나온 뒤에야... 마침내 해리는 이상하게 생긴 동전 한줄을 꺼냈다.

"5크넛을 줘." 해그리드가 아직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크넛이라뇨?"

"청동으로 만든 작은 동전들 말야. "

해리가 작은 청동 동전 다섯 개를 세자, 부엉이는 기다렸다는 듯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가 매달린 다리를 쪽 내밀었고 해리가 그 안에 돈을 집어넣자마자 열린 창문으로 핵 날아가버렸다.

해그리드는 큰소리를 내며 하품을 한 뒤,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켜다.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해리. 오늘은 할 일이 많거든. 런던에 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야 해."

해리는 그 마법사 동전을 뒤집어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희망을 단숨에 무너져 내리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저, 해그리드?"

"음?" 해그리드가 큼지막한 부츠를 잡아당겨 신으며 말했다.

"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 버논 이모부가... 마법을 배우는 데는 돈을 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걱정 마." 해그리드가 일어서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네 부모님이 네게 유산을 한푼도 남겨두시지 않았을 것 같니?"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살던 집이 다 부서 졌다면-"

"사람들은 금은 집안에 보관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먼저 그린고트부터 들러야겠군. 마법사들의 은행 말야. 소시지 하나 먹어. 식었어도 먹을 만해. 그런데 네 생일 케이크를 조금 먹어도 될까?"

"마법사들에게도 은행이 있어요?"

"그린고트 하나뿐이야. 도깨비들이 운영하지."

해리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소시지 조각을 떨어뜨렸다.

"도깨비들이라구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란 말 이야. 도깨비들 일에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해리. 네가 뭔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그린고트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어. 호그와트를 빼면 말야. 사실, 난 어쨌든 그린고트에 좀 가봐야 해. 불일이 있어서 말야.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호그와트 일로."

해그리드가 으스대며 어깨를 세웠다. "그 분은 중요한 일은 언제나 날 시키거든. 너를 데려오거나, 그린고트에서 뭘 가져 오거나 뭐 그런 것 말야. 그 분이 날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 챙겼니? 그럼, 가자."

해리는 해그리드를 따라 바위 위로 나왔다. 하늘은 이제 티 없이 맑았고 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버는 이모부가 빌렸던 배는 폭풍으로 바닥에 물이 가득 고인 채 그 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해리가 또 다른 일이 있나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날아왔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날아왔다구요?"

"그래. 하지만 돌아갈 땐 이걸 타고 갈 거야. 너를 찾았으니 마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배에 자리를 잡자, 해리는 해그리드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도 노를 저어 가는 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군." 해그리드는 해리를 또 한번 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저, 조금만 더 속도를 낸다면, 호그와트에는 비밀로 해 줄래?"

"물론이죠." 해리가 마법을 더 많이 보고 싶어 얼른 대답했다. 해그리드가 그 핑크빛 우산을 다시 쪽 내밀고, 배 옆구리를 두 번 톡톡 치자 배가 갑자기 육지 쪽으로 내달렸다.

"그린고트를 터는 것이 왜 미친 짓이라는 거죠?" 해리가 물었다.

"마법 때문이지." 해그리드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금고실을 지키는 용들이 있대. 그리고 그린고트까지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린고트는 런던 지하 수백 킬로미터 되는 곳에 있거든. 지하철 저 밑이지. 뭔가를 간신히 손에 넣었다 해도 빠져 나오려고 하다가 굶어죽고 말 거야."

해리는 해그리드가 "예언자 일보"를 읽고 있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해리는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는 방해받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걸 버논 이모부를 보아서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참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는 묻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이었다.

"마법부가 또 일을 망쳐놓았군." 해그리드가 신문을 넘기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법부가 있어요?" 해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물론이지."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물론 덤블도어가 마법부 장관이 되길 바랐지만, 그 분이 호그와트를 떠나려 하지 않아서, 코넬리우스 퍼지 노인이 그 직을 맡으셨지. 아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조언을 구하느라, 아침마다 덤블도어에게 수십 마리의 부엉이들을 보내지."

"그런데 마법부는 어떤 일을 하죠?"

"글쎄, 주요 임무는 나라 이곳저곳에 아직도 마녀와 마법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머글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왜요?"

"왜냐구? 해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마법을 알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저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바로 그때 배가 항구 벽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해그리드는 신문을 접었고, 그들은 힘겹게 돌계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갔다.

그들이 작은 마을을 지나 기차역으로 걸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해그리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었다. 해그리드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두 배는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저것 봐, 해리? 머글들이 만 들어낸 저 물건들 말야, 거참." 하며 주차 시간 자동 표시기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다.

"해그리드." 해리가 쫓아가느라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린고트에 용들이 있다고 했죠?"

"쥐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난 용을 갖고 싶어."

"용을 갖고 싶다구요?"

"난 어렸을 때부터 용이 갖고 싶었어. 자, 가자. "

그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 5분 뒤에 출발하는 런던행 기차가 있었다. 해그리드는 "머글 돈"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해리에게 수표를 주어 기차표를 사게 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들을 훨씬 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그리드는 두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밝은 노란색의 서커스 천막 같은 것을 뜨고 있었다.

"편지 갖고 있지, 해리?" 그가 바늘 땀 수를 세며 물었다.

해리는 주머니에서 양피지 봉투를 꺼냈다.

"좋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거기에 네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이 다 적혀 있어. "

해리는 그 전날 밤에는 미처 읽지 못했던 두 번째 종이를 펼쳐 들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교복

1학년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

1. 무늬 없는 긴 망토 세 벌(검정색)
  2. 일상용 뽀족한 모자 하나(검정색)
  3. 보호 장갑(용 가죽이나 그와 유사한 것)
  - 4 겨울 망토 하나(검정색에 은색 단추)
- 학생들의 모든 옷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붙이기 바랍니다.

#### 교과서

모든 학생들은 다음 책을 한 권씩 준비하기 바랍니다:

(표준 마법서(1학년)), 미란다 고시오크 지음  
(마법의 역사), 바틸다 백셋 지음

(마법 이론), 아달버트 와플링 지음  
(초보자를 위한 변신술 지침서), 에메릭 스위치 지음  
(1000가지 마법 약초와 버섯), 필리다 스포어 지음  
(마법과 마법의 약), 아르세니우스 지거 지음  
(기이한 짐승들과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뉴트 스캐맨더 지음  
(어둠의 힘: 방어법 지침서), 쿠웬틴 드림블 지음

다른 용품

요술지팡이 하나

큰 냄비 하나

유리나 크리스탈 약병 하나

망원경 하나

놋쇠 저울 하나

학생들은 또 부엉이나 고양이, 혹은 두꺼비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학부형님들께서는 첫 1년 동안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빗자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런던에서 살 수 있어요?" 해리가 놀라서 큰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는 런던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해그리드는 어디를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그곳에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는 지하철 개찰구에 몸이 갇혔는가 하면, 자리는 너무 비좁고 기차는 너무 느리게 간다며 큰소리로 불평을 해댔었다.

"난 머글들이 마법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야." 그가 가게들이 죽 늘어선 북적거리는 도로까지 연결된 망가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올라가며 이렇게 말했다. 해그리드는 그 큰 몸집으로 어찌나 쉽게 인파를 뚫고 지나가던지 해리는 그저 그의 뒤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서점과 레코드 가게와 햄버거 레스토랑과 극장들을 지나갔지만 요술지팡이를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이곳은 그저 보통 사람들로 붐비는 평범한 거리에 불과했다. 저 아래 땅속에는 정말로 마법사의 황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까? 마법서와 빗자루들을 파는 가게가 정말로 있거나 한 걸까? 이 모두가 혹시 더즐리 가족이 꾸며낸 장난은 아닐까? 해리가 만일 더즐리 가족에게 유머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곳으로군." 해그리드가 발을 멈추며 말했다. "리키 콜드런. 유명한 곳이지."

그곳은 아주 작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술집이었다. 해그리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다면, 해리는 그 술집이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급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

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리키 콜드런을 볼 수 없기  
라도 한 듯 대형 서점이나 그 반대편의 레코드 가게만 훑어보  
았다. 사실 해리는 자신과 해그리드만이 그 술집을 볼 수 있다  
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이 말을 하기도 전에, 해  
그리드는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유명한 장소치고는 그곳은 아주 어둡침침하고 지저분했다.  
노파 몇 명이 한쪽 구석에 앉아 아주 작은 술잔으로 백포도주  
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뾰족한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 하나는 대머리에다  
꼭 호두처럼 생긴 이빨 빠진 늙은 바텐더에게 말을 걸고 있었  
다. 그들이 걸어 들어가자 웅성대던 소리가 딱 멈췄다. 모두  
해그리드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바텐더는 술잔으로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느 때 마시던 걸로 하겠소, 해그리드?"

"마실 수 없어, 톰, 호그와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해그  
리드가 커다란 손으로 해리의 어깨를 탁 때려 해리의 무릎을  
휘청이게 하며 말했다.

"아아. " 바텐더가 해리를 뻘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애가-  
그럼 이 애가-?"

리키 콜드런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런." 그 늙은 바텐더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 포터...  
이렇게 영광스러울 데가."

그는 허둥지둥 바 뒤편에서 나와, 급히 해리 쪽으로 가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포터 군, 돌아온 걸 환영해. "

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  
었다. 담뱃대를 물고 있던 노파는 불이 꺼진지도 모른 채 계속  
빠끔빠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드르륵드르륵 의자들이 마루를 긁어  
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해리는 어느새 리키  
콜드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도리스 크룩포드네, 포터 군, 마침내 자네를 만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너무나 자랑스럽네, 포터 군,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야."

"언제나 자네와 악수를 하고 싶었지. 가슴이 두근거리는군."

"반갑네, 포터 군, 뭐라 말할 수가 없군, 디글일세, 데달루스 디글"

"전에 뵈 적이 있어요!" 해리가 이렇게 말하자 흥분한 나머  
지 데달루스 디글의 뾰족한 모자가 벗겨져 떨어졌다. "언젠가  
어떤 가게에서 제게 인사를 하셨었죠."

"기억을 하는구만!" 데달루스 디글이 모두를 둘러보며 외쳤  
다. "들었나? 이 애가 날 기억한다구!"

해리는 다시 계속해서 악수를 했다. 도리스 크룩포드는 몇  
번이고 다시 왔다.

얼굴이 창백한 한 젊은 남자가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앞으  
로 걸어나왔다. 그의 한쪽 눈은 씩룩씩룩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퀴렐 교수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 퀴렐 교수님은 호 그와트에서 널 가르쳐줄 선생님들 중 한 분이셔."

"포-포-포터." 퀴렐 교수는 해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자네를 마- 만나다니 이-이렇게 기-기쁠 데가"

"퀴렐 교수님은 어떤 마법을 가르치시나요?"

"어-어-어둠의 마법을 막는 바-방어법이지." 퀴렐 교수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듯 비밀스럽게 말했다. "그게 피-필요하다는 말은 아-아니겠지, 포-포-포터?" 그는 초조하게 웃었다. "준비물은 모두 잘 채-챙겨가야 할걸? 난 흡혈귀에 관한 새 채-책을 좀 차-찾아야 해." 바로 그 말을 할 때 그의 모습은 좀 으스스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퀴렐 교수가 계속해서 해리를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에게서 빠져 나오는 데는 거의 10분이 걸렸다. 마침내 해그리드는 왈카지꼴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너머로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야만 해. 살 게 많아. 자, 해리."

도리스 크록포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리와 악수를 했고, 해그리드는 그 술집을 빠져 나와 쓰레기통과 잡초 몇 개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벽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안마당으로 나왔다.

해그리드는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내가 말했지? 넌 유명하다고 말야. 퀴렐 교수님조차 너를 만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잖아.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그분은 원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늘 그렇게 긴장하시나요?"

"어, 그래. 가엾은 분이시. 하지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책을 보면서 연구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셨다가 1년 만에 그만... .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둠의 숲'에서 흡혈귀들을 만나셨대. 그리고 어떤 심술궂은 마녀와 약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나 봐. 그 이후론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대.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무서워하고 말야. 그런데, 내 우산이 어디에 있지?"

흡혈귀? 마녀? 해리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 동안 해그리드는 담에 기대어져 있는 쓰레기통 위쪽의 벽돌 수를 세고 있었다.

"위로 세 개... , 가로로 두 개... 그가 중얼거렸다. "좋았어. 뒤로 물러서, 해리."

그는 우산 끝으로 담을 세 번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그가 두드린 벽돌이 흔들흔들하더니 가운데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나타나 점점 더 넓어졌고 잠시 뒤엔 좀 삐뚤어진 긴 했어도 아주 멋진, 그리고 해그리드가 빠져 나가기도 충분히 큰 통로가 생겼다.

"다이야건 앨리에 온 걸 환영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 있는 해리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다. 그들은 그 통로를 지나갔다. 어깨 너머로 훑듯 바라본 해리는 그 통로가 다시 순식간에 오그라들어 딱딱한 벽이 되는 걸 보았다.

태양이 바로 옆 가게에 쌓아둔 큰 냄비들 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접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롯해 각종 크기의 청동, 놋쇠, 양은, 은 냄비들이 죽 진열되어 있었다.

"그래, 너도 하나는 있어야 할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돈을 찾아야 해. "

해리는 눈을 여덟 개쯤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걸어가며 가게며, 가게 바깥에 놓인 물건들이며, 쇼핑하는 사람들 등 모든 걸 한꺼번에 보려고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돌렸다. 약국 앞에 서 있던 어떤 살찐 여자는 그들이 지나가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의 간이 온스당 17시클이나 한다구 미친놈들... "

'이이롭스 부엉이 백화점'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한 어두컴컴한 상점에서 황갈색 부엉이, 외양간 부엉이, 갈색 부엉이, 눈 부엉이 등 부엉이들이 부엉부엉 우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리 또래의 남자 아이 대 여섯 명이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빗자루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것 봐." 해리는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 "가장 빠른 님부스 2000을 새로 들여 놓았네."

그곳엔 긴 망토를 파는 상점이며. 망원경과 은으로 만든 이상한 기구를 파는, 해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상점들이 있었는데, 창가에는 박쥐 지라와 뱀장어 눈알이 가득 담긴 드럼통과, 마법서, 깃펜, 양피지마리, 약병, 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공 등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그린고트가 저기 있군."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들은 다른 작은 상점들 위로 우뚝 솟아있는 새하얀 건물로 다가갔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 문 옆에 서서, 진홍색과 황금빛의 단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래, 그게 바로 도깨비야." 하얀 돌계단을 따라 그 도깨비에게 걸어가며 해그리드가 나직이 말했다. 그 도깨비는 해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작았다. 해리는 그 도깨비가 영리해 보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뾰족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주 길다는 걸 알아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 도깨비가 인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은빛이 나는 두 번째 문 앞에 와 있었다.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들어오시오, 낯선 이여. 하지만 명심하시오  
탐욕의 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하여 얻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치르게 될 것이오  
그러니 만일 우리의 마룻바닥 밑에서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보물을 찾게 된다면,  
도둑이여, 경고하노니, 주의하시오  
그곳에서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 " 해그리드가 말했다.

은빛 문을 지나가자 도깨비 두 명이 그들에게 인사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대리석 홀이 나왔다. 170명이 넘는 도깨비들이 길다란 카운터 뒤편의 높은 의자에 앉아 무덤의 커다란 받침돌에 낙서를 하거나, 낫쇠 저울로 동전들의 무게를 달거나, 확대경을 눈에 끼고 보석들을 감정하고 있었다. 그 홀로 통하는 문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보다 더 많은 도깨비들이 사람들을 이 문 저 문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그리드와 해리는 카운터로 향했다.

"안녕하십시오." 해그리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도깨비에게 말했다. "우린 해리 포터 씨의 금고에서 돈을 좀 꺼내 가려고 왔소"

"열쇠가 있소, 선생?"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요."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카운터 위에도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케케묵은 강아지 비스킷 한줌을 도깨비의 책 위에 뿌리자 그 도깨비가 코를 찔룩거렸다. 해리는 그들의 오른쪽에 있는 도깨비가 달아오른 석탄만큼이나 큰 루비 더미의 무게를 다는 걸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찾았다." 해그리드가 마침내 찌그마한 황금빛 열쇠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도깨비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맞는 것 같군요."

"난 또 덤블도어 교수님의 편지도 가져왔소" 해그리드가 가슴을 쪽 펴고,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그건 713번 금고에 있는 그것에 관한 것이요."

도깨비는 편지를 주의 깊게 읽었다.

"알겠소." 그가 편지를 해그리드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사람을 시켜 당신들을 두 금고에 데려다주도록 하겠소. 그립훅!"

그립훅은 또 다른 도깨비였다. 해그리드는 일단 강아지 비스킷들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해리와 함께 그립훅을 따라 그 홀로 통하는 문들 가운데 하나로 향했다.

"713번 금고에 있는 그것이라는 게 뭐죠?" 해리가 물었다.

"말할 수 없어." 해그리드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밀이거든. 호그와트의 비밀이지. 덤블도어 교수가 날 믿고 일을 맡긴 건데 네게 그걸 말하면 난 파면당할 거야."

그립훅이 그들을 위해 그 문을 열어주었다. 더 많은 대리석이 있으리라 예상했던 해리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활활 타는 햇불로 밝혀진 좁다란 석조 통로에 들어와 있었다. 그 통로는 아래쪽으로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철도 자국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립훅이 획 하고 휘파람을 불자 작은 궤도차가 트랙을 타고 그들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왔다. 해그리드가 어렵사리 올라탔고, 그들이 오르자마자 궤도차가 출발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꼬불꼬불한 미로를 지나갔다. 해리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중간 분기점, 오른쪽, 왼쪽하며 기억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덜컥거리는 궤도차는 그립훅이 운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맞바람을 맞고 지나는 동안 눈이 시렸지만, 해리는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었다. 한번은, 어떤 통로 끝에서 폭발하는 불빛을 본 것 같아 혹시 용인가 보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너무 늦고 말았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종유석과 석순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자란 지하의 호수를 지나,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갔다

"난 정말로 모르겠어요." 해리가 퀘도차의 소음 너머로 해그리드에게 소리쳤다. "종유석과 석순이 어떻게 다르죠?"

"종유석에는 '종'자가 들어있잖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묻지 마, 멀미가 날 것 같으니까."

그의 얼굴은 아주 창백해 보였다. 퀘도차가 마침내 통로 벽에 나 있는 작은 문 옆에 멈춰 서자, 해그리드는 얼른 내려 무릎을 후들거리며 벽에 기대 섰다.

그립훅이 문의 자물쇠를 열었을 때 해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뿌연 초록빛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산더미같이 쌓인 황금 동전들이 눈에 들어왔다. 은도 잔뜩 늘어서 있었고, 작은 청동 크넛도 한 무더기 있었다.

"다 네 거야." 해그리드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해리 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더줄리 가족은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아마 순식간에 그에게서 빼앗아 갔을 테니까, 그들은 해리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며 얼마나 자주 불평을 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동안 내내 그의 소유인 엄청난 재산이 런던 밑에 깊숙이 묻혀 있었다니.

해그리드는 해리가 그 일부를 주머니에 담는 걸 도와주었다.

"황금빛 동전은 갈레온이야." 그가 설명했다. "17은 시클이 1갈레온이고 29크넛은 1시클이니까, 그거면 충분해. 좋아, 두 학기 정도 보내는 데는 그거면 충분할 테니, 나머지는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도록 하자." 그는 그립훅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건3번 금고로 갑시다. 그런데 좀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퀘도차는 한 속도로만 움직여요." 그립훅이 말했다.

그들은 이제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었다. 그들이 움푹달싹도 할 수 없는 모퉁이를 획 돌아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퀘도차가 지하의 좁은 터널을 덜컹거리며 지나갈 때, 해리가 저 아래 어두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자, 해그리드가 위험하다며 목덜미를 핵 잡아당겼다.

713번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다.

"뒤로 물러서시오." 그립훅이 으스스대며 말했다 그가 길다란 손가락 하나로 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문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린고트의 도깨비 이외의 누구라도 그렇게 했다간, 문으로 빨려 들어가 안에 갇히고 말 거요" 그립훅이 말했다.

"누가 안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자주 살피죠?" 해리가 물었다.

"10년에 한 번씩." 그립훅이 다소 불쾌하게 씩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이 1급 금고 안에 무언가 정말로 굉장한 것이 들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 굉장한 보석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금고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누런 종으로 싼 더러운 작은 꾸러미 하나가 바닥에 놓여있었다. 해그리드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코트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해리는 그것이 무엇일까 몹시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 이 지긋지긋한 퀘도차를 타고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땐 내게 말 걸지 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멀미가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그리드가 말했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달리는 퀘도차를 타고 나온 뒤 그들은 그린고트 밖에서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박이며 서 있었다. 해리는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갖게 되자 이제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비록 몇 갈레온이 1파운드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이 지금, 평생 가졌던 돈보다 더 많은 돈-두들리가 가져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선 교복을 사는 게 좋겠다." 해그리드가 고개로 '말킨 부인의 망토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해리, 내가 리키 콜드런에 잠깐 가서 한잔만 하고 와도 괜찮겠니? 그린고트의 고속 퀘도차는 언제 타도 끔찍하단 말야. "

그가 아직도 멀미를 하는 것같이 보였으므로, 해리는 다소 겁이 나서 해그리드를 보내고 혼자서 말킨 부인의 가게로 들어갔다. 말킨 부인은 땡땡막한 마녀였는데, 연한 자줏빛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도 호그와트니?" 해리가 막 말을 꺼내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여기 많이 있단다. 실은, 또 다른 아이가 지금 막 입어보고 있지. "

그 가게 뒤편에서는 또 다른 마녀가 발판 위에 서 있는 창백하고 가름한 얼굴을 가진 남자아이의 긴 검정 망토를 핀으로 꿸고 있었다. 말킨 부인은 해리를 그 옆에 있는 발판에 세우고 긴 망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씌워 입히고는 적당한 길이에서 핀을 꿸기 시작했다.

"안녕" 그 소년이 말했다. "너도 호그와트니?"

"응." 해리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옆 가게에서 내 책을 사고 계시고 엄마는 길가에서 요술지팡이를 보고 계셔." 그 소년이 말했다. 그 아이는 따분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 다음에 난 엄마 아빠와 함께 경주용 빗자루를 보러 갈 거야. 난 왜 첫 해는 자기 빗자루를 가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난 아빠를 졸라서 하나를 몰래 사갖고 들어갈 거야."

해리는 꼭 두들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넌 빗자루 있니?" 그 소년이 계속해서 물었다.

"아니." 해리가 말했다.

"퀴디치는 해 본 적 있어?"

"아니" 해리는 퀴디치라는 게 도대체 무얼까 의아해하며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난 해 봤어. 아빠는 내가 만약 우리 기숙사 대표로 뽑히지 않는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야. 그런데 넌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

"아니" 해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점점 멍청하게 느껴졌다.

"하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난 내가 우리 가족 모두가 생활했던 슬리데린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후플푸프에는 절대로 배정받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난 그냥 나와버릴 것 같아. 너라면 안 그러겠니?"

"음." 해리는 자신이 뭔가 좀더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좀 봐!" 그 남자애가 갑자기 정문 창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거기엔 해그리드가 해리를 보고 씩 웃으며 서서 커다란 아이스크림 두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저 사람은 해그리드야." 해리는 뭔가 그 남자애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기뻐서 얼른 말했다. "호그와트에서 일하시지"

"아하." 그 남자애가 말했다. "나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 저 사람은 일종의 한인이야. 안 그러니?"

"그는 사냥터지기야."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그 남자애가 점점 더 싫어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난 그가 야만인이라고 들었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오두막에서 사는데 가끔 술에 잔뜩 취해서는 마법을 부리려고 하지만 침대에 불을 질러놓기가 일쑤래."

"내가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이야."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그 남자애가 약간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너와 함께 있는 거지? 네 엄마와 아빠는 어디에 계셔?"

"그 분들은 돌아가셨어." 해리가 짧게 말했다. 해리는 이 아 이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오, 미안." 그러나 그 아이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들도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셨겠지, 안 그래?"

"그래, 마법사들이셨어."

"난 그 학교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그들은 우리와 다르거든. 우리의 풍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호그와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봐. 난 그들이 마법사 가족 속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풍습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는 성이 뭐니?"

하지만 해리가 막 대답하려던 찰나, 말킨 부인이 말했다. "다 됐다. 얘야." 그리고 해리는 그 남자아이에게 말을 멈춰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발판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그럼, 호그와트에서 보자." 그 아이가 질질 끌며 천천히 말했다. 망토가게에서 나온 해리는 말없이 해그리드가 사온, 땅콩 가루가 박힌 초콜릿 랍스베리 아이스크림만 먹었다.

"왜 그러니?" 해그리드가 물었다.

"아무 것도 아녜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양피지와

깃펜을 사러 가게에 잠깐 들렀다. 해리는 쓸 때마다 색깔이 변하는 잉크병을 발견하자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그 가게를 나오며 그가 해그리드에게 물었다. "해그리드, 퀴디치가 뭐예요?"

"아차, 해리, 난 네가 아직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깜박한단 말야. 퀴디치도 모르고 있었구나!"

"제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해리가 말했다. 그는 해그리드에게 말킨 부인 가게에서 만난 그 창백한 아이에 대해 말했다.

"-그 아인 머글 가족 출신 사람들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넌 머글 가족 출신이 아냐. 만일 그 애가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애의 부모가 마법사라면 그애 틀림없이 네 이름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야. 너도 리키 콜드론에 있는 사람들이 널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았잖아. 어쨌든, 그 애가 뭘 알겠니, 내가 만난 일부 최고의 마법사들은 오랫동안 머글들 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 네 엄마를 봐! 그리고 그녀가 어떤 언니를 가졌는지 보라구!"

"그런데 퀴디치는 뭐죠?"

"그건 우리의 스포츠야. 마법사들의 스포츠. 그건 머글 세계에서와 같아. 누구나 퀴디치를 하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하는 건데 공이 네 개 있어. 하지만 경기 규칙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그리고 슬리데린과 후플푸프는 뭐예요?"

"학교 기숙사 이름이야. 네 개가 있지. 모두들 후플푸프는 바보 천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들 하긴 하지만-"

"그럼 전 틀림없이 후플푸프에 들어 가겠군요." 해리가 침울해져서 말했다.

"슬리데린보다는 후플푸프가 더 좋아." 해그리드가 은밀하게 말했다.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아서 못쓰게 된 마법사나 마녀는 단 한 명도 없거든. 그 사람도 그랬지,"

"불-, 죄송해요 그 사람도 호그와트에 있었어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들은 해리의 교과서들을 사기 위해 '플러리시와 블러트'라는 서점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큰 가족으로 장정된 책에서부터 책 표지가 실크로 만들어진 우표 크기만한 책,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 찬 책들과, 안에 아무 것도 없는 책들까지 선반들이 온통 책들로 산더미같이 쌓여있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두들리조차도 아마 몇 가지 책에는 흥분해서 손이 저절로 뻗어갔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빈딕투스 비리디안 교수가 쓴 '저주와 그 반대 저주(탈모, 흐느적흐느적 다리, 혀 묶어버리기 등 최신 복수법으로 친구들을 매혹시키고 적들을 정신나가게 하기)'라는 제목의 책 앞에서는 해리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야 했다.

"전 두들리를 굶려줄 방법을 알아내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머글들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법을 쓰지 말아야 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네가 두들리에게 써 먹으려는 마법들은 어

떤 것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해, "

해그리드는 황금 냄비는 사지 못하게 했지만('목록에서는 양은이라고 되어 있었다'), 약 혼합물의 무게를 다는 멋진 저울과 접을 수 있는 청동 망원경은 하나씩 사게 했다. 그 뒤 그들은 약재상에 들렀는데 그곳은 상한 달걀과 썩은 양배추를 합한 것 같은 끔찍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황홀했다. 마룻바닥에는 끈적끈적한 재료가 담긴 통들이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약초며 말린 뿌리며 밝은 분말가루 병들이 죽 세워져 있었다. 또 천장에는 깃털 더미와, 동물들의 송곳니와 발톱들이 뒤섞여 매달려 있었다. 해그리드가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에게 해리가 쓸 만한 좀 기본적인 약 성분들이 있는지 묻는 동안, 해리는 하나에 21갈레온 하는 은으로 만들어진 유니콘 뿔과 한 국자에 5크넛 하는 까맣게 반짝이는 조그마한 딱정벌레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약재상 밖에서, 해그리드는 해리의 목록을 다시 한번 살폈다.

"이제 요술지팡이만 남았군. 아참, 내가 아직 네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구나. "

해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

"그건 나도 알아. 말해줄까, 난 네게 동물을 사줄 거야. 두꺼비는 아냐. 두꺼비들은 오래 전에 유행이 지났거든. 그리고 난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아. 고양이들만 보면 난 재채기를 하니까 말야. 난 네게 부엉이를 한 마리 사줄 거야. 애들은 모두 부엉이들을 갖고 싶어하지. 굉장히 쓸모있거든.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모든 점에서 말야. "

20분쯤 뒤 그들은 어둡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찬, 보석처럼 밝은 눈들이 깜박대고 있는 이이롭스 부엉이 백화점 문을 나섰다.

해리의 손에는 이제 눈처럼 새하얀 예쁜 부엉이가 머리를 날개 밑에 묻고 잠들어 있는 커다란 새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꼭 퀴렐 교수처럼 더듬거리며 계속 고맙다고 말했다.

"천만에."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더즐리네 가족에게서 선물을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아서 말야. 이제 올리밴더스에만 가면 되는군. 요술지팡이를 파는 곳은 그곳뿐이거든. 넌 최고의 요술지팡이를 사야 해."

요술지팡이라... 이것이야말로 해리가 정말로 고대해 왔던 것이었다.

마지막 가게는 생각보다 비좁고 초라했다. 문에 쓰여진 '올리밴더스: 382 B.C. 이후 좋은 요술지팡이를 만들어온 제작자'라는 황금빛 글자들이 벗겨지고 있었다. 먼지투성이의 창가에는 색 바랜 보랏빛 쿠션 위에 요술지팡이가 한 개 놓여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깊숙이 어딘가에 있는 종이 딸랑거렸다. 자그마한 그 가게 안에는 엉성한 의자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다. 해리는 마치 매우 엄격한 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막 떠오른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억누르며 대신 천장까지 깔끔하게 쌓여있는 수천 개의 가느다란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의 목덜미가 따끔따끔 아팠다. 이 안에 있는 먼지와 정적이 어떤 신비한 마법으로 따끔거리게 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해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그리드도 놀란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약해 빠진 의자에 앉아 있던 그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그들 앞에는 어느새 한 노인이 서 있었는데 얇은 빛깔의 등그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마치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해리가 어색하게 말했다.

"오, 그래" 그 노인이 말했다. "그래, 그래, 자넌 곧 만나리라 생각했지. 해리 포터."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엄마 눈을 닮았구나. 네 엄마가 첫 번째 요술지팡이를 사러 이곳에 온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버드나무로 만들어져서 획 하고 소리나는 길이 10과 4분의1 인치인 지팡이었지. 마법에 쓰기에는 아주 좋은 지팡이였다."

올리밴더 씨가 해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해리는 전혀 깜박이지 않는 그의 은백색 맑은 눈이 다소 소름 끼쳤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마호가니 지팡이를 가장 좋아했지. 11 인치짜리였다. 잘 휘었지. 힘이 약간 더 세서 변신하는 데는 최고였단다. 글썄, 쥐랄까 네 아버진 그것을 가장 좋아하셨다. 그건 물론 마법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지팡이였단다."

올리밴더 씨는 해리와 코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는 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

올리밴더 씨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해리의 이마에 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만졌다.

"바로 내가 판 지팡이가 그렇게 한 것이란다. 미안하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13과 1/2인치. 주목으로 만들어진 거지. 강력한 아주 강력한 요술지팡인데, 잘못된 손에 넘어갔어... 그 요술지팡이가 세상에 나와 어떤 짓을 하리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는 고개를 젓더니 해그리드를 발견했다. 해리는 한시름을 놓았다.

"루베우스! 루베우스 해그리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네... 오크, 16인치, 약간 휘게, 맞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것도 좋은 지팡이였지. 그런데 자네가 쫓겨날 때 그들이 그걸 반으로 똑 부러뜨렸지 아마?" 올리밴더 씨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네. 그들이 그랬어요, 맞아요." 해그리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말했다. "하지만 전 아직도 그 조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가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것들을 사용하진 않나?" 올리밴더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 아뇨." 해그리드가 얼른 대답했다. 해리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핑크빛 우산을 짝 움켜쥐는 걸 보았다.

"흠." 올리밴더 씨가 해그리드를 날카로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럼, 자, 포터 군 어디 좀 보지." 그는 주머니에서 은빛 점들이 표시되어 있는 길다란 줄자를 꺼냈다. "어느 쪽에 지팡이를 짚 거지?"

"저, 전 오른손잡이에요" 해리가 말했다.

"팔을 쭉 뻗어봐. 그렇지." 그는 해리의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잰 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어깨에서 마룻바닥까지, 무릎에서 겨드랑이까지 그리고 머리 둘레를 잰다. 그는 길이를 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리밴더 지팡이 중심엔 모두 강력한 마법의 물질이 들어 있네, 포터 군. 우리 지팡이엔 유니콘 털과, 불사조 꼬리 깃털이 사용되고, 용의 심금이 담겨 있다네. 올리밴더 요술지팡이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유니콘이나, 용이나, 불사조 같은 것이 서로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지팡이는 다른 마법사가 만든 지팡이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지."

해리는 불현듯 자신의 콧구멍들 사이의 크기를 재고 있는 줄자가 혼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리밴더 씨는 선반들 주위를 날아다니며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다.

"그만 하면 됐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줄자가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러면, 포터 군. 이것 한번 써보지. 너도밤나무와 용의 심금이야. 9인치고. 멋지고 유연하지 그냥 한번 가져가서 휘둘러보게."

그러나 해리가 그 지팡이를 가져가 (멍청한 기분을 느끼며) 약간 휘둘러보려고 하자마자 올리밴더 씨가 그걸 그의 손에서 뺏아갔다.

"단풍나무와 불사조 깃털. 7인치. 탄력이 아주 좋지. 자 해보게" 해리는 휘둘러보려고 했지만, 그가 그 지팡이를 거의 들어올리지도 못하자 올리밴더 씨가 얼른 가져갔다.

"아니, 아니. 여기, 흑단과 유니콘 털에, 8과 2분의1인치, 잘 휘지 자, 한번 해봐."

해리는 몇 번이고 계속 시도했다 해리는 올리밴더 씨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다. 한번씩 휘둘러본 지팡이들이 그 약해빠진 의자 위에 점점 더 높이 쌓이고 있었지만, 올리밴더 씨는 선반에서 더 많은 지팡이들을 꺼내올수록 점점 더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까다로운 손님이야, 안 그런가? 하지만 걱정 말게, 여기 어딘가에서 꼭 들어맞는 걸 찾게 될 테니까. 혹시 그러면 말야, 그렇지, 좀 별난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 깃털에, 11인치,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유연한 것으로 말야"

해리는 그 지팡이를 가져갔다. 그는 손가락에서 갑자기 온기를 느꼈다. 그가 그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먼지투성이의 공기를 가르며 획 휘두르자. 그 끝에선 막치 불꽃놀이 처럼 빨강고 노란 불꽃이 튀며 벽 위로 춤추는 장점들을 던졌다. 해 그리드는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고 올리밴더는 큰소리

로 외쳤다. "브라보! 그렇지, 좋았어. 그런데 말야, 정말로 이상하군... , 정말로 이상해..."

그는 해리의 지팡이를 제 상자에 다시 집어넣어 갈색 포장지로 싸며 연신 "이상해... 이상해..."라고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올리밴더 씨는 창백한 눈길로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내가 판 지팡이들은 모두 기억하네, 포터 군. 하나 하나 다. 자네 지팡이처럼 불사조의 꼬리 깃털이 있는 지팡이가 꼭 하나 더 있었다네. 이 지팡이가 자네에게 가게 된다는 게 정말로 이상해. 왜냐하면 그 형제 지팡이가 바로 자네에게 그 흉터를 냈거든"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13과 2분의1인치. 주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이상해. 기억하나, 지팡이가 마법사를 선택한다는 걸 말야... , 내가 볼 때 우리 자네에게서 굉장한 일들을 기대해야 할 것 같네, 포터 군... 무엇보다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될 그 사람은 굉장한 일들을 했네, 끔찍한 일들이었지, 그래, 하지만 굉장했어."

해리는 몸이 오싹했다. 그는 올리밴더 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 지팡이 값으로 황금 갈레온 일곱 개를 냈고, 올리밴더 씨는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해리와 해그리드가 다시 벽을 뚫고, 다이애건 앨리의 텅 빈 리키 콜드런으로 향했을 때 하늘에는 늦은 오후의 태양이 낮게 걸려 있었다.

해리는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철에 온갖 우스꽝스런 모양의 짐 꾸러미들을 들고 탄 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해리의 무릎에 놓인 새장에서는 새하얀 부엉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 또 한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패딩턴 역으로 나왔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어깨를 탁 쳤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기차가 떠나기 전에 뭐 좀 먹을 시간이 있겠군" 그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해리를 햄버거 가게로 데려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해리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다. 웬일인지 모든 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

"괜찮니, 해리? 말이 없구나."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막 생애 최고의 생일을 보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햄버거를 먹었다.

"모두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리가 마침내 말했다. "리키 콜드런에 있는 사람들과, 퀴렐 교수님과, 올리밴더 씨 모두... 하지만 난 마법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굉장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난 유명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볼드-,

죄송해요, 제 말은,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 몰라요."

해그리드가 탁자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는 제멋대로 난 수염과 눈썹 너머로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 해리. 넌 금방 배우게 될 거야.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잘할 거야. 그저 침착하기만 하면 돼. 어렵다는 건 알아. 넌 선택받은 마법사야. 그렇게 되기로 언제나 힘들지. 하지만 넌 호그와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나도 그랬거든. 사실 지금도 그렇고 말야."

해그리드는 해리가 더즐리 가족에게로 돌아갈 기차를 타는 걸 도와준 뒤,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표야." 그가 말했다. "9월 1일, 킹스 크로스 역이야. 모든 건 표에 다 써 있어, 더즐리네 가족과 어떤 문제든 있으면, 부엉이로 내게 편지를 보내, 부엉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 그럼 또 보자, 해리."

기차가 역을 빠져 나갔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를 지켜보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문에도 코를 바짝 갖다댔지만, 눈 깜박할 사이에 해그리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 제6장 9와 3/4번 승강장

해리가 더즐리 가족과 보낸 마지막 한 달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사실, 두들리는 이제 해리를 어찌나 무서워했던지 한방에 있으려 하지도 않았고,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는 해리를 벽장 속에 가두지도,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지도, 그에게 큰소리를 치지도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에게 말도 하지 않았다. 반쯤은 무섭기도 하고, 반쯤은 화가 나기도 했으므로, 그들은 마치 해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많은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좋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약간 침울해졌다.

해리는 자기 방에서 부엉이와 함께 지냈다. 그는 그 부엉이를 "마법의 역사"에서 발견한 헤드위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교과서들은 아주 재미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헤드위그는 열린 창문으로 획 날아갔다 획 날아들곤 했다. 페투니아 이모가 더 이상 청소를 하러 들어오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헤드위그가 계속해서 죽은 쥐들을 물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리는 벽에다 꽃아놓은 종이에 체크를 했다. 9월 1일까지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이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자 해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다음날 킹스 크로스 역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그들이 텔레비전 퀴즈 쇼를 보고 있는 거실로 내려갔다. 그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두들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저, 버논 이모부?"

버논 이모부가 말을 듣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툭툭거렸다.



"저기, 내일 킹스 크로스에 가야 해요, 호그와트에 가려구요"

버논 이모부가 다시 툭툭거렸다.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툴툴. 해리는 그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

그가 막 이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기차라니, 마법 학교에 가는 것 치고는 좀 우스꽝스런 방법

이구나. 마법의 카펫에 구멍이라도 났나 보지?"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냐?"

"저도 몰라요." 해리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해그리드가 준 기차표를 꺼냈다.

"그냥 11시에 9와 3/4번 승강장에서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된  
대요." 그가 승차권을 읽으며 말했다.

이모와 이모부가 그를 뵈히 바라보았다.

"무슨 승강장이라구?"

"9와 3/4번 승강장이요."

"허튼 소리 좀 작작 해라."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9와 3/4번  
이라는 승강장은 없어. "

"제 표에는 있어요. "

"헛소리 마라. "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그런 놈들의 미친 소  
리라니까. 두고 보라. 곧 알게 될 테니. 좋아, 킹스 크로스에 데  
려다 주지. 어쨌든 우리 내일 런던에 가야 하니까, 어려울 건 없다."

"런던에 왜 가시는데요?" 해리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부드럽  
게 만들려고 애쓰며 물었다.

"두들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다." 버논 이모부가 투덜  
거리며 말했다. "스멜팅 학교에 가기 전에 저 엉덩이의 빨간  
부분을 없애야 하니까 말이다. "

그 다음날 아침 해리는 5시에 깼는데 너무 흥분하고 긴장한  
탓인지 잠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는 마법사 망토를 입고 역까  
지 가고 싶지 않았으므로 일어나서 청바지를 입었다. 옷은 기  
차에서 갈아입으면 될 것이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호그와트 목록을 살핀 뒤, 헤드위그가  
새장 속이 안전하게 있는지 보고는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더  
즐리 가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두 시간 뒤, 해리의 커다랗고 묵직한 가방이 더즐리네 차에  
싣려졌고, 페투니아 이모는 두들리에게 해리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다.

그들은 10시 반에 킹스 크로스에 도착했다.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가방을 손수레 위에 쿵 내려놓은 뒤 직접 밀면서 역으  
로 들어갔다. 해리가 이걸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다고 생각하  
고 있을 때 버논 이모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플랫폼을 바라  
보며 심술궂게 씩 웃었다.

"자, 저것 보라, 9번 승강장, 10번 승강장이지. 네 승강장은 중  
간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구나?"

물론 그의 말은 옳았다. 한 승강장에는 커다랗게 9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 옆 승강장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지만, 그 중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학기 잘 보내라." 버논 이모부는 훨씬 더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두말도 없이 가버렸다. 해리는 돌아서서 더즐리 가족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셋은 모두 웃고 있었다. 해리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헤드위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를 수상한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는 지나가는 차장 한 명을 멈춰 세웠지만, 9와 3/4 승강장 소리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그 차장은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해리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말하지 못하자, 그는 해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해리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11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 차장은 그런 기차가 없다고 말하고는 투덜거리며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 위의 대형 시계에 따르면 호그와트 행 기차에 탈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거의 들 수도 없는 커다란 가방을 갖고, 주머니엔 마법사들의 돈을 하나 가득 넣은 채, 커다란 부엉이와 함께 역 한가운데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벽돌을 두드려 다이애건 앨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뭔가 해야만 할 일을 그에게 일러주는 걸 잊어버렸던 게 틀림없었다. 그는 요술지팡이를 꺼내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검표소를 두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머글들로 가득하겠지, 물론-"

해리는 책 돌아섰다. 그 사람은 뚱뚱한 여자였는데, 머리카락이 하나같이 새빨간 네 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해리처럼, 커다란 가방을 앞으로 밀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또 부엉이도 한 마리 갖고 있었다.

해리는 쿵닥쿵닥 뛰는 가슴을 안고, 손수레를 밀고 그들을 쫓아갔다.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따라가며 그들이 멈추면 따라서 멈췄다.

"그런데, 몇 번 승강장이었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물었다.

"9와 3/4번 승강장." 역시 머리카락이 새빨간 자그마한 여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가면 안..."

"넌 아직 어리단다. 지니, 그러니 이제 좀 조용히 하렴. 자. 퍼시, 너 먼저 가거라. "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9번과 10번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혹시 보지 못할까봐 눈도 깜박이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그 아이가 두 승강장을 나누는 개찰구에 도달하는 순간, 많은 여행객 인파가 앞으로 때지어 몰려들었고 마지막 배낭이 지나갔을 즈음엔, 그 아인 이미 어디론가 사라

지고 없었다.

"프레드, 다음은 너다." 그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전 프레드가 아니에요, 조지라고요." 그 소년이 말했다. "정말로 우리 엄마 맞아요? 제가 조지라는 걸 구별하지 못하세요?"

"미안하다, 조지, "

"장난이었어요, 전 프레드예요. " 그 아이가 걸어가며 말했다. 그 아이의 쌍둥이 동생이 그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쳐 말했는데, 정말로 서둘렀는지, 잠시 뒤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아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제 세 번째 아이가 개찰구 쪽으로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그가 없어졌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실례합니다. " 해리가 그 뚱뚱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애야. " 그녀가 말했다. "호그와트에 처음이니? 론도 신입생이란다. "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막내둥이 아들을 가리켰다. 그 애는 키가 호리호리하게 크고, 말랐으며, 주근깨투성이에, 손과 발이 크고, 코가 길쭉하게 생긴 아이였다

"네." 해리가 대답했다. "그것 말이에요-그거요,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

"승강장에 어떻게 오르는지 말이니?" 그녀가 친절하게 말하자,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 그녀가 말했다. "그저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개찰구로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단다. 부딪힐까봐 멈추거나 겁먹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지, 멀리면 조금 뛰어가는 게 좋을 거야. 자, 어서 너 먼저 가거라."

"저 - 알겠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는 손수레를 밀며 개찰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건 아주 딱딱해 보였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9번과 10번 승강장 쪽으로 밀쳤다. 해리는 더 빨리 걸었다. 저 개찰구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손수레 쪽으로 몸을 숙이고 갑자기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개찰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손수레는 통제가 되지 않았다.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는 부딪힐 준비를 하고 눈을 감았다-

충돌은 없었다... 계속 달렸다... 눈을 떴다.

사람들이 꼭 찬 승강장 옆에 진홍색 증기기관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 위의 표지판에는 '호그와트 급행열차. 11시'라고 쓰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개찰구가 있었던 곳에, '9와 3/4번 승강장'이라고 적힌 철제 아치 통로가 보였다. 그는 해낸 것이었다.

엔진에서 나온 연기가 수다 떨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떠가는 동안, 각종 색깔의 고양이들이 그들의 다리 사이로 요리조리 돌아다녔다. 부엉이들은 왁자지껄한 군중 소리와 무거운 가방들의 굵히는 소리가 불만스럽다는 듯 부엉부엉 울어댔다.

첫 몇 칸은 벌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창가에 붙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해리는 빈 자리를 찾기 위해 손수레를 밀고 승강장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얼굴이 둥근 아이 옆으로 지나쳤다. 그 애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 두꺼비를 또 잃어버렸어요. "

"어떡하니, 네빌." 그는 그 할머니가 한숨짓는 소리를 들었다. 머리를 새끼줄 모양으로 여러 가닥 땀아 내린 어떤 남자아이 주변에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몰려 있었다.

"우리도 한번 가서 보자, 리, 자 어서. "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상자의 뚜껑을 들추자, 그 안에 있는 뭔가가 털이 많은 길다란 다리를 쏙 내밀었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해리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기차 끝에 다 가서야 간신히 빈 칸막이 객실 하나를 찾았다 그는 먼저 헤드위그를 안에 넣은 뒤 밀치고 나가 기차 문 쪽으로 가방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을 기차 계단 위로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한 계단도 올릴 수가 없었고 발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발을 두 번이나 찢고 말았다.

"도와줄까?" 그건 바로 그가 개찰구에서 따라왔던 그 빨간 머리의 쌍둥이 중 하나였다.

"응, 그래 줘. " 해리가 혈떡이며 말했다.

"프레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그 쌍둥이 들의 도움으로, 해리의 가방은 마침내 객실 한쪽에 밀어 넣어졌다.

"고마워." 해리가 눈을 덮고 있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그런데 그건 뭐니?" 쌍둥이 중 한 명이 갑자기 해리의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이럴 수가. "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너-?"

"그래." 첫 번째 쌍둥이가 말했다. "그렇지?" 그가 해리에게 물었다.

"뭐가?" 해리가 물었다.

"해리 포터." 쌍둥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아." 해리가 말했다. "내 말은, 맞다구, 그래."

그 두 소년이 그를 멍하니 바라보자, 해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그 뒤, 다행히도 기차의 열린 문으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레드? 조지? 너희들 거기 있니?"

"가요, 엄마."

쌍둥이들은 해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본 뒤, 기차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해리는 승강장에 있는 빨간 머리 가족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창가에 반쯤 숨어 앉았다. 그 애들의 엄마가 손수건을 꺼냈다

"론, 코에 뭐가 묻었구나. "

막내둥이 남자아이는 달아나려고 얼른 몸을 했지만, 그녀는

그 애를 붙잡아 코끝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엄마. 싫어요." 그가 요리조리 피하며 말했다.

"론의 코에 뭐가 묻었다구?" 쌍둥이 중 하나가 물었다.

"조용히 해." 론이 말했다.

"퍼시는 어디 있지?" 그 애들의 엄마가 물었다.

"가고 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년이 큰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는 벌써 까만 호그와트 망토로 갈아입고 있었고, 해리는 그의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은빛 배지에 P라고 써 있는 걸 보았다.

"시간이 없어요, 엄마." 그가 말했다. "전 저 앞에 있어요, 반장들이 객실 두 개를 차지했거든요"

"어, 퍼시 형이 반장이란 말야?" 쌍둥이 중 하나가 아주 놀랐다는 듯이 물었다."그럼 말을 했어야지, 우린 전혀 몰랐잖아. "

"잠깐, 난 형이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한번-"

"아니 두 번..."

"잠깐-"

"여름 내내-"

"야, 시끄러워." 반장인 퍼시가 말했다.

"그런데 퍼시 형은 어떻게 새 망토를 얻었지?" 쌍둥이 하나가 말했다.

"반장이니까 그렇지." 그 애들의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다.

"자 그럼, 애들아, 학기 잘 보내라. 도착하면 부엉이를 보내렴."

퍼시는 엄마가 볼에 입을 맞추자마자 가버렸다. 그 뒤 그녀는 쌍둥이들 쪽으로 돌아섰다.

"자, 너희들 둘, 금년엔 암전하게 굴어라. 만약 부엉이가 한 번만 더 와서 네가- 네가 화장실을 폭파시켜버렸다거나 뭐 그런 말을 했다간-"

"화장실을 폭파시켰다구요? 우린 화장실을 폭파시킨 적 없어요."

"하지만 멋진 아이디어네요, 고마워요, 엄마."

"웃을 게 아냐. 그리고 론을 잘 돌보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론은 저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조용히 해." 론이 다시 말했다. 그 애는 키가 벌써 쌍둥이만 했고 엄마가 문질렀던 코는 아직도 빨갛다.

"엄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기차에서 막 누굴 만났는지 알아맞혀 보시라구요?"

해리는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얼른 뒤로 물러나 앉았다.

"기차역에서 우리 옆에 있던 까만 머리 아이 아시죠?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해리 포터!"

해리는 그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기차에 가서 봐도 돼요? 엄마, 제발..."

"벌써 봤잖니, 지니, 그리고 그 가엾은 아이는 네가 동물원에서 열심히 보는 그런 동물이 아니란다. 그런데 정말이니, 프레드? 어떻게 알았니?"

"그 아이에게 물어봤죠. 그 아이의 흉터를 보았거든요 정말로 거기에 있더라구요 번개 모양으로. "

"가엾은 아이 같으니라구. 그 애가 혼자 있었던 것도 당연하지. 승강장으로 가는 방법을 묻는 그의 모습은 정말 품위가 있어 보였어."

"그건 그렇구, 그 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까요?"

그 애들의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 애에게 물어선 안 된다. 프레드. 그러면 안돼. 그 애가 입학 첫날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

"알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

호각 소리가 났다.

"서둘러라!" 그 애들의 엄마가 말하자 세 소년이 기차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하자,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지니, 부엉이들을 많이 보낼게."

"우리가 호그와트 화장실 변기를 보내줄게."

"조지?"

"농담이에요, 엄마. "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 여동생은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기차가 속도를 낼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뒤로 물러나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기차가 모퉁이를 돌 때 그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창문으로 집들이 희희 지나갔다. 해리는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다.

객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막내둥이 빨간 머리가 들어왔다.

"저기 앉을 사람 있니?" 그가 해리의 반대편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다른 곳은 다 찼거든. "

해리가 고개를 가로젓자 그 아이가 와서 앉았다. 그는 해리를 흘끗 쳐다보고는 보지 않은 척하며 얼른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 애는 코에 여전히 까만 얼룩을 묻히고 있었다.

"야, 론. "

쌍둥이들이 왔다.

"잘 들어, 우리 기차 한가운데로 갈 거야. 리 조던이 타란툴라 거미를 갖고 있거든. "

"알겠어." 론이 웅얼웅얼 말했다.

"해리."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우리를 소개할까? 우리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야. 그리고 이 애는 우리의 동생, 론이구 그럼 나중에 보자."

"잘 가." 해리와 론이 말했다. 그 쌍둥이 형제가 객실 문을 닫고 가버렸다.

"네가 정말로 해리 포터니?" 론이 불쑥 물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난 프레드와 조지 형이 또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너 정말로 있니- 있잖아..."

론이 해리의 이마를 가리켰다.

해리는 그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보여 주려고 앞머리를 뒤로 제꼈다. 론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맞아."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난 기억이 나지 않아."

"전혀?" 론이 몹시 궁금한 듯 물었다.

"글쎄, 난 초록 불빛이 많았던 건 기억나는데, 그것 말고는 전혀 기억이 안나. "

"와." 그는 잠시 해리를 뵈히 바라보며 앉아 있더니, 그렇게 한 자신의 행동이 겸연쩍은 듯, 얼른 다시 창 밖을 내다보았다

"네 가족들은 모두 마법사니?" 해리는 론만큼이나 이 만남을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저, 그래. 그런 것 같아." 론이 말했다. "엄마에겐 회계사인 사촌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그 분에 대해 한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 "

"그럼 넌 이미 많은 마법을 알겠구나. "

위즐리 가족은 확실히 다이애건 앨리에서 만난 그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말했던 전통 있는 마법사 가족들 중 하나인 게 분명했다.

"난 네가 머글들과 함께 살았다고 들었어." 론이 말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끔찍해.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이모와 이모부와 사촌은 그래. 내게도 마법사 형제가 세 명쯤 있으면 좋겠어."

"다섯이야" 론이 말했다. 무슨 이유인지,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서 호그와트에 가는 건 내가 여섯 번째야. 그래서 주위의 기대가 정말 대단해. 빌 형과 찰리 형은 벌써 졸업했어. 빌 형은 수석 학생이었고 찰리 형은 퀴디치 주장이었어. 그리고 이제 퍼시 형은 반장이지. 프레드와 조지 형은 아주 장난꾸러기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적은 정말 좋고 아이들은 모두 그들이 정말로 재미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나도 형들만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내가 잘한다 해도, 별로 대단한 일은 못될 거야. 왜냐하면 형들이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만일 너에게 형이 다섯 명 있다면 너 역시 절대로 새 것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난 빌 형의 망토와, 찰리 형의 낡은 지팡이와, 퍼시 형의 늙은 쥐까지 모두 헌 것뿐이야."

론은 재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자고 있는 살쥔 잿빛 쥐 한 마리를 꺼냈다.

"이 쥐의 이름은 스캐버스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잠에서 거의 깬 적이 없거든. 퍼시 형은 반장이 되었다고 아빠에게서 부엉이를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 그래서 난 대신 스캐버스를 갖게 된 거지. "

론의 콧불이 새빨개졌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부엉이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 역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돈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는 론에게 두들리의 낡은 옷을 입어야 하고 제대로 된 생일 선물 하나 받아

본 적이 없었던 생활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론은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 그리고 해그리드가 내게 말할 때까지, 난 마법사가 된다거나 선물이나 볼드모트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어"

론은 놀란 나머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러니?" 해리가 물었다.

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다니!"

론은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난 어느 누구보다도 네가 그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말한 건 용감해 보이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냐." 해리가 말했다. "난 그저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전혀 몰랐을 뿐이라구.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난 배워야 할 게 많아... 정말이야." 그는 최근에 많이 걱정해왔던 뭔가를 처음으로 말로 내뱉었다. "틀림없이 난 학급에서 꼴찌할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머글 가족 출신들도 많은데 그들도 아주 빨리 배운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기차는 런던 교외로 빠져나갔다. 이제 기차는 소와 양떼들이 가득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들판과 좁다란 길이 획획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12시 반쯤 바깥 복도에서 달가닥달가닥하는 소리가 나더니 보조개가 옴폭 들어간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객실 문을 열고 물었다. "뭐 좀 먹을래, 애들아?"

해리는 아침을 먹지 않았으므로 벌떡 일어났지만, 론은 컵불이 다시 새빨개져서는 샌드위치를 가져왔다고 중얼거렸다. 해리는 복도로 나갔다.

더즐리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사탕을 사먹을 돈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의 주머니는 초콜릿 바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그러나 그 여자는 초콜릿 바는 갖고 있지 않았다-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온갖 맛이 나는 젤리와, 풍선껌과, 개구리 모양의 초콜릿과, 호박 파이와, 큰 냄비 모양의 케이크와, 감초로 만든 요술지팡이와, 해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 해리는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걸 조금씩 사고 그 여자에게 은 시클 11개와 청동 크넛 7개를 치렀다.

해리가 그 모든 걸 객실 안으로 갖고 들어와 빈자리에 쏟아 붓자 론이 뻘뻘 바라보았다.

"배고픈가 보구나, 그렇지?"

"죽을 지경이야." 해리가 호박 파이를 크게 한입 베어먹으며 말했다.

론은 둥그런 꾸러미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샌드위치가 네 개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떼어내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늘 내가 쇠고기 소금절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리신단 말야."

"이거 하나와 바꾸자." 해리가 파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서 -"

"넌 이것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 말라비틀어졌거든." 론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 시간이 없으셔." 그가 얼른 덧붙였다.

"알다시피, 우리 오 형제 때문에 말야. "

"자 어서, 파이 하나 먹어." 해리가 말했다. 그는 전에는 한번도 누구와 뭘 나눠먹은 적이 없었다. 아니, 실은, 나눠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론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자기의 파이와, 케이크와, 사탕들을 먹는 기분은 정말 괜찮았다(샌드위치는 까맣게 잊혀져 있었다).

"이것들은 뭐지?" 해리가 개구리 모양의 초콜릿 갑을 들어 올리며 론에게 물었다. "진짜 개구리는 아니겠지?" 그는 이제 무엇을 봐도 놀랄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론이 말했다. "하지만 카드는 뭔지 봐. 난 아그리파였으면 좋겠어."

"뭐라구?"

"아참, 넌 모르겠구나. 그 초콜릿 안에는 카드가 들어있어, 있잖아, 유명한 마녀나 마법사들의 사진을 모으는 것 말야. 난 500장 정도 모았는데, 아그리파와 프톨레마이오스는 하나도 없거든. "

해리는 개구리 초콜릿 하나를 뜯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 카드엔 어떤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반달 모양의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길고 구부러진 코에, 멋지게 드리워진 은빛 머리카락과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사진 밑에는 알버스 덤블도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 사람이 덤블도어구나!" 해리가 말했다.

"설마 덤블도어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겠지 !"

론이 말했다. "나 개구리 초콜릿 하나 먹어도 되니? 아그리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마워-"

해리는 카드를 뒤집어 읽었다.

알버스 덤블도어  
현 호그와트 교장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최고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덤블도어는 특히 1975년에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물리친 것과, 용의 피의 12가지 사용법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의 파트너 니콜라스 플라멜과 연금술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덤블도어 교수는 실내악과 텐핀 볼링을 즐긴다.

해리가 카드를 다시 뒤집어 보자 놀랍게도 덤블도어의 얼굴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없어졌어 !"

"원래 그런 거야. " 론이 말했다. "다시 올 거야. 아니, 이거 또 모르거나잖아. 여섯 개나 있는데... 너 가질래? 너도 모아봐."

론의 눈이 아직 남아있는 개구리 초콜릿 더미 쪽으로 돌아갔다.

"먹어."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머글 세계에서는 그냥 사진으로 남아있어."

"그래? 뭐야, 그럼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야?" 론

은 놀란 것 같았다. "신기하군!"

해리가 뚫어지게 바라보자 덤블도어가 다시 카드 사진으로 스르르 들어와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론은 유명한 마녀나 마법사들의 카드를 보는 것보다 개구리 초콜릿을 먹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해리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곧 덤블도어와 모르가나뿐만 아니라, 우드크로프트의 헨지스트와, 알베릭 그루니온, 키르케, 파라셀수스, 멀린도 나왔다. 그는 마침내 코를 굽적이고 있는 마법사 클리오드나에게서 눈을 떼고,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 봉지를 뜯었다.

"그런 건 조심해야 해." 론이 해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젤리가 온갖 맛이 난다는 건, 말 그대로 온갖 맛이거든. 운이 좋으면 초콜릿이나 페퍼민트나 마멀레이드 같은 맛이 나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재수 없으면 시금치나 간이나 내장 맛이 나는 걸 먹게 될 수도 있어. 조지 형은 한번은 아주 이상한 맛이 나는 걸 먹었었지."

론은 초록색 젤리를 하나 집어 들고, 유심히 살핀 뒤, 한쪽 귀통이를 조금 베어먹었다.

"으으- 봤지? 양배추추 맛이야. "

그들은 강낭콩 젤리를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해리는 구운 빵, 코코넛, 구운 콩, 딸기, 카레, 풀, 커피, 정어리 맛이 나는 젤리를 먹었고, 심지어는 론이 손도 대려 하지 않으려 하는 이상한 회색 젤리를 조금 갇아먹기까지 하는 용기를 보였지만, 그건 알고 보니 후추 맛이였다.

이제 창문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지고 있었다. 산뜻한 들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나무와, 구불 구불한 강줄기와, 암록색의 언덕이 보였다.

그때 객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해리가 9와 3/4번 승강장에서 지나쳤던 동그란 얼굴의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그런데 너 두꺼비 한 마리 못 봤니?"

그들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 애가 울면서 말했다. "잃어버렸어! 그 녀석은 계속 내게서 달아나려고 해!"

"나타나겠지." 해리가 말했다.

"그러겠지." 그 아이가 불쌍하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두꺼비를 보면...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저 애는 왜 그까짓 두꺼비 한 마리 갖고 저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론이 말했다. "한약 나한테 그런 두꺼비가 있다면 난 차라리 잃어버린 셈치고 찾아다니지 않을 거야. 나도 스캐버스를 가져왔으니, 할말은 없지만 말야."

쥐는 아직도 론의 무릎에서 졸고 있었다.

"이 녀석은 언제나 이래. 늘 이렇게 잠만 자고 있거든." 론이 넌더리가 나서 말했다. "어제는 이 녀석을 더 재미있게 보이게 하려고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 마법이 듣지를 않더라구 보여줄게, 자..."

그는 가방 속을 뒤적거리더니 아주 낡아 보이는 지팡이를 하나 꺼냈다. 그것은 여기저기가 조금씩 깨져 있었는데 끝에

는 뭔가 하얀 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니콘의 머리털이 조금 빠져서 나온 거야. 어쨌든-"  
그가 지팡이를 들어올렸을 때 객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또 두꺼비를 잃어버린 그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 아이와 함께였다. 그 여자아이는 벌써 새 호그와트 망토를 입고 있었다. "

"두꺼비 한 마리 본 사람 없니? 네빌이 잃어버렸거든." 그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 아이는 으스대는 목소리에, 술이 많은 갈색 머리, 그리고 다소 큰 앞니를 갖고 있었다.

"우린 이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론이 말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고 있었다.

"어머, 너 마법 부리려고 하는 거니? 그럼, 한번 해봐."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론은 깜짝 놀랐다.

"저- 좋아."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햇빛이여, 데이지여, 버터 멜로우여,  
이 멍청하고, 살찐 쥐를 노랑게 바꾸어라. "

그가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캐버스는 그대로 잣빛인데다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

"그 주문이 확실하니?" 그 여자아이가 물었다. "글쎄, 썩 훌륭하진 않은데, 안 그래? 나도 연습으로 간단한 주문 몇 개는 해봤는데 다 들었었거든.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마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호그와트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놀랐었어, 물론 난 굉장히 기뻐했지만 말야. 내 말은 호그와트가 최고의 마법 학교라고 들었거든, 난 물론 교과서들을 몽땅 외워버렸어. 그거면 충분하길 바랄 뿐이야. 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야,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니?"

그녀는 이 모든 말을 아주 빨리 했다.

론을 바라본 해리는 어리벙벙해진 그의 표정으로 보아 그 역시 교과서들을 모두 외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도했다.

"론 위즐리야." 론이 우물우물 말했다.

"해리 포터야"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니?"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난 물론 너에 대해 모든 걸 알아. 난 예비 지식용으로 책을 몇 권 더 샀는데 현대 마법의 역사"와 "어둠의 마법의 번영과 몰락"과 "20세기의 위대한 마법사 사건들" 이라는 책에 네가 나와 있었어."

"내가?" 해리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이럴 수가, 넌 몰랐니, 내가 너였다면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찾아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너희들 혹시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 계속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난 그리핀도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덤블도어도 그곳에 있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래번클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건 그렇고, 우린 가서

네빌의 두꺼비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너희 둘도 옷을 갈아입는 게 좋을 거야. 곧 도착할 테니까. "

그리고 그녀는 두꺼비를 잃어버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든, 저 여자아이와 같은 기숙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론이 말했다. 그는 지팡이를 다시 가방 속으로 던졌다. "빌어먹을 주문 같으니라구. 그건 조지 형이 가르쳐준 건데, 그는 틀림없이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거야."

"네 형들은 어느 기숙사에 있니?"해리가 물었다.

"그리핀도르." 론이 말했다. 그가 다시 침울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와 아빠도 그곳에 계셨었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난 래번클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들이 날 슬리데린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바로 볼-, 내 말은, 그 사람이 들어갔던 기숙사지?"

"그래." 론이 말했다. 그는 의기소침해진 표정으로 맥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스캐버스의 수업 끝이 약간 더 밝아진 것 같아." 해리가 론이 기숙사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애쓰면서 말했다. "그런데 네 큰형들은 졸업하고 지금 뭐하니?"

해리는 학교를 마치면 마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찰리 형은 루마니아에서 용을 공부하고 있고, 빌 형은 아프리카에서 그린고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론이 말했다. "너 그린고트에 대해 들어봤니?" 예언자 일보엔 어디나 나와 있지만, 네가 머글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급 금고를 털려고 했었다."

해리는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그들을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하지만 그 사건이 그렇게 대형 뉴스가 되었던 건 바로 그랬기 때문이야. 그들은 잡히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그린고트까지 손을 뻗은 건 틀림없이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짓일 거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해,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들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해서 겁을 먹지. "

해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그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무서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게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걱정 한진 않고 "볼드모트"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편안했었다.

"그런데 넌 어떤 퀴디치 팀 팬이니?" 론이 물었다.

"어- 난 아무 것도 몰라." 해리가 솔직히 말했다.

"뭐라구!" 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야-"

그리고는 그는 공 네 개와 선수 일곱 명의 위치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는, 형들과 함께 가봤던 유명한 경기들과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빗자루에 대해 말했다. 그가 해리에게 그 경기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려는 순간 객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꺼비를 잃어버린 네빌도,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도 아니었다.

남자아이 세 명이 들어왔는데, 해리는 그 중간에 있는 아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아인 바로 말킨 부인의 옷가게에서 본 그 창백한 아이였다. 그 애는 다이애건 앨리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니?" 그가 물었다. "기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해리 포터가 이 객실에 있다고 하던데. 그게 너니, 그래?"

"맞아." 해리가 말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은 땅딸막하고 아주 심술궂게 생긴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은 꼭 보디가드처럼 창백한 아이의 양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아참, 이쪽은 크레이브고 이쪽은 고일이야." 그 창백한 아이가 해리가 보고 있는 곳을 살피며 무심코 말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말포이야, 드레이코 말포이. "

론은 웃음을 참고 있었던지, 약간 기침 소리를 냈다.

"내 이름이 웃긴다 이거니? 네가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구나. 위즐리 가족은 모두 빨간 머리에, 주근깨투성이에다 형편에 맞지 않게 아이들을 턱없이 많이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

그는 다시 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도 곧 어느 마법사 가족이 더 좋은지 알게 될 거야, 포터. 나쁜 부류의 아이들과 사귀고 싶지는 않겠지. 난 널 도와줄 수 있어. "

그는 해리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해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어떤 아이가 나쁜 부류인지는 나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어, 고마워." 그가 차갑게 말했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창백한 양볼이 약간 붉어졌다.

"내가 너라면 조심할 거야, 포터." 그가 천천히 말했다. "조금 더 공손하게 굴지 않는다면, 너도 네 부모와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거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몰랐어. 네가 위즐리 가족이나 저 해그리드 같은 쓰레기들과 어울리면 가치가 떨어질 거야. "

해리와 론 모두 벌떡 일어났다.

"그 말 한번 더 해봐." 론이 얼굴이 머리카락만큼이나 빨개져서 말했다.

"그래, 우리와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니?" 말포이가 코웃음을 쳤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았단간."

해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용감해 보이게 말했던 것은 크레이브와 고일의 몸집이 그나 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린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니 애들아? 우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으니 말야. "

고일은 론 옆에 있는 개구리 초콜릿 쪽으로 손을 뻗었다. 론이 달려들자, 고일은 그가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어느새 스캐버스가 고일의 손가락 마디 깊숙이 날카로운 작은 이빨을 박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고일이 울부짖으며 스캐버스를 빙빙 돌리자 크레이브와 말포이는 꿈무늬를 뺏고, 스캐버스가 마침내 떨어지면서 창문에 부딪히자, 세 명 모두 줄행랑을 쳤다. 그들은 그 과자들 속에 더 많은 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발자국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잠시 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들어왔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가 마룻바닥에 널브러진 과자들과 스캐버스의 꼬리를 잡고 있는 론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애들 깜짝 놀랐겠지?"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그는 스캐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녀석이 다시 잠들어버렸어."

쥐는 정말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너 말포이 만난 적 있니?"

해리는 다이애건 앨리에서 그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그 애의 가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론이 험악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사라진 뒤 가장 먼저 우리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악마의 마법에 걸렸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아. 말포이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계로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는 헤르미온느에게로 돌아섰다. "무슨 일 있니?"

"너희들 빨리 망토로 갈아입는 게 좋겠어. 내가 막 저 앞에서 차장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다 왔다. 너희들 싸운 건 아니지? 그랬다간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을 받게 될 거야!"

"스캐버스가 싸웠어. 우리는 아냐." 론이 그녀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옷 좀 갈아입게 나가줄래?"

"좋아. 난 그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린애들같이 굴길래 여기에 들어온 것뿐이야." 헤르미온느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네 코에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거 알고 있니?"

론은 나가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진한 자줏빛 하늘 아래 산과 숲이 보였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와 론은 재킷을 벗고 길고 까만 망토를 입었다. 론의 망토는 그에게 약간 짧아서, 그 밑으로 운동화가 보였다.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5분 뒤 호그와트에 도착할 것입니다. 짐은 학교로 따로 우송될 테니 기차에 그대로 두십시오." 긴장해서인지 해리는 갑자기 위가 비틀렸고, 론의 주근깨투성이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남은 과자를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복도에 떼지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끼었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멈춰 섰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문 쪽으로 나아가, 작고 어두운 승강장으로 나왔다. 해리는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몸을 떨었다. 그 뒤 등불 하나가 학생들의 머리 위로 간신히 움직이며 왔고, 해리는 친근한 목소리를 들었다. "1학년들! 1학년들은 여기로! 저기 있군, 해리?"

털투성이인 커다란 해그리드의 얼굴이 수많은 머리들 위에서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자, 따라와 1학년들 또 있니? 자, 발밑을 조심해! 1학년들은 날 따르도록!"

그들은 미끄러지고 발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해그리드를 따라 가파르고 좁은 길로 내려갔다. 어느 쪽을 보아도 매우 어두웠으므로 해리는 울창한 숲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두꺼비를 계속 잃어버리는 네빌만이 한두 번 코를 훌쩍거렸을 뿐이었다.

"잠시 후면 호그와트를 처음으로 보게 될 거야. "해그리드가 어깨 너머로 크게 말했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자 "우우!"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좁다란 길이 끝나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시커먼 호수가 나왔다. 맞은편의 높은 산꼭대기에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작은 성채들이 모인 거대한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한 배에 4명씩!" "해그리드가 호숫가에 있는 작은 배들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말했다 해리와 론이 배에 타자 네빌과 헤르미온느가 따라왔다.

"다 탔니?" 해그리드가 자신은 배에 혼자 올라타며 소리쳤다.

"자 그럼, 앞으로!"

그리고는 작은 배들이 동시에 잔디처럼 부드러운 호수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모두 머리 위에 있는 그 거대한 성만 뚫어지게 올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성이 서 있는 절벽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절벽이 머리에 닿을 것 같았다.

"머리 숙여!" 첫 번째 배가 절벽에 다다랐을 때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꼭 숙였고 그 작은 배들은 절벽면에 붙어서 넓은 통로를 가리고 있는 담쟁이덩굴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 바로 밑으로 나 있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따라가자, 지하 항구 같은 곳에 도달했다. 그들은 바위와 자갈들 위로 기어올라갔다.

"거기 너! 이게 네 두꺼비니?" 아이들이 배에서 다 기어 나오자, 배를 살피던 해그리드가 물었다.

"트레버!" 네빌이 너무 기빠서 양손을 뻗으며 외쳤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해그리드의 등불을 쫓아 그 바위의 통로로 기어올라가 마침내 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드럽고 축축한 잔디 위로 나왔다.

그들은 재빨리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 거대한 오크 문 주위에 모였다

"모두 다 왔니? 거기 너, 두꺼비 아직 갖고 있지?"

해그리드가 거대한 주먹을 들어 성문을 광광 세 번 두드렸다.

## 제7장 마법의 분류 모자

성문이 금방 핵 열리더니 에메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새카만 마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찌나 엄격해 보였던지 해리는 그녀가 전혀 웃을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생들입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해그리드가 말했다.

"고마워요, 해그리드. 여기서부터는 내가 데려갈게요."

그녀는 문을 당겨서 활짝 열었다. 현관 안의 홀이 어찌나 크던지 더즐리네 집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다. 돌 벽은 그린고트에 있는 것들과 같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며, 앞에 있는 장대한 대리석 계단은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깃발로 장식된 돌 마룻바닥을 지나갔다. 해리는 오른쪽 현관에서 수백 명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머지 학생들이 이미 도착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1학년생들을 그 홀에서 떨어진 텅 빈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밀치락달치락하며 안으로 들어가 다닥다닥 붙어 서서,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호그와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학기 시작을 축하하는 연회가 곧 시작되겠지만, 연회장에 자리를 잡기 전에, 기숙사 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숙사 배정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기숙생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기숙사에 묵는 기숙생들과 수업도 함께 듣고, 취침도 함께 하며, 기숙사 학생 휴게실에서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는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래번클로, 그리고 슬리데린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각 기숙사에는 나름대로의 훌륭한 역사가 있으며 각각이 다 뛰어난 마녀와 마법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업적은 여러분이 속한 기숙사에 점수를 얻게 할 것이고, 어떤 규칙이든 어기게 되면 감점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기숙사에게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 기숙사 우승컵이 수여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속한 기숙사에 명예가 되길 바랍니다.

기숙사 배정식은 몇 분 뒤 전교생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모두 가능한 한 옷을 단정하게 하길 바랍니다. "

그녀의 눈이 왼쪽 귀밑에서 동여매진 네빌의 망토와 론의 더러운 코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해리는 초조하게 머리 카락을 눌히려고 애썼다.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

그리고는 그녀는 그 방을 떠났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기숙사에 배정되는 거지?" 그가 론에게 물었다

"시험을 보겠지 프레드는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했지만, 농담일 거야."

해리는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시험? 전교생 앞에서? 하지만 그는 아직 어떤 마법도 알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그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떠들어



대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만 자기가 암기한 모든 주문들을 빠른 속도로 중얼거리며 어느 게 필요할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그녀의 말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그렇게 긴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 한번도. 그는 심지어 선생님의 가발을 파랗게 변하게 했다는 학교의 통지서를 더즐리 가족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던 때보다도 더 긴장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금방이라도, 맥고나걸 교수가 들어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 뒤 그를 공중으로 30센티미터쯤 뛰어오르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뒤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비명을 질렀다.

"저게 도대체-?"

그는 숨이 막혔다. 그의 주위에 있던 아이들도 그랬다. 스무 명 정도의 유령이 뒷벽에서 잇따라 나왔던 것이다. 진주 빛이 나고 약간 투명한 그들은 1학년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 방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수도사처럼 생긴 살찐 유령이 말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 우리 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어야 해-"

"프라이어, 피브스에겐 기회를 줄 만큼 주지 않았어? 그는 우리에게 온갖 나쁜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부었어.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진짜 유령도 아니라구. 그런데 너희들 모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주름 깃옷에 타이즈를 신은 유령이 갑자기 1학년생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신입생들이로군!" 뚱뚱한 프라이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정 받으려고 하는 거지?"

몇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플푸프에서 만나길 바래!" 프라이어가 말했다. "내가 있던 기숙사지. "

"이제 이동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기숙사 배정식이 곧 시작됩니다. "

맥고나걸 교수가 돌아왔다. 유령들이 하나씩 맞은편 벽으로 둥둥 떠갔다

"자, 줄을 서요." 맥고나걸 교수가 1학년생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날 따라와요. "

해리는 이상하게도 다리가 납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무거워진 기분을 느끼며, 론과 함께 모래 빛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아이 뒤에 섰다. 그리고 그 방을 걸어나가 다시 홀을 지난 뒤 이중문을 지나 연회장으로 갔다.

해리는 그렇게 이상야릇하고 멋진 곳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연회장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네 개의 길다란 테이블 위에 등등 떠있는 수천 개의 촛불로 밝혀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황금 접시와 받침 달린 잔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연회장 위에는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긴 테이블이 하나 더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1학년생들을 이곳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선생님들을 뒤에 두고, 재학생들을 향해 일렬로 섰다. 그들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얼굴이 깜박거리는 촛불에 비치어 꼭 창백한 초롱처럼 보였다. 희미한 은빛을 띠는 유령들이 학

생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해리는 뻥히 바라보는 눈동자들을 피하려고 위를 올려다보았다가 벨벳처럼 까만 천장에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헤르미온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법을 써서 자연의 하늘처럼 보이게 만든 거야. '호그와트의 발달사'에서 읽었어."

연회장이 바로 하늘로 통해 있지 않고, 천장이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1학년생들 앞에 조용히 의자 하나를 놓자 해리는 얼른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의자 위에 뽕족한 마법사 모자 하나를 놓았다. 이 모자는 누덕누덕 기워지

고 헤어진데다 아주 더럽기까지 했다. 페투니아 이모였다면 집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야만 할지도 몰라 해리는 무턱대고 그런 종류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이제 그 모자에게로 쏠려 있었다. 잠시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때 그 모자가 씩룩거렸다. 그리고는 모자 테두리 부근의 헤어진 데가 입처럼 넓게 벌어지더니 그 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멋진 모자를 찾을 수 있다면  
난 나를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까만 종절모를 써도 좋고,  
맵시 있고 높은 신사모자도 괜찮아요,

난 호그와트의 마법의 분류 모자예요,  
나는 모든 모자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 머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법의 분류 모자는 모두 볼 수 있어요  
나를 써 봐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그린핀도르엔 속할지도 몰라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기사도 정신은  
그리핀도르를 특별하게 하죠  
당신은 후플푸프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곳 사람들은 정의롭고 성실하죠,  
참을성 있는 후플푸프 사람들은 진실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현명하고 사려 깊은 래번클로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요  
또 슬리데린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의 재간꾼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날 써 보세요! 겁내지 말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아요!

마음 폭 놓고 내 손에 맡겨요(내게 손은 없지만요).  
나는 생각하는 모자니까요!

그 모자가 노래를 마치자 연회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자가 네 테이블에 모두 절을 하자 다시 아주 조용해졌다.

"그럼 그저 저 모자를 쓰기만 하면 되는군!" 론이 해리에게 속삭였다. "프레드 형을 가만 두지 않을 거야. 형은 계속 트롤(지하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 괴물로 거인 또는 난쟁이로 묘사됨: 윙킨이) 같은 괴물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었거든. "

해리는 무기력하게 미소지었다. 모자를 쓰는 게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야 훨씬 나았지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모자를 쓰기를 바랐었다. 모자가 분류하는 어느 곳에도 자신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는 용감하다거나 재치가 있다거나 혹은 다른 장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만일 그 모자가 약간 소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를 언급했었다면, 그는 바로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긴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나왔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그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으면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보트, 한나!"

금발머리를 땡아 늘인 핑크빛 얼굴의 여자아이가 비틀거리며 줄에서 나와, 바로 그녀의 눈 위로 떨어진 그 모자를 쓰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뒤-

"후플푸프!" 그 모자가 소리쳤다.

한나가 오른쪽에 있는 후플푸프 테이블로 가서 앉자 그곳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해리는 뚱뚱한 프라이어 유령이 그녀에게 유래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보았다.

"본즈, 수잔!"

"후플푸프!" 그 모자가 다시 소리치자, 수잔이 쭈르르 달려가 한나 옆에 앉았다.

"부트, 테리!"

"래번클로!"

이번엔 왼쪽에서 두 번째 테이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몇 명의 래번클로 사람들은 테리가 그들에게 합류하자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 일어서기도 했다.

'브로클허스트, 맨디' 역시 래번클로로 갔지만, "브라운, 라벤더"가 첫 번째 그리핀도르가 되자, 멀리 있는 왼쪽 테이블에서 갑자기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해리는 론의 쌍둥이 형들이 날카로운 휘파람을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벌스트로드, 밀리센트'는 슬리데린이 되었다. 그곳에 대해 나쁜 말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그들은 왠지 다 심술궂게 생긴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확실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옛날에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 팀으로 뽑혔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으로 뽑혔었는데, 그건 그의 실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두들리가 자신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 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핀치-플레츨리, 저스틴!"

"후플푸프!"

해리는 그 모자가 어떤 때는 즉시 기숙사 이름을 외치고, 어떤 때는 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걸 알아챘다. 해리 바로 뒤에 줄서 있던 모래 빛깔 머리카락을 가진 "피니간, 시무스"는 의자에 한참동안 앉아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모자가 그리핀도르라고 알려주었다.

"그레인저,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는 거의 달리다시피 의자로 가서 그 모자를 머리에 꼭 눌러썼다.

"그리핀도르!" 모자가 소리쳤다. 그러자 론이 투덜거렸다.

아주 긴장했을 때는 늘 그렇듯이, 해리에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모자를 쓰고 저기에 한참동안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가 툭 내뱉듯이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두꺼비를 잃어버리는 아이인 네빌 롱바텀은 이름이 불려지자, 의자로 걸어 가다가 그만 엎어지고 말았다. 네빌의 경우엔 모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자가 마침내 "그리핀도르"라고 외치자, 네빌이 모자를 쓴 채로 달려나가는 바람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 모자를 맥도걸, 모랙"에게 주어야 했다.

말포이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으스스대며 걸어나가 모자가 머리에 닿기도 전에 "슬리데린!"이라며 큰소리로 소망을 말했다.

말포이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친구들인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합류했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문'... '노트'... '파킨슨'... 그리고 쌍둥이 자매, '패틸'과 '패틸'... 그 뒤 '팍스, 샬리-앤'...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포터, 해리!"

해리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쉿 소리나는 불을 켜둔 것처럼 갑자기 연회장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포터" 라고 했니?"

"해리 포터?"

그 모자가 눈 위를 덮을 때까지 해리는 연회장을 꼭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걸 보았다. 그 후에는 그 모자의 까만 내부만이 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음." 그의 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렵군, 어려워. 많은 용기가 보이네. 불량한 마음은 없고. 재능이 있군, 오 이럴

수가, 그래-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멋진 열망, 거 참 흥미롭군... 그런데 널 어디에 넣어야 하지?"

해리는 의자 가장자리를 꼭 잡고 생각했다. 슬리데린은 아냐, 슬리데린은 아냐.

"슬리데린은 아니라고?" 그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확실해? 넌 위대해질 수 있어. 여기 네 머리 속에 다 있다구. 슬리데린은 네가 위대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니라고? 그럼,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핀도르가 나올 거야!"

해리는 그 모자가 그 마지막 말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비틀거리며 그리핀도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선택되었다는 것과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게 된 데 어찌나 마음이 놓였던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큰 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장인 퍼시는 일어서서 손을 힘차게 흔들었고,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포터가 우리 기숙사에 왔다! 포터가 우리 기숙사에 왔다!"라고 소리쳤다.

해리는 앞서 보았던 주름 깃옷을 입고 있는 유령 맞은편에 앉았다 그 유령이 그의 팔을 토닥거렸는데, 해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 같은 오싹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쪽에는 해그리드가 앉아 있었는데,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보였다. 해리도 씩 웃어 주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황금빛 의자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앉아 있었다. 해리는 기차를 타고 올 때 개구리 초콜릿 에서 꺼낸 카드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으므로 금방 알아보았다. 덤블도어의 은발은 그 연회장에서 유령들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해리는 리키 콜드런에서 만났던 안절부절못하는 젊은 퀴렐 교수도 발견했다. 큰 자줏빛 터번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주 특이해 보였다.

이제 배정 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론보다 키가 훨씬 더 큰 흑인 아이 '토마스, 딘'은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왔고, '터핀, 리사'는 래번클로가 되었다. 다음은 론의 차례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해리는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으로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모자가 소리쳤다.

"그리핀도르!"

론이 그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자 해리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크게 박수를 쳤다

"잘했다. 론, 아주 잘했어." 퍼시 위즐리가 '자비니, 블레이즈'가 슬리데린으로 호명되는 사이 아주 점잔을 빼며 해리 너머로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두루마리를 돌돌 만 뒤 그 모자를 치웠다.

해리는 빈 황금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서야 배가

굉장히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호박 파이를 먹은 지 한참은 된 것 같았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일어서 있었다. 그는 마치 그 모든 학생들을 보는 게 더없이 기쁜 듯이, 양팔을 넓게 벌리고, 학생들에게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다. "호그와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보, 울보, 쓰레기, 모두 모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두 박수 갈채를 보냈다. 해리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분-조금 미쳤어요?" 그가 미심쩍은 듯 퍼시에게 물었다.

"미쳤다구?" 퍼시가 쾌활하게 말했다. "저 분은 천재야! 세상에서 최고의 마법사라구! 하지만 좀 미치긴 했지, 그래. 감자 먹을래, 해리?"

해리는 입이 딱 벌어졌다 그의 앞에 있는 접시들에는 이제 음식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그는 한 테이블에 먹고 싶은 음식이 그렇게 많이 차려져 있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구운 쇠고기, 구운 닭고기, 돼지 갈비살과 양 갈비살, 소시지, 베이컨과 스테이크, 삶은 감자, 구운 감자, 감자 튀김, 요크셔 푸딩, 콩, 당근, 그레이비 소스, 케첩,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퍼민트 박하사탕까지 없는 게 없었다.

더즐리 가족은 엄밀히 말해 해리를 굶긴 건 아니었지만, 그는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본 적이 없었다. 두들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해리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 먹었다. 해리는 박하사탕을 빼고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접시에 잔뜩 담은 뒤 먹기 시작했다. 모두 정말 맛있었다.

"그것 참 맛있어 보이는군." 주름 깃옷을 입은 유령이 해리가 스테이크를 자르는 것을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다.

"드실-?"

"나는 거의 4백년 동안 먹지 않았어." 유령이 말했다. "난 물론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쉽긴 하지. 참, 날 소개했던가? 니콜라스 드 밌시-포르핑턴 경이야. 잘 부탁해. 그리핀도르 탑에 사는 유령이지."

"누군지 알아요!" 론이 갑자기 말했다. "형들이 말해주었어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죠!"

"날 니콜라스 드 밌시 경이라고 불러주면 좋겠구나-" 그 유령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하자, 모래 빛깔 머리카락을 가진 시무스 피니간이 끼어 들었다.

"목이 달랑달랑하다뇨? 어떻게 목이 달랑달랑할 수 있죠?"

니콜라스 경은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원했던 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인지 아주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가 통명스럽게 말하며 왼쪽 귀를 짚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의 머리통이 목 한쪽에서 뚝 떨어져 나오더니 경첩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깨 위로 늘어졌다. 누군가가 그의 목을 베려고 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분명했

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들을 보고 재미있어 하면서 머리를 다시 목으로 획 던져 올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핀 도르들이군! 우리가 금년에 기숙사 챔피언이 되도록 도와주길 바라요? 그리핀도르는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 슬리데린이 6년 동안 줄곧 우승컵을 거머쥐었지! 그 피투성이 바론이 거들먹거리는 건 이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는 슬리데린의 유령이야. "

슬리데린 테이블을 넘겨다본 해리는 그곳에 은빛 피로 얼룩진 망토를 입은 무서운 유령 하나가 멍한 눈에, 무시무시한 얼굴로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는 말포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녀석이 좌석 배치에 아주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자, 해리는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떻게 피로 뒤덮인 거죠?" 시무스가 관심이 많은 듯 물었다.

"물어본 적 없어."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우아하게 말했다. 모두가 먹을 만큼 먹자, 음식들은 자취도 없이 접시가 반짝 거릴 정도로 싹싹 비워졌다. 잠시 뒤 후식이 나왔다. 각종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과, 애플 파이, 당밀 타트(과일 등이 들어있는 파이: 옴긴이), 초콜릿 에클레어(가늘고 긴 초콜릿에 슈크림을 뿌린 것: 옴긴이), 잼 도너츠, 트라이플(포도주에 담근 카스텔라류: 옴긴이), 딸기, 젤리, 쌀 푸딩...

해리가 당밀 타트를 먹을 때, 대화가 가족 이야기로 바뀌었다.

"난 반반이야." 시무스가 말했다. "아빠는 머글이셔. 엄마는 두 분이 결혼하신 뒤에도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으셨어. 아빠에겐 약간 충격이었지."

다른 아이들이 소리내어 웃었다.

"너는 어떠니, 네빌?" 론이 물었다.

"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 마녀셨어." 네빌이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가 오랫동안 완전히 머글이라고 생각했지. 엘지 할아버지는 내가 방심하는 사이 계속해서 내게서 어떤 마법을 끌어내려고 애쓰셨어. 한번은 블랙풀 부두 끝으로 날 밀어내기도 하셨지. 하지만 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엘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녁을 드시러 오셔서, 내 발목을 이층 창문에 매달았는데 대고모 에니드가 머랭(설탕과 달걀 흰자위 등을 섞어 구워서 파이 등에 입힌 것: 옴긴이)을 드리자 잘못해서 그만 손을 놓고 말았어. 그런데 내가 정원으로 살짝 뛰어내린 거야. 모두들 정말로 기뻐 하셨지. 할머니는 우시고 계셨어. 너무 기뻐서 말야. 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얼굴을 너희들이 봐야 했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곳에 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셨거든. 엘지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셔서 내게 두꺼비를 사주셨던 커야. "

해리 맞은편에서는 퍼시 위즐리와 헤르미온느가 수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난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어. 배울 게 너

무 많거든. 난 특히 변신술에 관심 있어.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 말야. 물론 그건 아주 어렵겠지만 말야." "너희들은 아마 작은 것, 성냥을 바늘이나 뭐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해리는 몸이 따뜻해지자 졸리는 것을 느끼며,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상석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해그리드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도어 교수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상한 터번을 쓴 퀴렐 교수는, 매끄러운 까만 머리에, 매부리코, 그리고 살갗이 누르스름한 어떤 선생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매부리코 선생이 퀴렐의 터번 너머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의 이마에 난 흉터에 날카롭고, 강렬한 통증이 느껴질 것이었다.

"아야!" 해리는 손으로 머리를 탁 쳤다.

"왜 그러니?" 퍼시가 물었다.

"아-아무 것도 아냐. "

통증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리는 그 선생의 표정에서 받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해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퀴렐 교수님께 말하고 있는 선생은 누구지?" 그가 퍼시에게 물었다.?

"퀴렐은 이미 알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긴장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 분은 스네이프 교수야. 마법의 약에 대해 가르치지만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모두들 그가 퀴렐 교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스네이프는 어둠의 마법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어. "

해리는 스네이프를 한참 지켜보았지만, 스네이프는 그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마침내, 후식도 다 없어지자,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일어섰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에헴. 우리 모두 먹고 마셨으니 이제 몇 마디 더할까 합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학년생들은 정원의 모든 숲이 전교 학생들에게 출입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학년생 몇 명도 그 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덤블도어의 눈이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있는 쪽으로 번쩍었다.

"또한 학교 관리인인 필치 씨께서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어떤 마법도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켜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퀴디치 팀 선발 시험은 학기 둘째 주에 열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숙사를 위해 경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후치 부인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우측 3층 복도가 출입 금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리는 웃었지만, 웃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농담이지?" 그가 퍼시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일걸." 퍼시가 덤블도어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그 분은 보통 어디를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꼭 말해주시거든. 예를 들어 숲은 위험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야. 그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는 하지만 말야. 난 적어도 우리 반장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 이제, 자리 가기 전에, 다함께 교가를 부릅시다!" 덤블도어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미소를 띠고 있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소 굳어졌다.

덤블도어가 마치 지팡이 끝에 붙은 파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확확 가볍게 치자, 지팡이에서 길다란 황금빛 리본이 훑날리더니, 테이블 위로 높이 올라가, 뱀처럼 비틀리면서 노래 가사로 변했다.

"모두들 아무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락으로 부르세요, "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러면 시작!"

그리고 전교생이 고함지르듯 노래를 불렀다.

"호그와투 호그와트, 호기, 와티, 호그와트,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노인이건 대머리이건  
무릎에 때가 긴 어린애들이건,  
머리에 채울 것인 필요해요,  
아주 재미있는 걸로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파리 시체와 솜털만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러니 배울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잊었던 것을 알려주세요,  
그저 최선을 다해 주세요, 나머진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머리가 썩어버릴 때까지  
계속 배우고 또 배울게요. "

모두들 다른 시간에 그 노래를 마쳤다. 결국, 위즐리 쌍둥이 형제만이 남아 매우 느린 장송 행진곡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마지막 몇 소절은 요술지팡이로 지휘를 했고 그들이 노래를 마치자, 큰소리로 박수를 쳐주었다.

"오, 음악." 그가 눈을 훑치며 말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진 마법이야! 자 이제, 취침 시간 모두 출발!"

그리핀도르의 1학년생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 퍼시를 따라 연회장을 빠져 나온 뒤 대리석 계단으로 올라갔다 해리의 다리가 다시 납처럼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찌나 졸렸던지 지나갈 때 복도 초상화에 있는 사람들이 속닥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도, 퍼시가 그들을 미닫이문과 벽에 걸린 응단 뒤로 숨겨진 출입구로 두 번이나 데리고 간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하품을 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더 많은 계단들을 올라갔고, 해리는 얼마나 더 가야 멈추는 건지 궁금할 뿐이었다. 머리 위에는 막대기 한 묶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퍼시가 그것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그 막대기들이 그에게 날아오기 시작했다.

"피브스야." 퍼시가 1학년생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의 요정이지."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브스-모습을 보여봐!"

그러자 풍선에서 바람이 새는 것 같은 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저 피투성이 바론에게 갔으면 좋겠어?"

그러자 펑 하더니, 장난기 있는 까만 눈에 커다란 입을 가진 작은 남자 하나가 막대들을 움켜잡은 채, 책상다리를 하고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우우우!" 그가 고약하게 딱딱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꼬맹이 1학년생들이로군! 재미있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덩벼들었으므로 그들 모두 몸을 뒹구부렸다.

"저리 가, 피브스, 그렇지 않으면 바론에게 말할 거야. 정말이야!" 퍼시가 크게 호통쳤다.

피브스는 혀를 쏙 내밀더니 네빌의 머리 위에 막대들을 떨어뜨리고는 갑옷 스치는 것 같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라져버렸다.

"모두들 피브스를 조심해야 해." 다시 출발했을 때 퍼시가 말했다.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피투성이 바론뿐이야. 그는 반장들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자 이제 다 왔다"

복도 저 끝에 핑크빛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주 뚱뚱한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암호?" 그녀가 말했다.

"캐롯 드레이코니스." 퍼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초상화가 빙그르르 돌면서 그 벽에 동그란 구멍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급히 서둘러 들어가자-네빌은 다리가 걸릴 뻔했다-폭싹신한 안락의자로 가득 찬 아늑하고 등근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이 나타났다.

퍼시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각기 다른 문 쪽으로 안내했다 나선형으로 감겨진 계단을 다 올라가자-그들은 그 여러 탑들 가운데 어느 한 탑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마침내 침대들이 나타났다. 사주식 침대(커튼이나 담집을 단 침대: 옮긴이) 다섯 개에 진한 자줏빛 커튼이 늘어져 있었다. 그들의 방은 이미 도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말도 많이 하지 않은 채, 잠옷을 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맛있는 음식이었지?" 론이 커튼을 통해 해리에게 중얼거렸다. "저리 가, 스캐버스! 녀석이 내 시트를 갉아먹고 있어."

해리는 그에게 당밀 타트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만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해리는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가 퀴렐 교수의 터번을 쓰고 있었는데, 그 터번은 그에게 계속 해서 슬리데린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그의 운명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해리가 그 터번에게 그는 슬리데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그것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벗어 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플 정도로 꼭 조여지기만 했다. 그리고 그 터번을 벗어 제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를 말포이가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는 말포이는 곧 매부리코 선생인, 스네이프로 변했는데, 그의 웃음소리는 한층 더 높고 차가웠다. 그 때 갑자기 초록 불빛이 나타났고, 해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뒤척대다가 다시 잠들었고, 다음날 잠에서 깰 때는 그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 제8장 마법의 약 선생님

"저기, 봐."

"어디?"

"빨간 머리 아이 옆에."

"안경 쓰고 있어?"

"얼굴 봤어?"

"흉터 봤어?"

그 다음날 해리가 기숙사를 나온 순간부터 아이들은 줄곧 해리를 보고 수군수군했다. 아이들은 그를 한번 보려고 교실 밖에 죽 늘어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거나, 복도에서 그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급히 몸을 돌려 다시 달려와 뺨히 쳐다보기가 일쑤였다. 해리는 그들 때문에 교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랐다.

호그와트에는 142개의 계단이 있었다. 넓고 단단한 것도 있었고, 좁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거리는 것도 있었다. 금요일에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통하는 것도 있었고, 반쯤 올라가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공손하게 부탁하지 않거나, 특정한 곳을 문지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과, 진짜 문이 아니라 딱딱한 벽에 그저 문처럼 만들어져 있는 문도 있었다. 또한 모든 게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것 같았으므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초상화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므로, 해리는 갑옷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유령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열려고 하는 문 앞에 갑자기 유령이 스르르 나타나 소스라치게 놀라기가 일쑤였다. 목이 달랑달랑한 늑은 새로 들어온 그리핀도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걸 기쁨으로 여겼지만, 소리의 요정 피브스는 수업에 늦은 학생을 만나면 문 두 개를 잠가 두거나 속임수 계단을 만들어 골탕을 먹이곤 했다. 그는 또 쓰레기통을 학생들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융단을 발밑에서부터 잡아당기고 분필을 집어던지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몰래 다가가, 코를

잡고는 "코 잡았다!"라고 외치곤 했다.

피브스보다 훨씬 더 심한 장난을 치는 건, 학교 관리인 아구스 필치였다. 해리와 론은 첫날 아침에 바로 그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이 문을 억지로 뚫고 지나가려는 걸 필치가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은 공교롭게도 3층의 출입 금지된 복도로 가는 문이었던 것이다. 그가 길을 잃었다는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그 문을 부수려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하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퀴렐 교수에 의해 간신히 구제되었다.

필치는 "노리스 부인"이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꼭 것처럼 툭 불거지고, 등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비쩍 마르고, 뿌연 갈색을 띤 녀석이었다. 그 고양이는 혼자서 복도들을 순찰하며 돌아다녔는데, 그 앞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털끝만치라도 벗어났다가는, 당장 가서 필치에게 일러바쳤고, 그러면 잠시 뒤 필치가 씨근거리며 나타나곤 했다. 필치는 그 학교의 비밀 통로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아마도 위즐리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다면) 유령들만큼이나 불쑥불쑥 나타났다. 학생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으므로 "노리스 부인"을 발로 세게 걷어차 보는 게 많은 학생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일단 우여곡절 끝에 교실을 찾아가도, 수업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해리는 마법에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몇 마디 우스꽝스런 주문을 외우는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자정에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의 이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배워야 했다. 또 일주일에 세 번씩, 스프라우트 교수라는 땅딸막한 마녀와 함께 성 뒤에 있는 온실에 나가 약초에 대해 공부해야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기이하게 생긴 식물과 곰팡이들을 가꾸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 쓰임새도 익혔다.

물론 가장 재미없는 수업은 유일하게 유령이 가르치는 "마법의 역사"라는 과목이었다. 빈스 교수는 교무실 난로 앞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몸은 남겨둔 채 일어나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빈스는 학생들이 이름과 날짜를 쓰는 동안 계속 빈둥거리다가, 악마 에머리스와 괴짜 마법사 유리스를 혼동하는 실수를 했다.

'마법' 선생인 플리트윅 교수는 책상 위를 보기 위해 책들을 쌓아놓고 올라서야만 하는 키가 아주 작은 마법사였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출석을 불렀는데, 해리의 이름에 이르자 흥분해서 깁깁대더니 어처구니없게도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반면에 맥고나걸 교수는 달랐다. 그녀가 절대 웃을 것 같지 않다는 해리의 생각은 아주 적중했다. 엄격하고 목소리가 나는 그녀는 첫 수업 시간에 그들이 앉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현신술은 여러분이 호그와트에서 배워야 할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마법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수업 시간에 빈둥거릴 사람은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

그 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돼지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다. 모두 매우 감동 받았으므로 얼른 시작하고 싶어 안달을 했지만, 그들은 곧 가구를 동물로 바꾸려면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복잡한 필기를 많이 한 뒤, 그들에게는 성냥 한 개씩이 주어졌고 바늘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성냥을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한 사람은 오직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뿐이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학급 아이들에게 성냥이 어떻게 완전히 은빛이 되고 끝이 뾰족하게 되었는지 보여준 뒤 헤르미온느에게 얇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정말로 고대해 왔던 수업은 '어둠의 마법을 막는 방어법'이었는데, 퀴렐의 수업은 알고보니 아주 재미있었다. 그의 교실에서는 강한 마늘 냄새가 났는데, 아이들은 모두 그가 루마니아에서 만난 흡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며, 그것이 그를 잡기 위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의 터번이 골칫거리 좀비(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 혹은 그 힘으로 되살아난 영혼이 없는 인간: 윤킨이)를 없애준 사례로 아프리카의 왕자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첫째, 시무스 피니간이 퀴렐이 좀비와 어떻게 싸웠는지 를 듣고 싶다고 하자, 퀴렐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날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터번 주위에서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걸 그들이 알아챘는데,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퀴렐이 어디를 가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터번 안에 마늘을 잔뜩 넣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는 그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마음이 놓였다. 많은 아이들이 머글 가족 출신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이 마녀나 마법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배울 게 어찌나 많은지 온 가족이 마법사인 론과 같은 아이들조차도 그다지 유리한 게 없었다.

금요일 아침은 해리와 론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마침내 연회장까지 한번도 길을 잃지 않고 내려갔던 것이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지?" 해리가 포리지에 설탕을 부으며 론에게 물었다.

"슬리데린 학생들과 함께 듣는 '마법의 약' 수업이 있어. "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기숙사의 담당 교수야. 그 교수는 그쪽 학생들만 좋아한다는데, 정말인지 봐야겠어."

"맥고나걸 교수님이 우리에게도 친절하면 좋을 텐데." 해리가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담당 교수였지만, 그 전날에도 그들에게 숙제를 산더미같이 내주었었다.

바로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다. 해리는 이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첫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주인을 발

견할 때까지 테이블 둘레를 돌다가 편지와 소포를 제각기 주인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던 일은 약간 충격적이었다.

헤드위그는 해리에게 지금까지 아무 것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그 부엉이는 때로 날아 들어와 그의 귀를 물어뜯고 토스트를 조금 먹은 뒤 학교의 다른 부엉이들과 부엉이 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헤드위그는 마멀레이드 잼과 설탕 그릇 사이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해리의 접시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해리는 그것을 단숨에 뜯어보았다. 그 편지엔 아주 난잡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리에게,

금요일 오후엔 네가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쯤 와서 나랑 차 한잔 마시지 않을래? 내가 이곳에서 첫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든걸 듣고 싶어. 헤드위그에게 답장을 돌려보내.

-해그리드

해리는 론의 깃펜을 빌려, 그 편지 뒷면에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라고 쓴 뒤 헤드위그를 다시 날려보냈다.

수업 후 해그리드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런 기대마저 없었다면 그는 수업 시간 내내 지루해서 못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마법의 약" 수업은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최악이었기 때문이었다.

학기 초 연회에서, 해리는 스네이프 교수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나갈 즈음,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스네이프는 해리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해리를 엄청나게 싫어했다.

마법의 약 수업은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있었다. 그곳은 지상의 성보다 훨씬 더 추워서, 굳이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진 동물들이 벽을 따라 주르르 늘어선 유리병들 속에 담겨 등등 떠다니지 않았다 해도 오싹오싹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스네이프는 플리트웍처럼, 출석을 부르는 걸로 수업을 시작했다. 플리트웍처럼 해리의 이름에서 잠시 멈칫했다.

"아, 그렇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리 포터. 우리의 새로운- 유명인사로군."

드레이코 말포이와 그의 친구 크레이브와 고일이 킁킁거리며 숨죽여 웃어댔다. 스네이프는 출석을 다 부르고 나서 학급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해그리드처럼 까맣지만 해그리드의 눈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두 눈 모두 차갑고 공허했으며 어두운 터널을 생각나게 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신비한 과학과 더불어 마법의 약의 정확한 조제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지만,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들었다. 스네이프도 맥고나걸 교수와 마찬가지로, 힘들이지 않고 학급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멍

청한 짓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법이라는 걸 거의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희미한 연기를 뿜어내며 부드럽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혈관으로 슬금슬금 흘러 들어가 정신을 홀리고, 감각들을 무디어지게 하는 그 연한 액체들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명성을 얻고, 영화를 누리며, 죽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사람들보다 더 큰 바보들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교실이 더 조용해졌다. 해리와 론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헤르미온느 고레인저는 의자 끝에 앉아있었는데 그녀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못 견뎌하는 표정이었다.

"포터!" 스네이프가 갑자기 불렀다. "썩 우려낸 물에 수선화의 뿌리를 갈아넣으면 무엇이 되지?"

뭐의 우려낸 물에 뭐의 뿌리를 갈아넣었다고? 해리는 론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그 역시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손이 번쩍 들어올려졌다.

"전 모르겠는데요. "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의 입술이 냉소로 비틀어졌다.

"쫂쫂- 화실히 이름값을 못하는군. "

그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무시해버렸다.

"다시 한번 해보자. 포터, 위석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하지?"

헤르미온느는 자리에 앉은 채로, 팔을 있는 힘껏 높이 들었지만, 해리는 위석이 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웃어대고 있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모르겠는데요. "

"넌 오기 전에 책도 한번 들쳐보지 않았니, 포터?"

해리는 그의 차가운 눈을 계속 똑바로 바라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더즐리 집에서 교과서들을 훑어보았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그가 '1000가지 약초와 곰팡이'에 나오는 모든 걸 기억하리라고 생각했던 걸까?

스네이프는 여전히 헤르미온느의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있었다.

"포터, 투구꽃무리와 투구꽃의 차이는 뭐지?"

이번에는, 헤르미온느가 벌떡 일어서서, 손을 지하 감옥 천장 쪽으로 짹 뻗었다.

"모르겠어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애에게 물어보지 그러세요?"

대여섯 명이 픽하고 웃었다. 시무스는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윙크를 했다. 스네이프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앉아." 그가 헤르미온느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참고가 되도록 말해준다면, 포터, 수선화와 썩을 섞으면 아주 강력한 수면제가 되므로 '살아있는 죽음의 약'으로 알려져 있다. 위석이란

염소의 위에서 꺼낸 돌로 가장 독한 독약으로부터도 생명을 구할 수 있지. 투구꽃무리와 투구꽃은 동일한 식물로 독초라고도 불린다. 자, 모두들 이걸 그대로 필기해 두어라."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며 깃펜과 양피지 찾는 소리가 났다. 그 소음 너머로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 네 건방진 태도 때문에 그리핀도르가 1점 감점을 받게 될 것이다, 포터."

마법의 약 수업이 계속될수록 그리핀도르에겐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스네이프는 그들을 모두 두 명씩 짝지어 놓고 종기를 치료하는 간단한 약을 혼합하도록 했다. 그는 긴 까만 망토를 입고 획획 지나다니며 그들이 마른 썰기풀과 갈아버린 뱀의 송곳니의 무게 다는 걸 지켜보았고, 그가 좋아하는 것 같은 말포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흠을 잡았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이 초록빛 산성 연기와 쉬쉬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을 때에도 스네이프 교수는 모두에게 말포이가 뿔 모양의 민달팽이들을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삶았는지 보라며 그를 추켜세울 뿐이었다.

한편 네빌이 어리석게도 시무스의 냄비를 녹여 일그러뜨려 놓는 바람에, 약물이 돌 바닥으로 똑똑 떨어져, 사람들의 신발에 구멍을 냈다. 잠시 후엔, 학급 학생 전체가 의자 위에 서 있어야 했고, 다 일그러진 냄비의 약물을 뒤집어쓰게 된 네빌은 갑자기 팔다리에 온통 성난 빨간 종기들이 돋아나자 아파서 신음소리를 냈다.

"멍청한 녀석!" 스네이프가 요술 지팡이를 한번 휘둘러 그 옆질러진 약을 치워버리며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 "불을 끄기 전에 고슴도치 바늘을 넣은 거 아니냐?"

네빌은 코 여기저기에 종기들이 생겨나자 훌쩍거리며 울었다.

"그 녀석을 병동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스네이프가 시무스에게 내뱉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네빌 옆에서 실험하고 있던 해리와 론에게로 돌아섰다.

"너, 포터, 그 녀석에게 왜 바늘을 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 녀석이 잘못하면 네가 잘나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 때문에 그리핀도르는 또 1점 감점이야. "

이건 너무 불공평했으므로 해리가 따지려고 했지만, 론이 냄비 뒤에서 그를 발로 툭 찼다.

"그러지 마." 그가 비밀히 말했다. "스네이프가 아주 심술궂게 굴면 아무도 못말린다는 소리 들었어."

한 시간 뒤 계단을 올라가 지하 감옥에서 나오자 해리는 허탈하고 맥이 빠졌다. 첫 주였는데 자기 때문에 그리핀도르가 벌써 2점 감점을 당한 것이었다. 스네이프는 그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기운 내."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프레드와 조지 형에게도 늘 감점을 해. 그런데 나도 같이 가서 해그리드를 만나도 되니?"

2시 55분에 그들은 성을 나와 정원 쪽으로 향했다. 해그리드는 금지된 쉼 가장자리에 있는 자그마한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현관 밖에는 석궁(石弓)과 비을 때 방수용으로 구두 위



에 신는 덧신이 있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개 짖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다. 그리고는 "들어가, 팽, 들어가, "라고 말하는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그리드가 문을 잡아당겨 열자마자 털이 많은 그의 큰 얼굴이 나타났다.

"잠깐만. " 그가 말했다. "들어가, 팽. "

그는 엄청나게 큰 까만 사냥개의 목줄을 계속 잡고 있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그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방은 하나뿐이었다. 천장에는 햄과 꿩이 매달려 있었고, 구리 주전자는 덮개가 없는 난로 불에서 끓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누비이불이 덮여진 커다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안히 생각해. " 해그리드가 이렇게 말하면서 팽을 놓아주자 그 개가 론에게 곧장 뛰어올라 귀를 핥기 시작했다. 해그리드와 마찬가지로, 팽도 걸모습처럼 사납지는 않았다.

"얘는 론이에요" 해리가 커다란 참주전자에 끓는 물을 붓고 접시에 록 케이크(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단단한 과자 또는 건빵... 윽긴이)를 놓고 있는 해그리드에게 말했다.

"위즐리 가문 출신이지" 해그리드가 론의 주근깨를 훑듯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네 쌍둥이 형들이 숲에 들어가지 못하게 쫓아다니느라 내 일생의 반을 보냈어. "

록 케이크는 이빨로 깨물면 거의 부서지는 울퉁불퉁한 과자로 건포도가 들어있었는데, 해리와 론은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해그리드에게 그들의 첫 수업에 대해 모두 말했다. 팽은 해리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는 망토에 침을 질질 흘렸다. 해리와 론은 해그리드가 필치를 형성한 늙은이" 라고 부르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있지. "노리스 부인" 말야, 언젠가는 그 고양이에게 팽을 소개시켜 줘야겠어. 내가 학교에 올라갈 때 마다. 날 졸졸 따라다니거든? 하지만 그 고양이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 필치가 그 고양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거든. " 해리는 해그리드에게 스네이프의 수업에 대해 말했다. 해그리드는 론과 마찬가지로, 스네이프는 어떤 학생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날 정말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

"एं터리 같은 소리 !"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가 왜?"

그러나 해리는 해그리드가 이 말을 할 때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네 형 찰리는 어떻게 지내니?" 해그리드가 론에게 말했다.

"난 그를 아주 좋아했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았거든. "

해리는 해그리드가 화제를 고의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했다. 론이 해그리드에게 용에 대한 찰리의 연구에 대해 말하는 동안, 해리는 탁자 위에서 찻잔의 보온 커버 밑에 놓여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예언자 일보"에서 오려낸 것이었다.

## 그린고트 은행 침입 사건

어둠의 마녀나 마법사가 저지른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7월 31일에 일어난 그린고트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

그린고트 도깨비들은 오늘, 없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둑이 침입했던 금고는 사실 바로 그날 비워졌다는 것이다.

"그 금고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참견은 말아주십시오."라고 오늘 오후 그린고트의 대변인 도깨비가 말했다.

해리는 기차칸에서 론이 누군가가 그린고트를 털려고 했다고 말을 한 기억이 났지만, 론은 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해그리드!" 해리가 말했다. "저 그린고트 침입 사건은 내 생일날에 일어난 게 분명해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해그리드는 분명 해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툭툭거리며 그에게 록 케이크를 하나 더 주었다. 해리는 그 기사를 다시 읽었다. 도둑인 침입했던 금고는 사실 바로 그날 비워졌다. 해그리드는 713번 금고를 비우고, (그걸 비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더러운 작은 꾸러미를 꺼냈었다. 도둑들이 찾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을까?

저녁을 먹으러 성으로 다시 걸어 돌아가는 해리와 론의 주머니는 그들이 예의를 차리며 사냥했던 록 쾅크들로 축 늘어져 있었고, 해리의 머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들보다도 해그리드와의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그리드가 그 꾸러미를 도둑이 훔쳐가기 직전에 가지고 나왔던 걸까? 그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해그리드는 스네이프에 대해 해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 제9장 한밤의 결투

해리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들리보단 실언하는 안이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리핀도르4학년생들은 마법의 약 수업만 슬리데린 학생들과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포이를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비행' 수업마저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이 함께 듣게 되었다는 벽보가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 게시판에 나붙자 그들은 하나같이 투덜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해리가 음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말포이 앞에서 빗자루를 타고 바보짓 하게 되다니. "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걸 배우게 되길 고대해 왔었다. "바보짓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지. "론이 분별 있게 말했다. "어쨌든, 말포이는 자기가 퀴디치를 잘한다며 떠들고 다니지만, 난 그게 다 말뿐이라는 걸 알아. "

말포이는 확실히 비행"에 대해 많이 말하고 다녔다 그는 1학년생들이 기숙사 퀴디치 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큰소리로 불평하다가 끝에는 항상 그가 헬리콥터에서 머글들을 아슬아슬하게 구출했다는 등의 길고 허풍스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었다.

하지만 말포이만 그런 게 아니었다. 시무스 피니간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빗자루를 타고 시골을 날아다니며 보냈다고 했다. 심지어 론조차도 찰리 형의 낡은 빗자루를 타고 날다가 행글라이더와 부딪힐 뻔했다고 말하곤 했다

마법사 가족 출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퀴디치에 대해 말했다. 론은 벌써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딘 토마스와 축구에 대해 큰 말다툼을 벌였었다. 론은 아무도 날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 하나만 갖고 하는 경기가 뭐 그리 재미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리는 론이 딘의 웨스트 햄 축구팀 포스터를 막대기로 찢으며 그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걸 보기도 했었다.

네빌은 한번도 뎡자루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의 할머니가 빗자루 옆에는 가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남몰래 그의 할머니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은 두 발로 땅을 밟고 있는데도 수없이 사고를 내는 사고뭉치였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는 네빌 만큼이나 나는 것에 대해 겁을 냈다. 이것은 책을 암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가 시 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목요일 아침 식사 때 그녀는 모든 멍청이들의 비행 이야기에 따분해져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퀴디치' 라는 책을 빌려 왔었다. 네빌은 혹시 나중에 빗자루에 달라붙어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목을 매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헤르미온느의 강의가 우편물 배달로 중단되자 매우 기뻐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편지 이후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는데, 말포이는 눈치가 빠르게도 그걸 알아챘다. 말포이의 수리부엉이는 항상 집에서 그에게 과자 꾸러미들을 가져다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란 듯이 슬리데린의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외양간부엉이 한 마리가 네빌에게 그의 할머니가 보낸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다. 그가 흥분해서 그 꾸러미를 풀자 하얀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구슬 크기의 유리공 하나가 나왔다.

"리멤브럴이야!" 그가 설명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이걸 네가 잊어버린 게 있는지를 알려줘. 봐, 그걸 이렇게 꼭 잡았는데 빨강게 변하면... 어..." 리멤브럴이 갑자기 빨강게 변했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어두

워졌다. "... 네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야..."

네빌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드레이코 말포이가 그리핀도르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며, 그의 손에서 리멤브럴을 훔쳐 냈다.

해리와 론이 펄쩍 뛰었다. 그러잖아도 그들은 말포이와 싸울 동기를 반쯤 바라고 있던 터라, 이 때다 싶어 한바탕 싸움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말썽을 찾아내는 것으로 소문난 맥고나걸 교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왔다.

"무슨 일이니?"

"말포이가 제 리멤브럴을 뺏았어요, 교수님. "

말포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리멤브럴을 얼른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졸졸 뒤를 따르는 크레이브와 고일과 함께 꿈무늬를 했다.

오후 3시 30분에, 해리와 론을 비롯한 다른 그리핀도르 아이들은 첫 번째 비행 수업을 받기 위해 급히 현관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갔다.

그들은 줄을 지어 경사진 잔디밭을 내려가 "금지된 숲으로 가는 정원 맞은편의 부드럽고 평평한 잔디밭 쪽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맑았는데 산들바람이 불고 있어서인지 풀이 발 밑에서 잔물결을 일으켰다. 멀리 보이는 금지된 숲의 나무들은 험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슬리데린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고, 땅에는 스무 개의 빗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는 학교 빗자루들은 너무 높이 날면 마구 흔들리거나, 항상 조금씩 왼쪽으로만 난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다.

비행 수업 선생님 후치 부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키에, 백발이었으며 매처럼 노란 눈을 갖고 있었다.

"자, 모두들 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녀가 크게 호통쳤다. "모두들 빗자루 옆에 서라. 자, 어서. "

해리는 그의 빗자루를 훑어 보았다. 그것은 작은 가지 몇 개가 이상한 각도로 뻗어져 나와 있는 낡은 빗자루였다.

"오른손을 빗자루 위로 나오게 하고. " 후치 부인이 앞에서 소리쳤다. "'위로!'라고 말해라. "

"위로!" 모두가 소리쳤다.

그러자 해리의 빗자루는 즉시 그의 손안으로 날아들었는데, 그런 빗자루가 그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빗자루는 그저 땅 위로 굴러갔으며, 네빌의 빗자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빗자루들도, 말처럼, 탄 사람이 무서워하면 아는 것 같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의 떨리는 목소리로 보아 그가 땅에서 발을 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후치 부인은 그 뒤 그들에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빗자루에 올라타는 방법을 보여주고는, 앞뒤로

왔다갔다하며 잡는 법을 교정해주었다. 해리와 론은 그녀가 말포이에게 오랫동안 잘못해오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고소해했다.

"자, 이제 호각을 부려면, 땅을 건너차라, 세계." 후치 부인이 말했다.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수십 센티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곧장 돌아 내려오는 거야. 호각을 분다-셋-둘-"

하지만 네빌은 땅을 떠나는 게 무서워 긴장할 대로 긴장하고 있었으므로, 후치 부인의 입술에 호각이 닿기도 전에 하늘로 세계 날아올랐다.

"돌아와라, 애야!" 그녀가 이렇게 소리쳤지만, 네빌은 병에서 코르크 마개가 튀어나가듯이 곧장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3미터- 6미터. 해리는 하얗게 질린 네빌이 겁먹은 표정으로 멀어져 가는 땅을 내려다보는 걸 보았고, 잠시 뒤 그가 숨이 넘어갈 듯 놀라서 그만 빗자루 옆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쿵.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고 네빌은 잔디 더미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의 빗자루는 여전히 높이, 높이 올라가더니 금지된 숲 쪽으로 빈들빈들 떠가다가 사라져버렸다.

후치 부인은 허리를 굽혀 네빌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도 그의 얼굴만큼이나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손목이 부러졌군." 해리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애야. 괜찮다. 일어나라."

그녀는 일제히 네빌을 바라보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이 아이를 병동에 데려갈 동안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도록 해라! 빗자루는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퀴디치"라는 걸 해보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 쫓겨나고 말 테니까. 자, 애야. "

네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목을 부여잡고, 그에게 팔을 두른 후치 부인과 함께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그들이 저만치 멀리 사라져버리자 말포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멍청이의 얼굴 봤니?"

다른 슬리데린 아이들도 끼어 들었다.

"입 닥쳐, 말포이." 패르바티 패틸이 날카롭게 말했다.

"오, 너 지금 롱바텀을 두둔하는 거니?" 뽀뽀스러운 슬리데핀의 여학생인 팬시파킨슨이 말했다. "네가 똥똥한 울보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걸, 패르바티. "

"이것 좀 봐". "말포이가 쏜살같은 달려가 잔디밭에선 뭔가를 움켜쥐며 말했다. "롱바텀의 할니가 그에게 보내준 그 멍청이 같은 물건이야"

그가 리멤브럴을 들어올리자 그것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거 이리 내, 말포이. "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말하는 걸 멈추고 해리를 바라보았다.

말포이가 심술궂게 미소지었다.

"난 롱바텀이 찾을 수 있는 어딘가에 두려고 하는 거야. 저기 - 나무 위는 어때?"

"이리 내!" 해리가 소리쳤지만, 말포이는 빗자루 위로 뛰어 올라 날아올랐다.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 잘 날았다. 오크 나무의 맨 꼭대기 가지 근처를 떠다니며 그가 외쳤다. "와서 가져가, 포터 !"

해리는 빗자루를 움켜잡았다.

"안돼!"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큰소리로 말했다. "후치 부인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혼"

나게 될 거야. "

해리는 그러나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힘껏 박차고 위로, 위로 날아올랐다. 머리카락과 망토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는 말할 수 없이 기했다. 그에게도 배우지 않고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비행은 쉽고, 멋졌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빗자루를 약간 잡아당겼을 때 저 아래에서 여자아이들의 비명 소리와 론의 감탄하는 함성 소리갓 들렸다.

그는 공중에서 빗자루를 급격하게 돌려 말포이 쪽으로 향하게 했다. 말포이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다. . "

"이리 내놔. " 해리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널 빗자루에서 떨어뜨리고 말겠어 !"

"아, 그래?" 말포이는 애써 코웃음을 치기는 했지만,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해리는 꼭 빗자루를 오랫동안 타본 사람 같았다. 그가 몸을 숙이고 양손으로 확 잡자 빗자루가 말포이 쪽으로 쏠살같이 날아갔다. 말포이가 간신히 피하자 해리는 뒤로 돌아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다. 아래에서는 몇몇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 위에는 네 목숨을 구해줄 크레이브나 고일이 없어, 말포이. " 해리가 외쳤다.

말포이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간 것 같았다.

"그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그 유리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버렸다

해리는 그 공이 마치 슬로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다음 순간 그는 공과 경주하며 아재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귀를 스치는 씩씩부는 바람 소리가, 아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뒤섞였다.

그리고 공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가 손을 쭉 뻗어 공을 잡았다. 지상에서 불과 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해리는 순간적으로 빗자루를 일으켜 세워 리멤브럴을 주먹 속에 안전하게 움켜쥐고는 잔디밭 위로 부드럽게 착륙했다.

"해리 포터 !"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강하할 때보다 더했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한번도- 내가 호그와트에 온 이후 한번도-"

맥고나걸 교수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미친 듯이 번득였다. "-어떻게 겁도 없이-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해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수님

"조용히 해요, 패틸 양-"

"하지만 말포이가-"

"그만 하면 됐어요, 위즐리 군. 포터, 날 따라와요, 당장. "

해리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한 번 훑듯 바라보고는, 성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힘없이 걸어갔다. 해리는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달리다시피 해야 했다. 이제 끝장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2주일도 버티지 못하다니. 10분 후면 가방을 싸고 있겠지. 자신이 현관에 나타나면 더줄리 가족이 뭐라고 할까?

현관 계단을 올라가, 내부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는데 도, 맥고나걸 교수는 여전히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비틀어 열고 복도를 쪽 걸어갔고, 해리는 불쌍하게 그녀 뒤를 총총 걸음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어쩌면 그를 덤블도어 교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쫓겨났지만 사냥터지기로 남게 된 해그리드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해그리드의 조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론과 다른 아이들은 마법사가 되는데 자신은 해그리드의 가방을 들고 정원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속이 뒤틀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어떤 교실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실례합니다. 플리트워 교수님, 잠시 우드를 데려가도 될까요?"

우드? 해리는 어리둥절해졌다. 우드는 그녀가 그에게 쓸 회초리일까?

하지만 알고 보니 우드는 플리트워의 교실에서 당황해서 나온 억세게 생긴 5학년짜리 소년이었다.

"너희 둘 다 따라와라. " 맥고나걸 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복도를 따라 격어갔다. 우드는 신기한 듯이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안으로. "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에게 피브스가 혼자서 칠판엔 정신없이 음란한 말들을 쓰고 있는 교실을 가리켰다.

"나가요, 피브스!" 그녀가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피브스는 분필을 쓰레기통에 큰소리나게 던져 넣고는 욕을 하며 나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문을 광 닫고 두 소년에게 돌아섰다.

"포터, 이쪽은 올리버 우드다. 우드, 내가 너희 팀 수색꾼을 데려왔다."

우드의 표정이 당황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정말이세요, 교수님?"

"그럼." 맥고나걸 교수가 힘있게 말했다. "이 아인 타고난 쿼디치 선수다. 난 여지껏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빗자루를 타본 게 오늘이 처음이었니, 포터?"

해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후들거리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애는 놀랍게도 15미터를 급강하한 뒤에 떨어지는 구슬을 잡았단다. " 맥고나걸 교수가 우드에게 말했다. "그런데 몸

엔 굵힌 데 하나 없단다. 찰리 위즐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

우드는 이제 그의 모든 꿈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리 바라보고 있었다.

"퀴디치 경기 본 적 있니, 포터?" 그가 흥분해서 물었다.

"우드는 그리핀도르 팀의 주장선수란다. " 맥고나걸 교수가 설명했다.

"이 아인 딱 수색꾼 체격이네요. " 우드가 이제 해리 쪽으로 걸어가 그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말했다. "가볍고- 민첩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빗자루를 사주셔야겠어요, 교수님- 님부스 2000이나 클린스워프 세븐이 좋겠군요, "

"덤블도어 교수님께 말해서 1학년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금년엔 맹세코 작년보다 우수한 팀이 필요해. 작년 시합에서 슬리데린에 패배한 뒤로, 난 몇 주 동안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말야... "

맥고나걸 교수가 안경 너머로 해리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해리,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을 바꿔 네게 벌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 그녀가 말했다. "그 분은 뛰어난 퀴디치 선수였거든. "

"거짓말 마. "

저녁식사 시간이었다. 해리는 론에게 막 맥고나걸 교수와 정원을 떠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었다. 론은 스테이크 한 조각과 강낭콩 파이를 입으로 반쯤 가져가다가, 입을 벌린 채로 그만 먹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다.

"수색꾼?" 그가 말했다. "하지만 1학년생들은 절대로- 넌 아마- 최연소 선수일 거야-"

"-100년 만에. " 해리가 입에 파이를 밀어넣으며 말했다. 그는 오후 내내 흥분해서인지 다른 때보다 훨씬 배고픔을 느꼈다. "우드가 말해줬어. "

론은 어찌나 놀라고 감동했던지, 그저 앉아서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해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훈련은 다음 주에 시작해. " 해리가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하니까. "

그 때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해리를 발견하고는 허둥지둥 다가왔다.

"잘했어. " 조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드가 우리에게 말해주었어, 우리도 팀원이거든. 몰이꾼이지. "

"금년엔 확실히 우리가 저 퀴디치 우승컵을 따게 될 거야. " 프레드가 말했다. "우린 찰리 형이 졸업한 이후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지만, 금년 팀은 멋지게 해낼 거야. 네가 정말로 잘 하나보던데, 해리, 우드는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말할 때 거의 강충강충 뛰다시피했거든. "

"어쨌든, 우린 그만 가봐야겠어. 리 조던이 학교에서 나가는



새로운 비밀 통로 하나를 찾았다고 난리거든. "

"그건 보나마나 우리가 첫 주에 찾아낸 저 역겨운 그레고리 동상 뒤에 있는 걸 거야. "

프레드와 조지가 가버리자마자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말포이가 양쪽에 크레이브와 고일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난 것이었다.

"마지막 식사중이니, 포터? 머글 세계로 돌아가는 기차는 언제 탈 거니?"

"땅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훨씬 더 용감하군. " 해리가 냉담하게 말했다. 물론 크레이브와 고일은 덩치가 큰 놈들이었지만, 한쪽에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손가락 관절을 구부려 우두둑 소리를 내며 노력하기만 했다.

"언제라도 혼자서 너와 대결하겠어. " 말포이가 말했다. "원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좋아. 마법사의 결투법으로 요술지팡이만 갖고 하는 거야. 몸싸움 없이. 왜? 마법사의 결투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니?"

"물론 들어봤지. "론이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빙 돌리며 말했다. "7룬 해리의 2번 타잔데, 너의 2번 타자는 누구니?"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크레이브야. " 그가 말했다. "자정이야, 알았지? 트로피 보관실에서 보자. 그곳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

말포이가 가버리자, 론과 해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법사의 결투법이란 게 뭐니?" 해리가 물었다. "그리고 네가 나의 2번 타자라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2번 타자란 네가 죽으면 대신 싸울 사람을 말해. " 론이 마침내 다 식어버린 차가운 파이를 먹기 시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러나 해리의 얼굴 표정을 보자, 얼른 덧 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마법사 결투법으로 싸울 때만 죽어, 진짜 마법사들하고 싸우는 것 말야. 너와 말포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서로에게 불꽃을 보내는 것뿐이야. 너희 둘 다 진짜 손상을 입힐 만큼 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야. 내가 볼 때 그 녀석은 네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 "

"내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렀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걸 던져버리고 그 녀석의 코를 한방 날리는 거지. " 론이 말했다.

"잠깐 실례할게. "

그들 둘 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였다.

"밥은 좀 편안히 먹을 수 없겠니?" 론이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를 본체만체하고 해리에게 말했다.

"너와 말포이가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데 말야-"

"그랬겠지. " 론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밤에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돼. 그러다가 들켜서,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너 때문에 또 감점을 받게 될 그리핀도르를 생각해봐. 그건 정말로 이기적이야. "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냐. " 해리가 말했다.

"잘 가, " 론이 말했다.

해리는 딘과 시무스가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으며(네빌은 병동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훨씬 늦게까지 자지 않고 누워서, 오늘을 완벽한 하루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돼도 좋다고 생각했다. 론은 그날 저녁 내내 "그 녀석이 네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면, 얼른 몸은 피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고것들을 어떻게 막는지 잘 모르겠거든"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었다. 해리는 필치나 고양이 "노리스 부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또 다른 무덤을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말포이의 비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계속 어렴풋이 나타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말포이에게 본때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걸 놓칠 수는 없었다.

"11시 반이야. " 론이 마침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는 게 좋겠어. "

그들은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로, 지팡이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 나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간 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로 들어갔다.

벽난로에는 타다 남은 깜부기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서, 안락의자가 둥글둥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에 거의 다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의자 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해리. "

전등이 깜박거릴며 켜졌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핑크빛 가운을 입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너 !" 론이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가서 잠이나 자!"

"간 이미 네 형에게 말했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퍼시는 반장이니까, 너희를 말릴 수 있을 거야. "

해리는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빨리. " 그가 론에게 말했다. 그는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를 밀어 열고 그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헤르미온느는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론을 따라 그 초상화 구멍으로 들어가며, 꼭 성난 거위처럼 투덜거렸다.

"너희들은 그리핀도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니? 너희들은 자신들만 중요한 거야? 난 슬리데린이 우승컵을 타길 바라지 않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변신 주문들을 외워서 맥고나 걸 교수에게 어렵게 받은 점수들을 몽땅 잃게 될 거야. "

"저리 가. "

"좋아. 하지만 난 경고했어.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탄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은 정말-"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 그림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 뚱

똥한 여인은 야간 산책을 하러 가고 없었으므로 헤르미온느는 그리핀도르 탑 밖에 그냥 있어야 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알 바 아니지. " 론이 말했다. "우린 가야 해. 늦었어. "

그들이 복도 끝에 미처 다 가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쫓아왔다.

"나 같이 갈래. " 그녀가 말했다.

"안돼. "

"그럼 내가 여기 밖에 서서 필치가 날 잡도록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우리 셋을 모두 발견하면 난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야. 내 말이 틀리다고는 못할걸. "

"대단하셔. " 론이 큰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둘 다!" 해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무슨 소리가 났어."

그건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같았다.

"노리스 부인?" 론이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건 노리스 부인이 아니었다. 네빌이었다. 네빌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갑자기 깨어났다.

"고맙게도 너희들이 날 찾았구나! 난 이 바깥에서 몇 시간을 있었어. 침실로 들어가는 새 암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야. "

"목소리 낮춰, 네빌. 그 암호는 '돼지 코'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 똥보 여인이 어딘가로 사라졌거든. "

길은 어떠니?" 해리가 물었다.

"좋아. " 네빌이 팔을 보여주며 말했다. "폼프리 부인이 단번에 고쳐 주셨어. "

"잘됐다. 이봐, 네빌, 우린 어디 좀 가야 해, 그럼 나중에 보자 -"

"날 두고 가지마!" 네빌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난 여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피투성이 바론이 벌써 두 번이나 지나갔단 말야. "

론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화가 나서 헤르미온느와 네빌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우릴 들키게만 했다가는, 퀴렐이 말했던 보기스의 주문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써먹고 말 테니까 알아서 해, "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보기스의 주문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려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해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높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 때문에 창살 무의가 생긴 복도를 사뿐히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해리는 필치나 노리스 부인과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운이 좋았다. 그들은 재빨리 3층으로 올라가 까치발을 들고 트로피 보관실로 갔다.

말포이와, 크레이브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크리스탈 트로피

케이스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우승컵과 우승패와 각종 조각품들이 어둠 속에서 은빛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방 양쪽에 있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벽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다. 해리는 말포이가 뛰어들자마자 시작할 경우를 생각해 요술지팡이를 꺼내들었다. 시간이 지나갔다. .

"그 녀석이 늦는데, 어쩌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선 것인지도 몰라. "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때 옆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 모두 깜짝 놀랐다. 해리가 지팡이를 막 들어올렸을 때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말포이가 아니었다.

"갸새를 말아봐, 녀석들이 한쪽 구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

그건 노리스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 필치였다. 해리는 공포에 휩싸여 다른 세 명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미친 듯이 손짓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필치의 목소리에서 멀리 있는 문 쪽으로 종종걸음쳐 달려갔다. 네빌의 망토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필치가 트로피 보관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 그들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숨어 있겠지. "

"이쪽이야!" 해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 모양을 만들어 말하자, 그들은 겁에 질려서 갑옷으로 가득 찬 긴 진열실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필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왔다. 네빌이 갑자기 앙앙 우는 소리를 내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걸려 넘어지며 론의 손목을 잡는 바람에 둘 다 어떤 갑옷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철커덩, 쿵. 성 전체를 깨울 것만 같은 커다란 소리가 났다.

"달려!" 해리가 소리쳤고, 그들 넷은 필치가 따라오고 있는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진열실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그들은 문설주를 빙 돌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리를 선두로 복도를 뛰어갔다. 어떤 벽걸이 융단을 북 찢어 열고 들어가자 비밀 통로가 나왔고, 죽 따라가자 마법 수업을 듣는 교실이 나타났다. 그제서야 그들은 트로피 보관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없어진 것 같아. "해리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헐떡거리며 이마를 훔쳤다. 네빌은 엎어진 채로, 씩씩거리며 푸푸 소리를 냈다.

"그것- 봐. " 헤르미온드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내가 뭐했어. "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가야 해. " 론이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

"말포이가 널 속인 거야. " 헤르미온드가 해리에게 말했다.

"이제 알았니? 그 녀석은 널 만나러 오지 않을 거야. 필치는 트로피 보관실에 누군가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말포이가 일러바친 게 분명해. "

해리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그걸 말하지는 않았다. "

"가자. "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그들이 열 발짝쯤 갔을 때 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움직이며 앞 교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피브스였다. 그는 그들을 발견하자 기뻐서 소리를 뻑 질렀다.

"조용히 해, 피브스- 제발- 놀라서 자빠지겠다. "

피브스가 킬킬대며 웃었다.

"1학년생들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 쫓쫓쫓. 버릇없군, 버릇없어. 너흰 들킬 거야. "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피브스, 제발. "

"필치에게 말해야 해, 그래야 하구말구. " 피브스는 성직자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심술궂게 빛났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

"저리 비켜. " 론이 피브스를 힘껏 치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게 큰 실수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왔어요!"

피브스가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와 여기 마법 교실 복도에 있어요!"

그들은 피브스 밑으로 몸을 책 숙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조금 전 광 닫았던 문이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잠겨있었다.

"끝장이야!" 그들이 어찌해 볼 수도 없이 애꿎은 문만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 론이 투덜거렸다. "우린 결판났어! 이것으로 끝장이야!"

그들은 필치가 피브스의 고함소리가 난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좁혀서 서. " 헤르미온드가 딱딱거렸다. 그리고는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잡고 자물쇠를 두드리며, "알로호모라!"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 자물쇠가 딸깍 하더니 문이 획 열렸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가 열린 문을 닫고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귀를 기울였다.

"녀석들이 어느 쪽으로 갔지, 피브스?" 필치가 말하고 있었다. "빨리, 말해. "

"제발" 이라고 하세요. "

"엉터리 같은 짓 말고, 피브스, 자 녀석들이 어디로 갔지"

"제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

피브스가 흥얼거리며 귀에 거슬리게 말했다.

"좋아- 제발. "

"아무 것도! 하하하! 제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그들은 피브스가 획 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필치가 화가 나서 욕을 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나봐. " 해리가 속삭였다. "이제 관찮을 것 같아- 이거 봐, 네빌!" 왜냐하면 네빌이 조금 전부터 해리의 가운 소매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해리는 획 돌아섰다-그리고 그 무엇을 아주 명확히 보았다. 잠시 그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이건 너무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것보다도 더했다.

지금 그들은 방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복도에 있었다. 3층의 출입 금지된 복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이 왜 출입이 금지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천장과 마룻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괴물 같은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개는 머리가 세 개였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세 쌍치 성난 눈. 그들 쪽으로 쉴룩쉴룩 흔들리고 있는 세 개의 코. 누런 송곳니에서 침이 줄 줄 흘러내리고 있는 세 개의 입.

그 개는 여섯 개의 눈으로 그들을 노려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고, 해리는 그들이 벌써 시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에 그 개가 깜짝 놀랐기 때문일 뿐, 개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는 것을 우레 같은 저 으르렁거림으로부터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손으로 더듬어 손잡이를 찾았다. 필치와 죽음 사이라면, 그는 필치를 택할 것이다.

그들은 뒤로 물러섰다-그리고 해리가 문을 광 닫자 온힘을 다해 복도로 다시 달려 나왔다. 필치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들을 정신없이 찾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그들은 그저 그 괴물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은 7층에 있는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달리는 걸 멈췄다.

"너희들 모두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그녀가 그들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운과 땀에 젖은 상기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상관 말아요-돼지 코, 돼지 코." 해리가 헐떡거리며 말하자 그 초상화가 앞으로 흔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학생 휴게실로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락의자에 폭 주저앉았다.

한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네빌은, 정말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교에 그런 괴물을 가두어 두다니,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론이 마침내 말했다. "저 개는 물론이거니와, 개라면 다 운동이 필요할 텐데 말야."

헤르미온드도 숨을 돌리자 제 나쁜 성깔이 돌아왔다.

"눈은 뵈다 뭐에 쓸래?"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개가 무엇을 밟고 서 있는지 보지도 못했니?"

"마룻바닥?" 해리가 물었다. "난 그 개의 발은 보지 못했어 머리 세 개를 보는 데도 정신이 없었던 말야."

"아냐, 마룻바닥이 아냐. 그건 지하실 문을 밟고 서 있었어. 그건 분명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녀가 일어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제 됐니? 우린 모두 쫓겨날 수도 있었어. 아니 더 심하게

는, 죽을 수도 있었다구 자, 괜찮다면, 난 이만 가서 자야겠어. " 론이 입을 벌린 채 멀어져 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어서 가서 자. "그가 말했다. "누가 저더러 따라오라고 했나, 원 기가 막혀서. "

하지만 헤르미온드는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가는 해리에게 뭔가 또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그 개는 뭔가를 지키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뭐라고 말했지? 그린고트는 어떤 것을 숨기 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아마 호그와트를 제외 하면.

해리는 713번 금고에서 꺼내 그 더러운 작은 꾸러미가 어디 에 숨겨져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 듯했다.

해골 포터에게  
-학생들이 쓴 편지 모음

나도부엉이가 있었으면...

나도 너처럼 부엉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신비한 고 양이나 쥐가 더 갖고 싶어. 껴안고 만지는 데는 그것들이 부엉 이보다 더 좋을 테니까 말야. 내게 만약 신비한 애완동물이 있 다면 난 내 방에 숨겨두고 녀석이 마법을 부려서 우리 어머니 언니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론 위 즐리의 쥐 스캐버스처럼 녀석을 주머니 속에 넣어서 학교에 데려갈 거야. 내 시험. 답안도 모두 옳게 작성하도록 시켜야지, 낄낄. 녀석은 내 숙제도 할 수 있을 거야.

잘 지내. 그리고 쿼디치 우승컵을 또 타게 되길 바랄게.  
- 칼 크레이머

나도 너처럼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았으며...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건 틀림없이 힘들 거야. 마법을 거는 거며, 마법의 약 만드는 거며, 이상한 식물들을 키우는 거며, 지팡이로 결투하는 거며, 배울 게 너무 많잖아.

네 친구 헤르미온드는 정말로 똑똑해. 그 애를 알았으면 좋 겠어. 친구가 되고 싶어. 론에게 그 애에게 더 상냥하게 굴라 고 좀 말해 줘. 나도 너처럼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할 거야. 흥미 로운 게 보이면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구 말야. 그러 다가 다시 집으로 날아오면 되잖아.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부디 몸조심.

-제인 알리노

해리에게,

난 네가 마법 학교에 가기 전처럼 괴로운 여름을 보내지 않 았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호그와트에서 머글 연구 수업을 꼭 듣도록 해. 넌 틀림없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마법사들은 아마 영국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걸. 신비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숲도 많고 너희들에게  
고기나 삶은 감자 같은 것들을 먹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야. 우린 생선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거든.  
혹시 미국에 오게 되면 꼭 우리 학교에 찾아와주길 바래.  
-안드레아 브랜트

나는 퀴디치 수색꾼을 맡을 거야  
난 퀴디치처럼 멋진 경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니 넌 정말 행운아야. 내게 만약 그런 행운  
이 주어진다면 너처럼 수색꾼을 맡을 거야. 날아다니며 경기  
를 지켜보다가 황금빛 스니치를 발견하면 확 잡아야지! 그러  
면 우리 팀이 150점을 얻을 거 아냐.

다음 책은 온통 퀴디치에 대한 거고 다른 마법사 학교의 퀴  
디치 팀들도 나온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넌 그런 팀들과도 경  
기하겠구나.

다른 팀이나 다른 선수들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 겁나지 않  
니?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해. 다른 학교들의 퀴디치 시합  
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전략은 그 뒤 짜도 될 거야.

행운을 빌게 !

-버디 싱클레어

마법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네 인생은 정말 멋져. 나도 그랬음 좋겠어. 넌 귀엽지는 않을  
지 모르지만 퀴디치는 정말 잘하고 모두들 널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잖아. 헤르미온드는 자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멍청하기 그지없어, 너 같은 아이를 흠잡잖아.

나도 마법을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변신해서 파티 같은 데 갈 수 있을 거 아냐. 만약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난 내 머리카락을 온통 눈부신 황금빛으로 만들고  
눈 주위는 초록빛으로 번득이게 할 거야. 그리고 5분마다 색깔  
이 변하는 마법의 드레스를 입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날 브  
리태니 같은 유명한 스타라고 생각하겠지.

난 네가 더즐리 가족에게도 마법을 걸어서 그들을 정말로  
멍청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 다음 책에서도 행운  
을 빌게

-안젤리카 애도니

해리에게,

나와 내 친구들 모두 널 굉장히 동경하고 있어. 네 이모와  
이모부, 두들리는 널 좋아하지 않지만, 넌 친구들도 많이 사귀  
었고 선생님들조차 널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고,  
용들을 슬쩍 훔치고, 마법의 사탕도 먹고.

또 모두 다르게 생긴 공들과 다른 선수들이 동시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쿼디치도 할 수 있고, 항상 이기잖아.

나도 너처럼 마법사가 되어 즐겁게 보내고 싶어.

잭 힐번

나도 마법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마법사가 된다는 건 틀림없이 신나는 일일 거야! 난 네 책을 읽기 전부터 너에 대해 많은 게 알고 싶었어

넌 쿼디치에서 수색꾼으로 뛰는 게 좋으니? 다른 역할들도 좋아했을까? 님부스 2007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그 빗자루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네 친구들 론과 헤르미온드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야. 산더미 같은 트롤과"싸우고 퀴렐 교수와 싸우다니 너희들 정말 용감했어.

나도 마법사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새로운 모험에 대해 빨리 읽고 싶어.

-미셀 부티스

정말 멋진 모험담이었어

너의 첫 번째 모험담을 정말로 재미있게 곹았어.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던 네가 그토록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

마법사가 되는 게 힘들까? 두 번째 모험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넌 누굴 만나게 될까? 더 위험한 적들이 나타날까? 네가 그들과 싸울 더 좋은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될까?

아직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들도 분명 첫 번째 책만큼이나 재미있을 거야.

그런 멋진 모험을 보여주어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읽을 책이 없었을 거야.

제이드 윌리엄스

벌 받지 않도록 해!

네가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에게서 안전하게 빠져 나왔다는 말을 들었어. 위험하고 강력한 악한이 쫓아다니는 기분은 어떤 걸까?

다음에 나오는 책에서는 어떤 모험이 펼쳐지니?

쿼디치 경기를 즐기니? 그리핀도르 팀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니?

내가 듣기론 네가 쿼디치 우승컵을 거의 탈 뻔했다고 하던데, 어쩌다 그걸 놓친 거니? 넌 내년에는 틀림없이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럼, 경기할 때 조심하고 벌받지 않도록 해!

-브라이언 정

제1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 포터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투명 망토를 입어본 적도, 거인과 친구가 된 적도, 혹은 요이 부화하는 걸 도와준 적도 없었다. 해리가 아는 거라곤 그저 무서운 이모와 이모부인 더즐리 부부와 혐오스러운 그들의 아들 두들리와 함께 한 비참한 삶뿐이었다.

해리의 방은 계단 밑에 있는 작은 벽장이며, 그는 11년 동안 생일파티란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부엉이 한 마리가 절대 잊지 못할 굉장한 곳으로 초청하는 이상한 초대장 한 통을 배달해 주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해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중 스포츠와 온갖 마법을 배운다. 또한 어둠의 힘과의 결투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마법사로서의 위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